

데살로니가서 및 빌립보서 이야기

# 마케도니아교회와 비잔틴문화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

A Story of the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and the Philippians:  
**MACEDOINAN CHURCHES**  
**and Byzantine Culture**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7  
20-10 Beonyeong 8-gil Umsamyun Gyeryongsi,  
Choongnam, Korea 32815  
Tel(042)841-9697

머리말: 카이레테 니코멘(CHAIRETE NIKOMEN)

IS XS NIKA



‘카이레테 니코멘’은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정복자들입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아테네 병사였던 필리피데스(Philippides)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한 승전소식이었다. 주전 490년 지중해의 패권을 쥔 페르시아의 대군이 아테네를 치기 위해 마라톤평원에 도착하자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

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군대를 퇴각시킨 제2차 페르시아전쟁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필리피데스는 승전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30여 킬로그램의 무장을 갖춘 채 40여 킬로미터를 달렸고, 승전소식을 전한 직후에 사망했다고 한다. ‘복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앙게리온’(euangelion)은 본래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정복자들입니다!”를 외친 메신저의 승전소식 또는 승전소식에 대한 보상을 의미했다고 한다.

‘IS XS NIKA’(이예수스 크리스토스 니카)는 ‘예수 그리스도 정복자’란 뜻이자, 비잔틴시대의 대표적인 크리스토품(christogram)이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꽃피웠던 비잔틴문화의 큰

특징은 프레스코(fresco)화법과 모자이크(mosaic)로 그린, 심지어 돈(동전)에 새긴 복음서를 꺼안으신 예수님과 아이콘에 ‘예수 그리스도 정복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라고 쓴 크리스토품(christogram)에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다.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적었다. 계시록 5장 5절에도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말씀이 있다. 따라서 기독교 복음은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정복자가 되셨다는 승전소식인 것을 알 수 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님이 정복자입니다.”

예수님과 필리피데스의 공통점은 이 기쁜 소식, 곧 우리가 정복자란 사실을 전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지혜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다 이루었다”(요 19:30)고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다. 또 필리피데스는 혼신을 다해 40여 킬로미터를 달려와 “카이레테 니코멘”을 외친 후에 숨졌다.

#### HYPERNIKOMEN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 승리를 근거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였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썼으며,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하였다.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들에서 110여 차례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를 강조한 것과 빌립보서에서 ‘카이레테’(기뻐하십시오, 2:18, 3:1, 4:4)라고 말하는 등 기쁨에 대해

서 16회나 강조한 근거를 로마서 8장 37절에서 찾을 수 있다.

‘HYPERNIKOMEN’(휘페르니코멘)는 “넉넉히 이긴다”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로써 로마서 8장 37절에 쓰였다. 바울은 승전 소식이자 복음인 ‘카이레테 니코멘’에서 ‘니코멘’ 앞에 접두사 ‘휘페르’(hyper)를 덧붙여 ‘휘페르니코멘’(hypernikomen) 곧 “우리는



저장 항아리(Amphora)에 그려진 달리기 시합과 술잔(Kylix)에 그려진 여신 승리(Nike)와 우승자. 시합에서 이긴 우승자가 월계관을 받아쓰고 있다.

정복자들 그 이상입니다.”라고 선언하였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권면한 ‘카이레테’와 로마서에서 선언한 ‘휘페르니코멘’을 조합하면, ‘카이레테 휘페르니코멘’(chairete hypernikomen)이 되고, 이것을 번역하면,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정복자들 그 이상입니다.”가 된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함으로써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정복자들 그 이상입니다.”라고 외쳤던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최후승리자 곧 “정복자들 그 이상의 정복자들”이 되는 근거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정복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이며,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피조물로서는 그 누구도 인간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 CHAIRETE



바울이 “주 안에서”를 강조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 (politeuma), 월계관 (stephanos), 기쁨 (chara)의 근거가 “주 안에서” 이미 성취한 승리에 있고,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을 위하여 달려야”(빌 3:14)할 이유가 장차 “주 안에서” 거둘 최후승리에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고 하였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정복자이신 사실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정복자들 그 이상인 사실을 선포하였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고 권면했다. 여기서 “기뻐하라”가 ‘CHAIRETE’(카이레테)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의 배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계신다. 그분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

“아아”(엡 2:8),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권과 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되며, 최후승리자(nikomem)가 되고, 월계관을 받아쓰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멈출 수 없다. 믿음의 끈, 사랑의 끈, 소망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믿음위에 굳세서며’(stekete),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명예를 함께 메며(syzyge), 함께 힘쓰며(synethlesan), 꺾대를 향하여,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취를 향하여, 월계관을 받아쓰기 위하여 전력 질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또 장차 받을 영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이는 유한한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수고와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롬 8:15-18, 고후 4:17-18).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관용을 베풀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주 안에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축복이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2017년 5월 7일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

8 / 데살로니가서 및 빌립보서 이야기: 마케도니아교회와 비잔틴문화

---



## 차례

## 머리말: 카이레테 니코멘(CHAIRETE NIKOMEN)

IS XS NIKA .....	3
HYPERNIKOMEN .....	4
CHAIRETE .....	6

## 1. 데살로니가인들의 영적 상태(1)(살전 1:1)

미륵신앙 .....	17
카비루스종파와 황제숭배종파 .....	18
디오니소스종파 .....	20

## 2. 데살로니가인들의 영적 상태(2)(살전 1:2-4)

데살로니가 시(市) .....	22
데살로니가 전서 .....	23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과 내용 .....	25

## 3. 데살로니가인들의 영적 상태(3)(살전 1:5-7)

예루살렘교회의 구성원과 성격 및 변화 .....	27
바울의 선교방법과 적대세력 .....	28
바울의 선교위기와 기회 .....	30

## 4. 사랑의 수고(1)(살전 1:1-3)

바울의 인사말 .....	32
바울의 축복문구 .....	33
좋은 경험과 좋은 기억 .....	35

5. 사랑의 수고(2)(살전 1:3)

믿음의 역사 .....	37
사랑의 수고 .....	38
소망의 인내 .....	40

6. 사랑의 수고(3)(살전 1:4-10)

복음과 그리스도인 .....	42
복음의 능력 .....	43
그리스도인의 능력 .....	45

7. 사랑의 수고(4)(살전 2:1-12)

바울의 믿음농사 .....	47
바울의 사랑농사: 모성애 .....	48
바울의 사랑농사: 부성애 .....	50

8. 사랑의 수고(5)(살전 2:13)

뇌는 길들여진다. ....	52
뇌는 자기를 길들인 주인을 지배한다. ....	53
뇌 길들이기: 좋은 경험과 좋은 기억 .....	55

9. 사랑의 수고(6)(살전 2:10-13)

가치관과 관점 .....	57
세속적 가치기준 .....	58
그리스도인의 가치기준 .....	60

10. 사랑의 수고(7)(살전 2:13-2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	63
성도의 본을 받음 .....	64

전도의 열매는 전도자의 영광과 기쁨 .....	66
<b>11. 믿음의 역사(1)(살전 3:1-4)</b>	
바울의 마케도니아 선교 상황 .....	68
데살로니가교회에 실재했던 박해 상황 .....	69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유 .....	71
<b>12. 믿음의 역사(2)(살전 3:5-13)</b>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사랑 .....	73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결실한 시너지 .....	74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절개(節概) .....	76
<b>13. 믿음의 역사(3)(살전 4:1-12)</b>	
하나님을 기쁘시게 .....	78
하나님을 본받아 .....	79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	81
<b>14. 소망의 인내(1)(살전 4:13-18)</b>	
그리스도의 초림(初臨) .....	83
그리스도의 재림(再臨) .....	84
그리스도의 임재와 판소리 춘향전 .....	86
<b>15. 소망의 인내(2)(살전 5:1-11)</b>	
재림의 때와 시기 .....	88
낮과 빛의 자녀들 .....	89
소망의 인내 .....	91
<b>16. 소망의 인내(3)(살전 5:12-13)</b>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1) .....	93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2) .....	94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3) .....	96
<b>17. 소망의 인내(4)(살전 5:14-28)</b>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	98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	99
온전히 거룩하게 되라 .....	101
<b>18. 인내와 믿음(1)(살후 1:1-4)</b>	
은혜와 평강 .....	103
항상 감사의 당위성 .....	104
소망의 인내의 당위성 .....	106
<b>19. 인내와 믿음(2)(살후 1:5)</b>	
데살로니가교회가 받은 박해와 환난의 성격 .....	108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이유 .....	109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	111
<b>20. 인내와 믿음(3)(살후 1:6-12)</b>	
하나님의 공의의 성격 .....	113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 .....	114
멸망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 .....	116
<b>21. 그리스도의 강림(1)(살후 2:1-5)</b>	
그리스도의 강림과 집회 .....	118
가짜 뉴스(fake news) .....	119
적그리스도 .....	121
<b>22. 그리스도의 강림(2)(살후 2:6-12)</b>	

신(神)과 주(主)(Deo et Domino) .....	123
불법한 자들의 제한된 활동 .....	124
불법한 자들의 심판 .....	126
<b>23. 그리스도의 강림(3)(살후 2:13-17)</b>	
박해자 데키우스 .....	128
박해자 발레리아누스와 디오클레티아누스 .....	129
박해자 갈레리우스 .....	131
<b>24. 사도전통대로(1)(살후 3:1-5)</b>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 .....	133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테오도시우스 대제 .....	134
만왕의 왕,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	136
<b>25. 사도전통대로(2)(살후 3:6-18)</b>	
“우리를 본받아야” .....	138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	139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	141
<b>26. 바울의 빌립보 선교(1)(행 16:6-18)</b>	
마케도니아 빌립보 .....	143
빌립보의 루디아 .....	144
빌립보의 노예 소녀 .....	146
<b>27. 바울의 빌립보 선교(2)(행 16:19-34)</b>	
왕베크 퓌톤과 사탄 .....	148
기도와 찬송의 능력 .....	149
위기가 기회가 되다 .....	151
<b>28. 빌립보 교회(1)(빌 1:1)</b>	

감사, 그 역설적인 표현 .....	153
감독들과 집사들(1) .....	154
감독들과 집사들(2) .....	156
29. 빌립보 교회(2)(빌 1:2-11)	
은혜와 평강 .....	158
감사와 기쁨 .....	159
기도와 간구 .....	161
30. 빌립보 교회(3)(빌 1:12-30)	
위기는 곧 기회 .....	163
상당한 상황인식과 판단 .....	164
상당한 상황인식과 판단에 대한 바울의 태도 .....	166
31. 한 몸처럼 행진하는 교회(1)(빌 2:1-4)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권면 .....	168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푸는 위로 .....	169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 .....	171
32. 한 몸처럼 행진하는 교회(2)(빌 2:5-11)	
신실한 믿음과 인내로써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 .....	173
성삼위 하나님의 섬김(목회): 자기 제한 .....	174
사도 바울의 섬김(목회): 자기 제한 .....	176
33. 한 몸처럼 행진하는 교회(3)(빌 2:12-18)	
“너희 구원을 이루라” .....	178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	179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	181
34. 한 몸처럼 행진하는 교회(4)(빌 2:19-30)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	183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	184
바울시대의 에바브로디도들 .....	186
<b>35.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1)(빌 3:1-9)</b>	
주 안에서 기뻐하라 .....	188
할레파를 삼가라 .....	189
가장 고상한 지식(1) .....	191
<b>36.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2)(빌 3:10-16)</b>	
가장 고상한 지식(2) .....	193
‘이미’와 ‘아직’사이의 긴장 .....	194
그리스도인의 자기부정 .....	196
<b>37.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3)(빌 3:17-19)</b>	
“나를 본받으라” .....	198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1) .....	199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2) .....	201
<b>38.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4)(빌 3:20-21)</b>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1) .....	203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2) .....	204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3) .....	206
<b>39.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5)(빌 4:1-3)</b>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	208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	209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	211
<b>40.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6)(빌 4:4-9)</b>	

승리의 근원 .....	213
기쁨의 근원 .....	214
최후승리의 근원 .....	216

4.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7)(빌 4:10-23)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력 .....	218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 선교참여 .....	219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 .....	221



## 1. 데살로니가인들의 영적 상태(1)(살전 1:1)

### 미륵신앙



1910년대 초에 촬영된 관축사 석조보살입상 일명 '은진미륵'으로서 사진은 엽서에 담긴 불교행사 때의 모습이다. 구세주와 새천년왕국 사상을 집어넣으면 미륵불교가 된다. 미륵은 재림주 예수님과 같고, 도솔천은 낙원과 같으며, 미륵경에서 말하는 용화세계(龍華世界)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왕국과 같다. 미륵불교의 이런 가르침은 불교의 열반과 윤회사상에 모순되지만, 민중의 한을 위로하고 새천년시대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었다.

기독교가 처음 조선에 전래되었을 때, 조선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조정으로부터 조직적인 박해를 여러 차례 받았고, 그로 인해서 1만여 명의 신앙인들이 순교하였지만, 기독교 복음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응은 수용적이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이후부터 미륵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행불교가 기독교처럼 바뀐 것이 미륵불교이다. 수행불교에

미르신앙은 당나라 때 시작되었고, 이 때에 기독교의 한 교파였던 경교(Nestorianism)가 당나라에 전해졌던 터라, 기독교의 메시아신앙이 불교의 미르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미르신앙은 여러 가지 점에서 성서의 메시아신앙을 빼닮았다.

첫째, 미르는 다가올 세상인 정토(pure land) 또는 용화세계를 세울 구세주불(佛)으로써 그 모습이 사금같이 빛나고,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며, 서른두 가지 거룩한 얼굴 형태와 여든 가지 미묘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머리털은 검붉은 유리빛깔이며, 머리에는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 여의주와 보석으로 만든 하늘관(면류관)을 쓰고 있다.

둘째, 미르는 사후에 낙원에 해당되는 도솔천주로 머물다가 재림하여 세 번의 설법으로 만민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 용화세계를 세울 것이다.

셋째, 용화세계는 천년동안 불법(不法)이 없고, 인생팔고 백팔번뇌의 고통이나 슬픔이 없으며, 부족한 것이나 욕심이 없는 세상이다.

그러면 기독교가 처음 데살로니가에 전래되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유대인들로부터 조직적인 훼방과 탄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초를 겪었지만, 기독교 복음에 대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도 수용적이었다.

#### 카비루스종파와 황제숭배종파

그 이유는, 첫째, 그들이 그리스도신앙과 유사한 카비루스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느꼈던 무력감에 대한 이교적인 반응은 학자들이 카비루스종파로 일컬은 영적 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이 종파는 권리박탈자들을 변호하다가 자신의 두 형제에게 살해된 카비루스(Cabirus)에서 유래되었다. 그는 왕권의 상징물들과 함께 매장되었고, 그 종파는 그를 순교한 영웅으로 떠받들게 되었다.



트로아의 비뤼티스(Birythis)에서 주전 350-250년 사이에 발행된 주화. 전면에 부드러운 털모자(pileus)를 쓴 카비로스(Kabiros)가 두 개의 별과 함께 부조되었고, 후면에는 화환 속에 곤봉과 문자 'BIRY'가 부조되었다.

하층민들은 카비루스가 생전에 기적을 행하였고, 때때로 은밀히 환생하여 사람들을 돕는다고 믿었으며, 장차

재림하여 하층민들에게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주고, 도시를 지난날의 독립과 영광으로 회복시켜 줄 것으로 믿었다. 이처럼 카비루스종파는 억압받는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는데 그것은 성서가 말하는 희망과 유사한 것이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카비루스종파의 예배가 카비루스의 순교를 기념하는 피의 제사였다는 점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쓴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의 피에 참여함”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계급의 구별을 없앴다. 카비루스종파에서는 모든 사회계급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둘째, 아우구스투스 치하 때 카비루스종파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황제숭배가 도입되었고, 헬라인들은 카비루스가 카이사르의 몸으로 환생했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를테면, 지배 권력이 억압당하는 자들의 희망을 울안에 가둬버린 격이 되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의 영적생활은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했고, 평민들은 참 종교를 갖지 못한 채 공백상태로 남았다. 그로 인해서 진짜 카비루스를 닮은 자가 도시에 나타난다면 체제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

황제숭배종파는 로마제국을 통틀어 국교가 되었다. 황제숭배는 로마가 가져다준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시작되었으나 주전 44년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시저가

암살된 다음 로마의 밤하늘에 혜성이 나타났는데, 로마인들은 이 현상을 시저의 영혼이 사후세계로 옮겨간 현시라고 믿었다. 주전 42년 제2차 삼두정권(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은 율리우스 시저를 신격화하였고, 신전을 건축하여 그를 기렸다. 혜성이 부조된 율리우스 신전(Temple of Divus Julius)은 시저 숭배의 상징물로써 데나리온에도 장식되었다. 아우구스투스이후로는 황제들의 생전에 그들을 위한 신전들이 건립되었고, 결과적으로 황제숭배는 민중의 충성도를 시험하는 잣대로 돌변하였다. 이 사악한 뜻에 우상숭배를 거부한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걸려들었다.

데오네소스종파



셋째, 3만이 넘는 신들을 믿었던 헬라인들은 참신에 대한 갈망이 컸다. 헬라의 신들은 능력을 행하고 죽지 않는다는 것 빼고는 상당수가 인간들보다 훨씬 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었다. 이로 인해 헬라인들의 상당수가 이 헛된

위의 데나리온의 인물은 카이사르 신의 아들(CAESAR DIVI F) 삼두정권(111VIR)의 옥타비아누스이고, 율리우스의 동상이 서 있는 4주식 건물은 신성 율리우스(DIVO IVL)의 신전이며, 별은 율리우스의 신성을 현시한 혜성이다(주전 36년). 아래의 인물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CAESAR AVGVSTVS)가 된 옥타비아누스이고, 별은 율리우스의 신성(DIVVS IVLIV)을 현시한 혜성이다(주전 18년).

신들과 공허한 철학에 환멸을 느꼈고, 유대교의 윤리도덕적인 유일 신에 큰 반응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헬라인들과 유력한 헬라여성들이 ‘하나님 경외자’의 신분으로 유대교회당에서 하루 세 번씩 갖는 기도회에 참석하였다. 바울이 전한 기독교 복음이 이들 하나님 경외자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켰다.

데살로니가는 고린도에 못지않게 디오니소스종파의 비의(秘儀)적 광기에 빠져 있었다. 디오니소스 예배의 큰 특징은 여성, 곧 여사제(Maenad)들이 주관한다는 점, 숭배자들이 광란상태에서 무아지경에 빠진다는 점, 술 취함과 집단혼음과 광기로 인해서 무질서하다는 점, 날고기를 먹는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술방울과 리본으로 장식한 지팡이를 흔들며 무리지어 행진하였고, 피리소리에 맞춰 소고 치고 고함치며 춤(헤드뱅잉)추면서 무아지경에 빠져들었다. 이 상태에서 그들은 숲속이나 들판으로 나갔고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 동물을 산 채로 찢었으며 그 고기를 뜯어먹고 피를 마셨다. 이 디오니소스 예배 때 여성들과 하류층의 예배자들은 디오니소스가 주는 광기를 통해서 해방감 도취감 황홀감을 맛보았다. 제의 때 참여자들은 술에 만취하여 광란(헤드뱅잉)함으로써 마음속의 응어리를 토해내고 씻어냈는데, 이 디오니소스 제전이 제공한 마음의 치유와 해방감은 본능적 원시적 성적 에너지의 발산과 쾌락에서 온 것이었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Phaidros)에서 이런 육체적 광기가 이데아세계로까지 승화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희망은 바울이 전한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헬라인들에게 성취되었다. 바울이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들은 이교들과는 확실히 다른 거룩한 공동체들이었다.

로마당국이 카비루스신앙을 황제숭배신앙에 흡수시킴으로써 백성들의 심령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영적공백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카비루스나 황제에게 걸었던 희망의 진정한 성취로 어필되었다.

## 2. 데살로니가인들의 영적 상태(2)(سال전 1:2-4)

### 데살로니가 시(市)



바울시대의 데살로니가 주화(주후 41-54년)  
 전면에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세바스투스  
 게르마니쿠스"(TI KLAU SEBASTOS GERM),  
 후면에 데살로니가의 신 세바스투스(THESSALONEIWN  
 THEOS SEBASTOS)라고 새겼다.

데살로니가는  
 주전 315년 마케  
 도니아 왕 카산드  
 로스가 건설하였  
 고, 도시명은 왕  
 후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  
 였던 데살로니가  
 에서 따왔다. 주  
 전 168년에는 로

마제국의 속주가 되었다. 주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되  
 고, 그로 인해서 카이사르의 조카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심복  
 부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마르쿠스 브루투스과 브루투스의 매제이자 주동자였던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의 군대를 추격하여 주전 42년 빌립보 평원에서  
 무찔렀다. 이때 데살로니가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를 지원하  
 였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자치권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데살로니  
 가에는 로마군이 주둔하지 않았고, 시민들은 ‘읍장들’(행 17:8)로  
 번역된 관리들(politach)을 직접 뽑을 수 있었으며, 주화도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자치권은 주전 42년 빌립보전투 직후에 로  
 마시민권을 받았을 안토니우스의 퇴역군인들과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 직후에 아우구스투스의 퇴역군인들이 정착했던 빌립보 보다  
 는 낮은 단계의 특권이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빌립보에 ‘이우스 이  
 탈리쿰’(jus italicum) 곧 ‘이탈리아의 권리’(이탈리아에 적용되는

동등한 권리)라는 특권을 부여하였고, 자신의 딸을 기념하여 ‘아우구스타 율리아의 정착지 빌립보’(Colonia Augusta Julia Philippensis)로 이름을 바꿨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항구도시로써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 알바니아의 아드리아해변에서 비잔티움까지 연결되는 군사도로(Via Egnatia, 860KM, 146-120BC 건설)가 데살로니가를 통과하였다. 바울, 실라, 디모데는 이 도로를 이용하여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당도하였다.

주후 49년에 로마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사실이 있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황제의 칙령은 ‘이탈리아의 권리’를 가진 빌립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그런 연유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유대인들과 그들의 회당을 찾을 수 없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들의 회당에 하나님 경외자들인 헬라인들의 큰 무리들과 귀부인들이 출석하고 있었다. 바울은 출입을 저지당할 때까지 세 차례나 안식일에 회당기도회에 참석하여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였고”(행 17:2-3),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스도이시라고 전파하였는데, 헬라인 하나님 경외자들의 상당수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다.

###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따로 모아 유대인 야손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야손’이란 이름은 ‘치료자’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예슈아’나 ‘예호슈아’의 헬라식 호칭이었다. 그는 바울일행을 맞아들여 후대하였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다(행 17:5-9).

바울 서신은 신약성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들이다. 그리고 바울 서신들은 쓰인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고, 크기의 순서대





바울시대의 데살로니가 주화(주후 54-68년)  
 전면에 조르나우, 달리는 말, 초승달과 별을 새겼고,  
 후면에 화관 중앙에 세 줄로 "데살로니가"라고 새겼다.

로 배열되었다. 로마서가 가장 길고 빌레몬서가 가장 짧기 때문에 로마서가 가장 앞에 나오고 빌레몬서가 가장 나중에 나온다. 신약성서에 실린 바울의 글 가운데 데살로

니가전후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주후 50년대에 기록되었고,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60년대 초반에 기록되었으며, 목회서신으로 불리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가 60년대 후반에 기록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주후 52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 신약성서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글이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운 것은 주후 50년경이었다. 그러나 일행 중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의 박해가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헬라인이었던 디모데만 데살로니가에 남겨놓고 바울과 실라는 베뢰아로 이동하였고, 베뢰아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유대교 회당의 안식일 기도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함으로”(행 17:13) 바울은 실라를 베뢰아에 남겨두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내려가 그곳에서 천막사업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1년 6개월간 정착하였다. 데살로니가서는 바로 이곳 고린도에서 디모데의 선교보고가 있고난 직후에 기록되었다.

디모데가 보고한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있다.

둘째, 교인들 중에 바울의 권위와 진실성을 훼손하려는 자들이



있다.

셋째,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

###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과 내용



바울시대대의 데살로니가 주화(주후 54-68년)  
전면에 "네로 카이사르 세바스투스" (NERON KAISAR SEBASTOS)라 새겼고, 후면에 독수리와 화관을 새겼으며 그 중앙에 "데살로니가" (THESSALONIKAWN)라고 새겼다.

데살로니가서의 기록 목적은 시련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며, 일상생활에 소홀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주의 재림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데살로니가서의 내용을 볼 때, 초기 선교지에서의 바울의 설교주제는 임박한 주의 재림이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교회를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는 바울에게 큰 기쁨과 힘을 주는 것이었다. 재림을 기대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무의 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신자가 있었으며, 재림이 오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염려도 있었지만, 성도들은 바울을 사모하였고, 가르침대로 잘 지키고 있었으며,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높이 평가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극찬하였다. 데살로니가교회가 바울의 영광과 기쁨이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살로니가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이었다(1:3). '믿음의 역사'란 믿음으로 행한 일, 믿음에서

나온 헌신을 말한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으로 행한 일, 봉사를 위해서 흘린 땀을 말한다. ‘소망의 인내’는 극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흘린 땀과 수고와 인내에 감격하였고, 그것을 자신의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였다.

둘째,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일행과 주님을 본받았으며, 예루살렘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도 믿음 위에 굳게 섰던 것처럼, 데살로니가교회가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고서도 예루살렘교회를 본받아 믿음 위에 굳게 섰다(1:6,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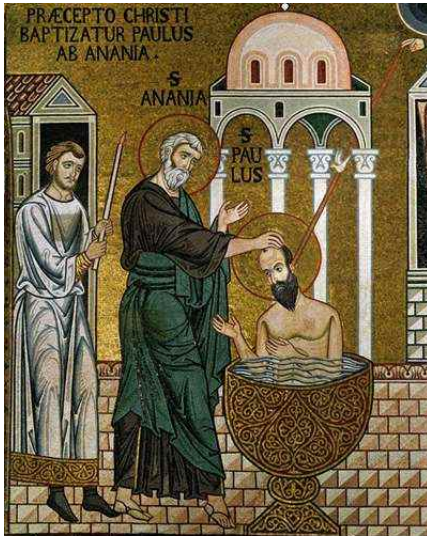
셋째, 바울일행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2:13).

넷째,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은 바울일행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3:7-9, 4:9).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3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며 감격하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의 신실한 믿음생활이 자신이 뿌린 수고의 결실이었으므로 이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삼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지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였다.

### 3. 데살로니가인들의 영적 상태(3)(살전 1:5-7)

#### 예루살렘교회의 구성원과 성직 및 변화



바울이 침례를 받고 있는 모습(모자이크, 주후 1140년)  
 시칠리아 팔레르모(Palermo)의 카펠라  
 팔라티나(cappella Palatina) 교회당의 성화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개종한 것은 주후 34년경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성전 솔로몬행각에서 시작되었지만, 안디옥 사람 니콜라처럼 유대교에 개종했던(행 6:5) 헬라인들 한 두 사람 빼고는 모두 유대인들이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6백여 년째 그리스도의 출현을 희망하고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혹은 예슈아님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희망,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 같은 사실을 알고 믿어야한다는 점에서는 전도에 적극적이었지만, 그 같은 사실을 이방인들도 알고 믿어야한다는 점에서는 소극적이였다. 유대교에서 분리되기 이전까지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는 단지 유대교의 한 분파, 곧 ‘나사렛파’에 불과하였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노쯔림’(Notzrim)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이들은 스스로를 일컬어 ‘메시아닉 쥬’ 혹은 ‘메시아닉 유대교’라고 부른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극우 유대교인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 하지만 ‘메시아닉 쥬’ 혹은 ‘메시아닉 유대교’는 온전한 신약성서기독교는 아

니다. 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계선상에 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반반씩 섞어놓은 혼합종교 형태이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타의든 자의든 외국에 나가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본토에서 사는 유대인들보다 몇 배나 더 많았다. 이들을 ‘디아스포라’(흩어진, 유배된) 유대인들 혹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른다. 바울, 바나바, 마가, 스테반, 빌립, 실라(로마식으로 실루아노) 등이 헬라파에 속한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삼으셨다. 그렇다고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선교에 중요성을 깨달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교팀이 이방지역에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심하게 탄압한 사실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적대감을 갖고 휘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들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바로 바울, 바나바, 마가, 실라 등이고, 교회로서는 안디옥교회를 꼽을 수 있다. 안디옥교회는 대표적인 이방인교회로서 그곳의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 이로써 신약성서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 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로 불리게 되었다.

### 바울의 선교방법과 적대세력

이방인선교를 위해 최초로 선교팀이 꾸려진 곳은 안디옥교회였고, 그때가 바로 주후 40년대 후반이었다. 그때 파송된 선교사들은 바울, 바나바, 마가였다. 이들은 키프로스나 터키 중남부지역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회당기도회에 참석하는 헬라인 하나님 경외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였고, 소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다수의 유력한 헬라인 하나님 경외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다.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곳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웠고, 장로들을 뽑아 안수하여 목회자로 세웠다.

바울과 초기 신약성서기독교의 적대세력은 당대의 철학이나 이



유대인 회당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바울(모자이크)

교문화가 아니라 유대교와 메시아닉 유대교 및 영지주의 기독교였다.

첫째,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탄압한 이들은 유대교인들이었다. 디스아스포라

유대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위세가 크게 꺾이자 회당에 잔류한 노프림들을 몰아내고, 성전제사를 대신해서 하루 세 번 기도시간에 바치던 18개의 기도문(쉐모네 에스레이)에 ‘이단을 공격함’이란 제목의 새로운 기도문을 12번째에 첨가시킴으로써 기독교로부터 유대교를 보호하고 미쉬나와 같은 율타리법들을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기우렸다.

둘째, 메시아닉 쥬 또는 메시아닉 유대교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토라의 권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들은 안디옥교회, 갈라디아교회, 고린도교회 등에 숨어든 바울의 적대자들로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심대하게 훼손하였고, 교회를 바울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위세가 크게 꺾였다. 사도들은 각자의 선교지역을 결정하여 떠났고, 예루살렘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로마전쟁직전에 요단강 동편지역의 펠라나 페트라로 피난하였다.

셋째,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은 헬라철학에 영향을 받은 자들로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죄악에 물든 유한한 현상으로 여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한하고 신령한 본질로 여겼다. 이로 인해서 세상과 육체를 죄악시하였고, 그것들이 영적이고 참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성육신사상을 부정하였다. 그들은 각 지역교회들에 침투한 떠돌이 거짓 교사들 또는 떠돌이 거짓 선지자들로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심대

하게 훼손하였고, 교회를 바울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하였다.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은 주후 3세기경까지 지속되었다.

### 바울의 선교의기와 기원



바울이 트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네이폴리에 첫발을 내딛는 모습

신약 성서에는 이렇듯 적대세력들에 대한 경고와 권면들이 많이 담겨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쓰인 글이기 때문

에 영지주의자들의 침투에 대한 경고나 권면은 나타나있지 않으나 “동족들” 곧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당한 환난의 심각성이 잘 나타나 있다(살전 1:6, 2:14, 3:3-7, 살후 1:4-7).

데살로니가교회의 창립자는 세 사람이다. 바울, 실라, 디모데가 그들이다.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에 동참한 실라와 디모데는 앞서 언급한 디아스포라 유대교와 메시아닉 유대교의 탄압에 관련 있다.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 때 남 갈라디아지방 루스드라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실신할 때까지 돌로 몰매를 맞은 적이 있다. 그곳에 ‘로이스’(Lois)와 그녀의 딸 ‘유니게’(Eunice)라는 유대인여성이 살았는데, 유니게는 헬라인 남편에게서 ‘디모데’라는 아들을 두고 있었다(딤후 1:5). 그들은 모두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고, 바울이 실라와 함께 다시 방문하였을 때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었다. 험난하고 위험

한 길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니게 가족은 연소한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친 직후 안디옥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메시아닉 유대교인들과 안디옥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격하게 논쟁이 벌어졌다. 메시아닉 유대교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가 구원에 필요치 않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그들은 판결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맡기기로 하였고, 안디옥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보냈다(행 15장).

바나바는 본래 예루살렘교회 출신으로서 안디옥에 파송된 전도자였다. 예루살렘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보고에 매우 고무되었다. 논의 끝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손님, 곧 문의 개종자, 하나님 경외자, 노아의 자녀 차원에서 수용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하고 증인으로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교회에 파견하였다.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로마시민권자였던 실라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얻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만한 두 젊은 일군 실라와 디모데를 얻었다.



#### 4. 사랑의 수고(1)(실전 1:1-3)

##### 바울의 인사말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안디옥을 출발하여 고린도에 도착해서 18개월간 정착선교를  
마친 후 에베소와 가이사랴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데살로니가서는 신약성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글이다.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서는 여러 면에서 신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몇 가지 주목해서 봐야할 점들이 있다.

첫째, 이 짧은 인사말 속에 팀원들에 대한 바울의 배려가 녹아있다. 군림과 지배가 아닌 섬김과 동일시(연대의식)를 엿볼 수 있다. 바울은 경험이 풍부한 선교팀장이었지만, 자신을 신입팀원들과 동일시하였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이라고 표현한 인사말에서 그것을 알 수 있고, ‘사도’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생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의 위상을 실라와 디모데보



다 높이지 않았다.

둘째, 본래 ‘아버지’는 군주적이고 지배적인 개념이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짧은 인사말에서 이 사회적 통념을 깨버리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지배자와 복종자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 부자지간의 관계임을 설명해준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가 녹아 있다. 자녀의 배반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배반하고 떠난 자녀를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배반하고 떠난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반가이 맞아 주시는 아버지, 자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인정이 많으신 아버지, 사랑과 애정을 쏟아 부으시는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 까지도 내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표현이다.

셋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특별한 관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으로써만 가능하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한 말씀에 근거한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5-16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abba)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였다.

### 바울의 축복문

넷째,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하였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라 칭하였다. 당대의 그리스-로마세계에서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들의 주인이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주님은 동격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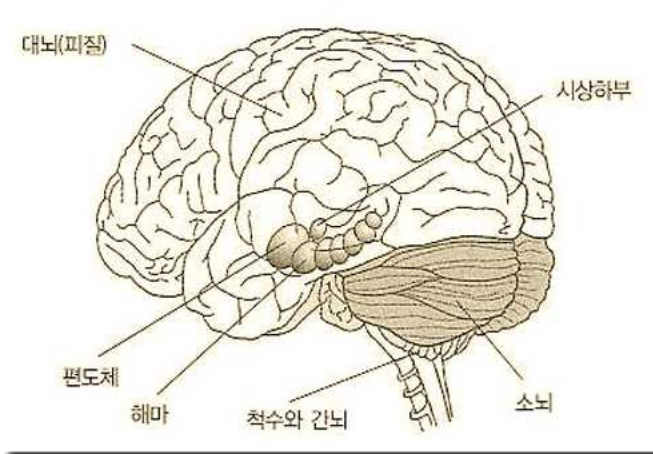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질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교회가 아버지와 주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바울은 수년 후 빈부귀천 민족색깔 남녀노소에 상관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일컬어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로 표현하였다(고전 2:7, 엡 3:9, 골 1:26).

다섯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였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면, 바울은 분명코 그것들을 간구하였을 것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질이나 건강 복을 기원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말해준다. 예수님께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고 하셨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축복문구는 당대의 유대교문헌과 헬레니즘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에 히브리서를 뺀 모든 바울서신과 베드로서신과 계시록에서만 볼 수 있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할 때마다 데살로니가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고 중보기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에 근거한다.

### 좋은 경험과 좋은 기억



기억은 뇌 속에 있는 해마와 대뇌피질이 담당한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뇌 기관이다. 해마는 뇌로 들어온 감각 정

보를 단기간 저장하고 있다가 대뇌피질로 보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거나 삭제한다. 대뇌피질이 기억을 보관하는 장소라면, 해마는 정보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정보를 꺼내주는 기능을 한다.

대뇌피질에는 약 100억에서 1000억 개의 신경세포(neuron)가 있고, 각각의 뇌신경세포마다 또 다른 세포들을 연결해 주는 수천에서 수만 개의 시냅스(synapse)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시냅스는 세포와 세포사이에 있는 틈(간격)을 말한다. 각각의 신경세포는 전기화학신호를 통해서 신경전달물질을 주고받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세포는 시냅스에서 신경전달물질이란 열쇠를 정보를 수용하는 신경세포의 구멍에 결합시켜 신경세포막의 문을 열고 정보를 전달한다. 이 시냅스에 축적된 정보가 바로 기억이다. 그리고 뇌가 뇌 신경세포와 연결된 시냅스들을 더 만들거나 삭제하는 능력을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이라고 부른다. 뇌는 찰흙처럼 성형성과 적

응성을 갖고 있어서 경험과 활동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는 뇌가 기억하는 정보를 늘릴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으며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뇌가소성 때문에 인간은 기억력을 증대시킬 수가 있고, 불행한 감정을 행복한 감정으로 바꿀 수가 있으며,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고칠 수도 있다.

바울의 일생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였다.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지만,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범사에 감사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기도 때문이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좋은 기억들을 회상하였다. 나쁜 경험이 많았던 만큼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많았다. 한없이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들, 사랑하는 일군들과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들을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회상했다. 반복적으로 불러나온 좋은 기억들은 다시 저장되기 때문에 뇌가 좋은 경험들에 길들여진다. 뇌는 무슨 경험이든 그 경험을 기억했다가 전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면 과거의 기억을 불러내 과거와 동일한 반응을 함으로써 습관을 만든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감사하고 찬양하면, 뇌는 그것을 습관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때마다 뇌내(腦內) 모르핀의 하나인 베타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하다.

### 5. 사랑의 수고(2)(살전 1:3)

#### 믿음의 역사



베리아의 사도바울 기념비

3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서 역사, 수고, 인내는 믿음농사, 사랑농사, 소망농사를 말한다. 농사를 지

으면 수확물이 있듯이, 믿음농사에도 수확물이 있다. 따라서 “믿음의 역사”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1절)는 말이고, 믿음농사를 잘 지었다는 칭찬이다.

믿음의 내용에는 신뢰, 지식, 행위, 은사가 포함된다.

첫째, 신뢰는 말 그대로,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찰싹 달라붙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지식은 머리로 동의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교리를 말한다.

셋째, 행위는 실천적 믿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증거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회개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회개한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농사를 포함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이 이를 두고 한 말씀이다. 믿음과 회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행위이고, 신앙고백과 침례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행위이다. 신앙고백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이고, 침례는 회개한 자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물로 씻음으로써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이다.

넷째,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써 선포된 복음을 보강하고 입증시키는 능력을 수반하는 증거적인 믿음을 말한다.

이것들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는 수확물이 따라오는 믿음농사, 소득이 따라붙는 믿음실천,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생활을 말한다. 농사를 지으면 수확물이 있듯이 진실로 믿고 실천하면 열매를 거둔다.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인들은 믿음농사를 잘 짓고 있었다. 우상을 버렸고(9절),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며(6절),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다(7절). 그로 인한 소득이 많았다. 빛 질서 생명의 열매,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수확이 많았다.

###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사랑농사, 사랑이 촉발시킨 수고를 말한다. 서양에서는 “labor of love”가 출산을 말할 때 자주 쓰인다. 사랑농사의 결과가 자녀출산이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성육신, 곧 ‘자기 제한’과 ‘동일시’로 나타났듯이, 바울은 사랑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목적으로 삼으며,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와 권한까지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기술했다.

도덕적으로 볼 때 사랑의 수고는 의무적이어야 하는가, 자발적이어야 하는가? 18세기 말에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마음의



테살로니가의 고대 광장(Agora)과 음악당(Odeon)

끌림(감동)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고마워서 하는 행동보다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기술

하였다. 칸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목적과 그 목적을 실행에 옮기는 사랑의 수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그 의무를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자율에 의한 자유로운 행동으로 보았다. 감동이나 끌림에 의한 행동, 곧 계산적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실천하는 행동은 타율에 의한 것이고 결과에 지배를 받는 것이지만, 반대로 싫고 좋고를 떠나서, 마음에 내키든지 내키지 않든지,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떠나서, 그 행동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자율에 의한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이용수단으로 삼거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비도덕적이라고 하였다. 칸트는 동기나 목적이 순수하지 못한 자유지상주의와 결과중심주의를 철저히 반대하였다. 동기가 순수하면 자율적인 것이고, 동기가 불순하면 타율적인 것이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래적 신앙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익의 도구로 삼거나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질에 따라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테살로니가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자유와 권한까지도 제한하는 사랑농사를 잘 짓고 있었던 것이다.

###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 교회

“소망의 인내”는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믿고, 여러 가지 환난들을 견디는 것을 말한다. 참으로 바라면 인내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불가사의한 소망의 인내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멸망이후 지금까지 2,600년 넘게 희망(Ha-Tikvah)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내이다. 그리고 그 희망의 핵심은 제2모세를 기다리는 재림신앙이다. 유대인들의 소망의 인내는 바울 당시 이미 6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던 것이어서 데살로니아인들이 카비루스를 기다렸던 소망의 인내를 월등히 능가하는 것이었다.

현실에 좌절한 민중은 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는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민족도 다르지 않다. 데살로니아인들이 카비루스를, 유대인들이 제2모세를 희망해왔다면, 우리 선조들은 미륵을 희망해왔다. 그러나 도솔천주로 있다가 재림한다는 미륵신앙은 기독교의 재림신앙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았다가 재림하신다는 사상은 기독교신앙이 인류최초이다. 더욱이 낙원과 지옥이 모두 지하 깊은 곳에 있다고 믿었던 그리스-로마세계에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나라, 하늘 가나안땅, 하늘낙원과 같은 기독교



신앙은 당대의 헬라인들은 물론이고 유대들에게조차 생소한 것이었다. 바울의 복음전파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기대는 카비루스에서 예수님에게로, 제2모세에서 예수님에게로, 미륵에서 예수님에게로 바뀌었고, 데살로니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 그분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린 인내농사는 칭찬받을만한 것이었다.

“소망의 인내”가 절실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아 구원을 약속 받고 성령님의 보증과 인침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소망 중에 살지만, 주의 재림 때까지 여러 가지 환난들을 겪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서의 메시지를 잘 담아낸 것이 판소리 춘향전이다. 춘향이는 이도령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한양으로 떠난 이후 변사또로부터 큰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춘향이는 이도령의 약속을 믿고 환난을 견딘다. 변사또의 회유와 고문과 투옥에도 불구하고 이도령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리고는 마침내 소망을 성취한다. 천한 기생신분의 여성이 암행어사로 출세한 남성과 혼인을 한다. 성서는 우리에게 춘향이가 보였던 인내를 요구한다. 인내농사에는 반드시 수확이 따르기 때문이다.

### 6. 사랑의 수고(3)(살전 1:4-10)

#### 복음과 그리스도인



아디아 가도에 위치한 성 세바스찬 카타콤의 아티메투스(Atimetus)의 비명. 이 비명에 2세기경의 기독교의 상징인 닻과 물고기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10절은 복음의 전달과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말이다.

다.

복음은

첫째, 말로써 전달된다(5절).

둘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된다(5절).

셋째, 전도자들의 행실로써 전달된다(5절).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다(4절).

둘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4절).

셋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6절).

넷째,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자들이다(6절).

다섯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자들이다(7절).

여섯째, “주의 말씀을” 각처에 퍼뜨린 자들이다(8절).

일곱째, 믿음으로 인해서 각처에 정평이 난 자들이다(8절).

여덟째, 이런저런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던 신실한 자들이다(8절).

아홉째, 우상을 버린 자들이다(9절).

열째,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다(9절).

열한 번째,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9절).

열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다(10절).

열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10절).

열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로써 기다리는 자들이다(9-10절).

이들 열네 개의 덕목은 모두 현재완료진행형이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히 13:8)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과거나 현재나 한결같았음을 보여준다. 주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성취되고 인내의 열매를 먹는 시점이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하늘 성전 지성소의 법궤 곧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다다르게 해준다(히 6:19).

### 복음의 능력

복음은 말과 글과 그리스도인들의 행실로써 전파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후 30년 5월 28일 예루살렘성전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출범되었다. 또 신약성서 27권은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그 내용이 보존되게 하려고 쓰였다.

그리고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진실성이 입증되고 확증되었다.



3세기의 그리스도인 묘지석

상단의 'DM'(Diis Manibus)은 '신령들을 위해'란 뜻이다. 그 밑에 헬라어 'Ikhthus zonton'(생명의 물고기)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낱말이다. 그 밑에 물고기들 사이에 희망의 상징인 십자가를 새겼다.

그리고 라틴어로 'LICINIAE AMIATI BE NEMERENTI VIXIT' 곧 'Licinia Amias는 보살핌을 받은 삶을 살았다'라고 새겼다.

다”고 증언하였다. 신약성서는 기적을 말할 때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한다(행 2:22, 고후 12:12, 살후 2:9, 히 2:4, 롬 15:18). 큰 권능(power)은 기적이 일어난 근원을 말하고, 기사(wonders)는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 예를 들면, 놀라거나 기이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표적(signs)은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을 말한다. 기적은 전도자들이 말과 행위로서 전파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고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기적이 복음을 입증하고 확증할 때를 일컬어 표적이라고 부른다. 결과적으로 선포된 복음과 기록된 성서는 모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또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8-19절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복음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기적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오랜 자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인간의 고통과 질고를 친히 짊어지실 만큼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다. 그 오랜 주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의지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살길을 찾았다. 주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치고 고침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4세기경의 석판(바티칸 박물관)  
 화환 속에 '크리스투스'의 첫 두 글자 키와 로 및 알파와 오메가를 새겼다.

우리는 테살로니가전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느껴볼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우상을 버

리고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성심껏 섬기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의 아들,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받는 하나님가족의 식구들이고 하나님나라의 시민들이다.

셋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구별된 자들이다.

넷째,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 주의 말씀을 각처에 전파하는 자들이고, 이런저런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신실한 자들이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인내로써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들의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닻”과 같아서 안전하고 견고하여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다다르게 해준다.

이 같은 내용들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넘친다. 남들보다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모범적으로 꾸려나간다.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세상 권세가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한다. 세상문화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기독교문화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농사꾼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농사꾼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농사꾼들이다. 농사일에는 공부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돌보며, 소망 중에 열매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가뭄과 태풍과 병해와 같은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 이기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다.



## 7. 사랑의 수고(4)(살전 2:1-12)

### 바울의 믿음농사



데살로니가의 고대 광장(Agora)에 소재했던 상가지역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다. 게다가 그들은 유대교인들로부터 희망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희망이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 같은 상황은 모든 지역에서 다 마찬가지였다. 유대인들이 지중해연안세계에 흩어져 산지가 6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있었고, 바울과 그가 전하는 신약성서복음에 심하게 대적하였다. 이 때문에 바울은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솔선수범해야 신자들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같은 노력 덕분에 바울은 자신감과 권위를 가질 수가 있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일이 “헛되지”(1절) 않았다고 한 것은 자신의 선교가 성공적이었고 믿음농사에 수확이 있었다는 표현이다. 바울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매사에 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다. 게다가 그들은 유대교인들로부터 희망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희망이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 같은 상황은 모든 지역에서

선수범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다.

첫째,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고”(2절, 행 16-17장),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장애물이 앞길을 막아섰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였고, 많은 싸움에서 이겼다.

둘째, 이로 인해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분으로부터 위탁받은 신약교회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답게 진솔하게 섬기려고 하였다. 따라서 바울은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로 하지 않았고(3절),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였다(4절).

셋째, 바울은 각종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여기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5절).

넷째, 바울은 사람들을 이용하려하거나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6절). 바울은 하나님 뒤편의 영광을 결코 가로채려고 하지 않았다.

### 바울의 사랑농사: 모성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일이 “헛되지”(1절) 않았다고 한 것은 자신의 선교가 성공적이었고 사랑농사에 수확이 있었다는 표현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펼친 선교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매사에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이다. 유모처럼 교회를 돌보았고, 맑고 순수했으며,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바울은 권위 있는 그리스도님의 사도이지만, 바깥서 말하자면, 남의 자녀를 맡아 기르는 유모와 같지만, 사도로서의 자유와 권한을 내려놓고 자기 자녀를 기르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성도들을 돌보았다(7절). 유모는 남의 자녀를 돌보는 동안 주인





로마황제 갈레리우스(Galerius)가 테살로니가에 세운 개선문 페르시아의 사산왕조와 싸워 승리하고 수도 크테시폰(ctesiphon)을 점령한 298년에 건축이 시작되어 303년에 봉헌되었다.

이나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아침의 말로  
그들을 기쁘게  
하거나 좋은  
점수를 받아  
일자리를 뺏기  
지 않으려하거  
나 자기 유익  
을 꾀하려는  
때가 가끔 있  
을 수 있지만,

어머니라면 남들에게 잘 보여 칭찬을 받으려하거나 아침의 말로 그들을 기쁘게 하려하거나 자기 이익과 변명을 꾀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성애가 큰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듯이 테살로니가 성도들을 애뜻하게 생각하였고 생명의 양식은 물론이고 목숨도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사랑하였다(8절).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친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9절).

진실로 바울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의 결례가 깨끗하였고, 믿음의 버팀목이 튼튼하였으며, 사랑의 밀불이 강렬하였다.

레오 톨스토이는 <대자>라는 글에서, 불에 타다 꺼져 죽은 숯검정이 같은 살인강도일지라도, 강도의 더러움을 닦아낼 깨끗한 결례가 있다면, 곧 순수하고 맑은 깨끗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강도의 더러움을 닦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톨스토이는, 그 살인강도의 고집불통을 꺾을 만한 튼튼한 버팀목이 있다면, 곧 의식주와 생사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만큼 강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강도의 고집불통을 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그 살인강도의 죄와 허물을 불태워버릴 강한 밀불이 있다면, 곧 물에 흠뻑 젖은 통나무라도 불태워버릴 강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강도의 죄와 허물도 불태워버릴 수 있다고 하였다. 톨스토이의 글에서 대자는 30년을 공들인 끝에 불에 타다 꺼져 죽은 숯검정이 같은 살인강도를 회개시켜 자신의 자리를 잇게 하였는데, 대자가 30년간 지은 믿음농사, 사랑농사, 소망농사를 통해서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

바울의 사랑농사: 부성애



데살로니가의 비잔틴 성벽 양면 대항살이 일어난 390년경에 축소되었다. 대항살을 명령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회개하였고,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였다. 아버지는 식구들을 엄하게 지도할 권세와 성적 지배권을 갖고 있었다. 만일 아들이 폭동을 일으켰거나 딸이 음행을 했다면 처형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아버지는 노예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을 부양할 책무가 있었고, 해방노예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했다. 그리스 로마인들의 아버지의 근본은 제우스였는데, 제우스는 부도덕한 호색한이요 독재자였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녀들은 노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식구들의 제사장이요 랍비였으며 하나님의 계명(토라)을 실천하는 신앙인이었다. 유대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식탁은 제단이며, 아버지는 제사장이요, 교사이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다. 유대인들은 친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렀

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바울도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를 “아들”(딤후 1:18), “신실한 아들”(고전 4:17), “사랑하는 아들”(딤후 1:2), “참 아들”(딤후 1:2, 딤후 1:4), “나의 아들”(몬 1:10)로 불렀다. 베드로도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벧전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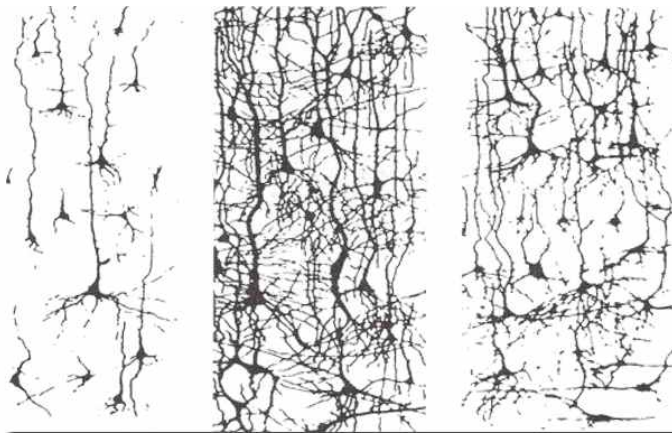
유대인들의 아버지의 근본은 야훼이신데, 하나님은 좋으신(토브) 아버지, 인자(헤세드)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이다. 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아버지’ 개념이다.

바울은 7-9절에서 데살로니가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모성애에 비유한 후에 10-12절에서는 부성애에 비유하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교인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양육할 때는 자애롭고 유순한 어머니처럼 대하였지만, 그들을 신앙으로 바로잡을 때는 의롭고 거룩한 아버지처럼 대하였다.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하나님조차 인정하실 만큼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동하였다”(10절).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롬 8:30)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으로써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였다”(11-12절). 결과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라는 밭에서 지은 믿음농사, 사랑농사, 소망농사는 풍작으로 보상되었고, 교인들도 믿음농사, 사랑농사, 소망농사로 화답하였다.

### 8. 사랑의 수고(5)(살전 2:13)

뇌는 길들여진다.



출생시(정보 반입)    6세 때(정보 과잉)    14세 때(기억 정보)

나이에 따른 뇌신경세포와 시냅스의 밀도 변화

(출전: Rethinking the Brain, Rima Shore)

뇌는 길들여지고 채워진다. 태어났을 때의 뇌 상태가 별이 드문드문 보이는 밤하늘과 같다면, 여섯

살쯤의 뇌 상태는 은하수가 촘촘히 보이는 밤하늘과 같다. 14살쯤 되면 불필요한 정보들이 걸러진 모습을 보인다.

뇌는 경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감촉으로 얻는 정보에 의해서,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공포,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감정에 의해서, 공부나 활동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채워진다. 습관이 좋으면 좋게 길들여지고, 습관이 나쁘면 나쁘게 길들여진다.

기억은 뇌 속에 있는 해마와 대뇌피질이 담당한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뇌기관이다. 해마는 뇌로 들어온 감각 정보를 단기간 저장하고 있다가 대뇌피질로 보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거나 삭제한다. 대뇌피질이 기억을 보관하는 하드디스크

라면, 해마는 정보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정보를 꺼내주는 RAM메모리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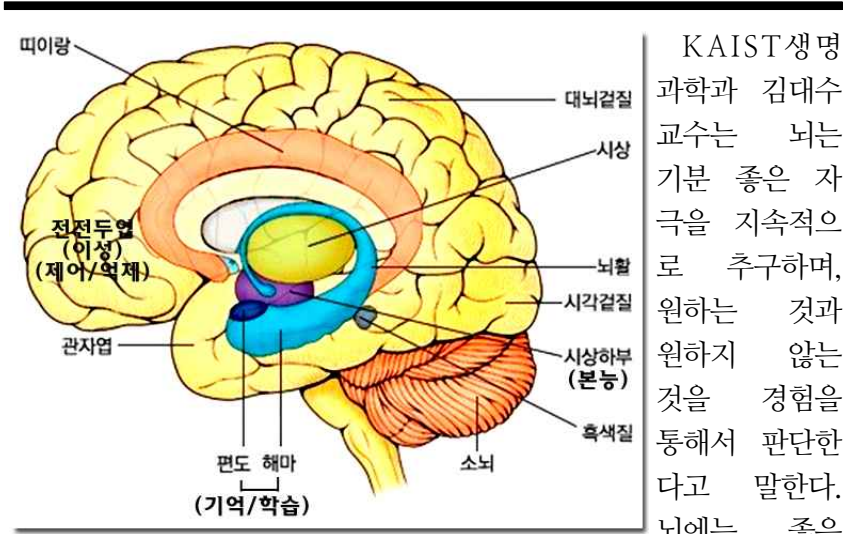
대뇌피질에는 약 100억에서 1000억 개의 신경세포(neuron)가 있고, 각각의 뇌신경세포마다 또 다른 세포들을 연결해 주는 수천에서 수만 개의 시냅스(synapse)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1000조 개 가량 된다. 빠와 빠를 잇는 연골처럼 시냅스는 한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와 신호를 주고받는 미세한 틈이자 연결부위인데 이 틈에서 수많은 전기화학적 신호가 오가며 우리 몸의 반응과 활동을 조절한다.

각각의 신경세포는 전기화학신호를 통해서 신경전달물질을 주고받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세포는 0.001 밀리미터 미만(0.5~1  $\mu\text{m}$ )의 이 미세한 틈에서 신경전달물질이라는 열쇠를 정보를 수용하는 신경세포의 구멍에 결합시켜 신경세포막의 문을 열고 정보를 전달한다. 이 틈 곧 시냅스에 축적된 정보가 바로 기억이다.

뇌가 뇌신경세포와 연결된 시냅스들을 더 만들거나 삭제하는 능력을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이라고 부른다. 뇌는 찰흙처럼 성형성과 적응성을 갖고 있어서 경험과 활동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는 뇌가 기억하는 정보를 늘릴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으며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뇌가소성 때문에 모든 연령층에서 인간은 기억력을 증대시킬 수가 있고, 불행한 감정을 행복한 감정으로 바꿀 수가 있으며,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고칠 수도 있다.

### 뇌는 자기를 길들이는 주인을 지배한다.

세계청소년기억력대회에서 4차례나 우승한바가 있고, 텔레비전 쇼에서 890개 숫자와 105명의 얼굴과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 낸 독일인 여성 크리스티아네 슈탱거(Christiane Stenger)는 <뇌 길들이기>란 책에서 뇌가 가진 약점들을 열거하면서, 뇌는 이기적이고, 게으르며, 습관적이어서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며, 쉽게 믿고, 화합하며, 호기심이 많지만 금방 산만해진다고 하였다.



KAIST생명과학과 김대수 교수는 뇌는 기분 좋은 자극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판단한다고 말한다. 뇌에는 좋은

감정을 기억하게 하는 보상회로가 있어서 만일 케이크를 먹고 기분이 좋았으면 뇌는 그 상황을 기억해뒀다가 케이크에 반응하게 되고, 먹게 되고, 기분이 좋게 되고, 기분 좋은 기억이 강화되면, 뇌는 케이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 나쁜 기억도 마찬가지로 만일 사과를 먹고 체했다면, 뇌는 그것을 기억해뒀다가 사과를 보지만 해도 거부감을 갖게 만든다. 뇌는 이처럼 보상회로와 혐오회로를 통해서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시냅스에 저장하므로 뇌를 좋은 습관으로 길들이지 않으면, 뇌가 기억하는 나쁜 습관에 지배를 받게 된다.

사람을 지배하는 뇌에는 이성의 뇌로써 사고(思考)를 주관하는 전전두엽과 본능의 뇌로써 생존을 주관하는 시상하부가 있다. 전전두엽은 이마 쪽 가장자리 부분에 있는 대뇌피질을 말하며, 판단력, 추리력, 분별력, 상상력, 분석력 등이 도출되는 이성이 지배하는 부위이다. 시상하부는 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뇌세포집단을 말하며, 자율신경계의 중추기관이면서 본능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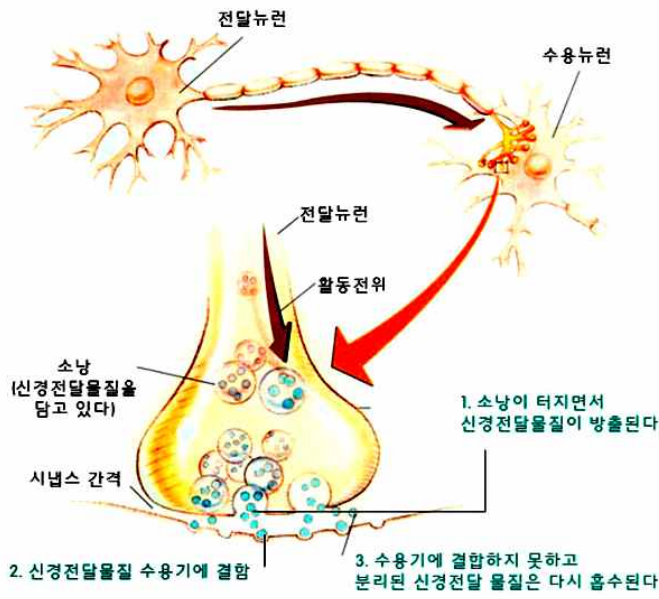
시상하부는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감정과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이런 감정과 행동은 생존과 직결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식욕, 성욕, 자기방어기제가 다 시상하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동물은



시상하부가 발달된 반면에 전전두엽이 발달되지 못해서 본능제어에 한계가 있지만, 만일 사람이 충동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평소에 전전두엽 훈련을 게을리 한 탓이다.

생존과 직결되는 감정자극들은 시상에서 시상하부와 본능적 공포를 기억하는 편도체를 경유하여 전전두엽에 보내진다. 시상하부와 편도체는 이런 자극들을 즉각 처리할 수 있지만, 늘 이성의 뇌인 전전두엽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본능의 뇌인 시상하부는 길들여지지 않지만, 이성의 뇌인 전전두엽은 길들어진다. 전전두엽의 교육을 게을리 하면, 시상하부와 편도체의 노예로 살게 된다.

뇌 길들이기: 좋은 경험과 좋은 기억



자기 암시, 예를 들면, “할 수 있다”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적으로 암기 하면 뇌는 “할 수 있다”에 반응한다.

뇌가 단맛에 길들여 지듯이 감사와 기쁨과 같은 행복한 감정에 길들

뇌의 신경세포(뉴런)와 세포사이를 연결하는 틈(시냅스) 신경세포들은 전기화학신호를 통해서 신경전달물질이란 것을 주고 받는데, 전달신경세포는 이 세포사이를 연결하는 틈을 통해서 신경전달물질이란 열쇠를 수용신경세포의 구멍에 결합시켜 신경세포막의 문을 열고 정보를 전달한다. 이 틈(시냅스)에 축적된 정보가 기억이다.

여지고, 공포와 불안과 같은 불행한 감정에도 길들여진다.

감사는 뇌를 길들인다. 환난 중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는 환난을 당할 때 감사하도록 반응을 한다.

믿음은 뇌를 길들인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언제나 그 상황을 컨트롤하신다는 믿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 4:13)는 믿음은 뇌를 길들인다.

바울의 인생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다.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고후 11:23-28),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범사에 감사했다(살전 5:16-18).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한곳에서만 “항상 기뻐하라”(5:16)를 포함해서 10번 기쁨을 강조하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5:17)를 포함해서 3번 기도를 언급하였으며, “항상...감사”(1:2), “끊임없이 감사”(2:13), “능히 어떠한 감사”(3:9), “범사에 감사”(5:18)를 강조하며 4번 감사란 말을 썼다.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기도 때문이었다. 바울은 기도할 때 좋은 기억들을 회상하였다. 박해경험이 많았던 만큼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컸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할 때마다 회상하였다. 반복적으로 불러나온 좋은 기억들은 강화되기 때문에 뇌가 은혜로운 경험들에 길들여진다. 뇌는 무슨 경험이든 그 경험을 기억했다가 같은 경험이 반복되면 과거의 기억을 불러내 과거와 동일한 반응을 함으로써 습관을 만든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감사하고 찬양하면, 뇌는 그것을 습관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때마다 뇌내(腦內) 모르핀의 하나인 베타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하다.



## 9. 사랑의 수고(6)(살전 2:10-13)

### 가치관과 관점



천칭저울을 손에 든 여인  
요하네스 베르메르(Johannes Vermeer, 1632-1675)

가치관이란 값을 매기는 관점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값을 매기는 관점이란 것이 일정치 않아서 마치 색안경과 같다.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색깔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관점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기준이 달라서 그

렇다. 어떤 사람에게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하면, 다른 사람에게에는 아예 기준이 없기도 하다. 기준이 있으면 객관성이 높아지고, 기준이 없으면 주관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그 기준이란 것이 종류가 다양해서 과연 무엇이 믿고 따를만한 것인가를 알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 아무튼

사람들은 제각기 나름의 기준에 따라 관점을 갖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가치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기준을 하나로 통일시킬 방법은 없을까? 통일된 기준, 통일된 관점, 통일된 가치관을 갖는 것이 가능한가?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토라(율법)를 문자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민족적 통일성과 연대감을 갖는다. 유대인의 경우에서처럼 경전은 절대적인 규범을 제공한다. 경전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판단의 엄격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은 종교인끼리는 상당한 통일성을 갖는다. 그러나 경전들 사이에도 질적 차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선, 공동체의 행복, 사람들의 미덕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신약성서가 모든 경전들의 백미(白眉)임을 확신한다.

경전은 규범을 제공함으로써 경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절대주의가 되지만, 진화론과 무신론에 기초한 공리주의, 실용주의, 자유지상주의 등은 사실상 규범이 없으므로 유용성(principle of utility)이나 실용성과 같은 결과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 심리학자 교수이자 실험심리학자, 뇌신경과학자, 철학자인 조슈아 그린(Joshua D. Greene)은 지난 2013년에 출간한 <도덕적 부족들>(Moral Tribes: Emotion, Reason, and the Gap Between Us and Them)이란 저서에서 현대를 "신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도덕적인 진리를 연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용적인 공리주의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세속적 가치들

세상이 아무리 선진화되고,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게 된다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 가치 또는 기독교적 가치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분별하지 못하면 세속적 가치에 휘말리게 된다. 민주사회일수록 정부는 충돌하는 가치에 대해 중립원칙을 지키게 되고, 상반된 의견을 가진 진보보수 좌파우파 사이에는 가치를 놓고 치열하게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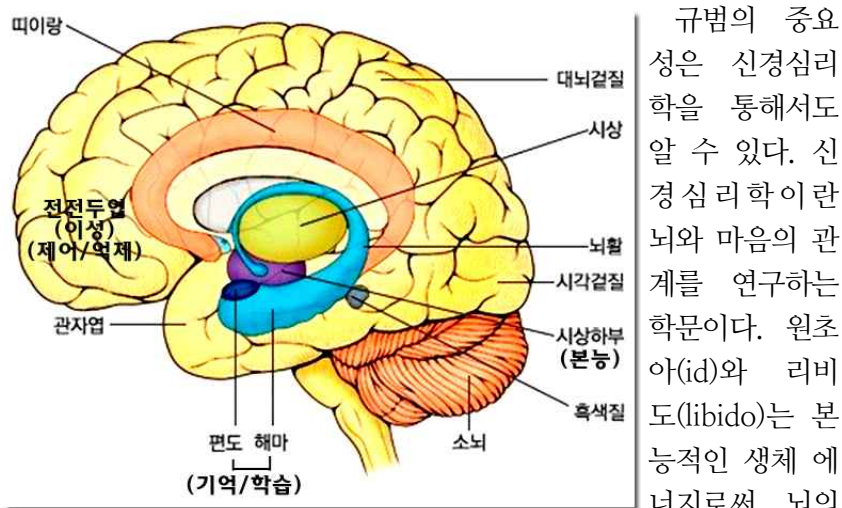
정의(Justitia)의 여신

쟁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세속인본주의자들은 생명을 인간이 만든 창조물로 여기면서 인간의 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삶을 살거나 죽음을 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진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낙태나 자살이 개인의 선택사항 즉 개인의 권리라고 강조한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은 의무감을 갖고 그 생명을 기키는 청지기라고 믿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창조주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 몸의 결정권조차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 나의 삶, 나의 노동, 나의 가족, 나의 소유,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며,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믿

는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 즉 성경적 가치에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또 인간은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신성한 선물이므로 낙태, 자살, 안락사 등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세속인문주의자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생활 보호권, 자율권, 자기결정권 등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런 요구 속에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혼과 같은 성소수자(GLBT)의 권리도 포함된다.

현대사회에서 도덕적 가치나 윤리의식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의술 등 모든 분야가 도덕적 가치의 기반에서 출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제반 분야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하게 하고 있다. 이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해야 할 것은 도덕적 가치 기준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기준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치수를 속인 잣대나 용량을 속인 뒷박과 같아서 한번 기준치수가 잘못되면 언제나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로 옳음과 그름, 정의와 불의를 말하고, 윤리(도덕)와 비윤리(비도덕)를 말한다할지라도 바른 기준(규범)을 갖지 못하면 기만하고 기만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성경적 가치기준 또는 기독교적 가치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그리스도인의 가치기준



규범의 중요성은 신경심리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신경심리학이란 뇌와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원초아(id)와 리비도(libido)는 본능적인 생체 에너지로써 뇌의

시상하부가 관장한다. 이 영역은 도덕, 선악, 논리적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DNA에 담긴 생존본능의 영역으로써 생존에는 절대적이지만, 정신에서는 최하위의 영역이다. 시상하부는 입천장의 위쪽

에 위치한 아몬드 크기의 조직으로써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제하고, 생존과 관련된 식욕, 성욕, 자기방어기제의 본능적 행동들을 유발시킨다. 그러나 만일 인간에게 본능만 있고 그것을 통제할 이성이 없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일 수 없고, 동물에 불과하게 된다. 여기서 이성 곧 생각과 마음에 관련된 영역은 후천적인 경험과 학습으로 형성되는 자아(ego)와 초자아(superego)이다.

자아는 대신(對神) 대인관계에 관여하는 ‘나’(self)를 말한다. ‘나’를 만드는 생각(마음)과 감정은 기억으로 인해서 형성된다. 이 기억은 뇌의 해마, 편도 및 대뇌피질에서 관장한다. 해마는 단기 기억에, 대뇌피질은 장기 기억에, 편도는 본능적 공포기억에 관장한다. 자아의 원천은 생각이고 생각의 원천은 기억이다. 생각과 기억이 자아를 만든다. 그리고 자아는 의식을 지배한다.

그러나 ‘나’를 도덕적이고 이성적으로 만드는 일은 초자아가 맡아한다. 초자아에 해당되는 뇌는 전전두엽이다. 전전두엽은 이마 가장자리 부분에 있는 대뇌피질을 말하며, 판단력, 추리력, 분별력, 상상력, 분석력 등이 도출되는 이성이 지배하는 부위이다. 그리고 이들 초자아와 전전두엽은 양심과 이성에 관여하며, 관습, 전통, 규범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 초자아가 원초아와 자아를 통제한다면, 이성의 뇌인 전전두엽은 본능의 뇌인 시상하부를 통제한다. 동물은 시상하부가 발달된 반면에 전전두엽이 발달되지 못해서 본능 제어에 한계가 있지만, 만일 사람이 충동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전전두엽이 학습을 받지 못해서이다.

시상하부는 길들여지지 않지만, 전전두엽은 길들어진다. 전전두엽이 학습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학습을 받게 되면, 시상하부의 노예로 살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가치기준으로써 성서와 절대규범의 가치는 숙고되어야 한다. 유용성이나 실용성과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무신론과 진화론에 기초한 공리주의, 실용주의, 자유지상주의로는 인간의 본능적인 권력(權力)에의 의지를 제어할 수 없고, 불의, 불평등, 갈등 같은 악행을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정의, 평등, 사랑 같은 선행에 있어서 절대규범이 되기에 완벽한 하나님

의 말씀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으로써 깊이 깨닫고 있다.

10. 사랑의 수고(7)(살전 2:13-2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더하기(+) 기호나 적십자(+) 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위쪽 간판의 숫자 사이의 '1'은 더하기 기호로서 '원 플러스 원(+1)'이라고 쓴 것이며, 아래의 붉은 다윗의 별(☆)은 앰بول런스 차량 등에 쓰이는 긴급구호 표식으로써 국제적십자 위원회가 사용하는 적십자(+) 표식에 해당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 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 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에서 세 가지 물음을 물을 수 있다. 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왜 설교

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가?

첫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였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풀어 전하는 설교에도 성령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이다. 바울

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수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갈 1:12) 알게 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엡 3:3, 롬 16:25)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그 뜻은 오래전에 이미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설교가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로 설교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설교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아무 때에도 야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2:5). 바울은 설교할 때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로 하지 않았고(2:3),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였다(2:4).

셋째, 설교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로 설교가 믿음농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설교가 사랑농사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설교가 소망농사이기 때문이다. 농사일에 보상이 따르듯이 믿음농사 사랑농사 소망농사에도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 성도의 보을 받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16절은 설교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역사한 결과에 관한 말씀이다.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준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신앙을 본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박해자들의 탄압을 잘 참아냈다는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신앙을 본받는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잇대어 진 것이지 돌연변이가 아니다. 심지어 신약성서교회조차도 구약성서교회에 잇대어진 것이다. 빛과 생명의 일을 하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차로들은 대부분이 로터리라고 한다. 사진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건설된 로터리로서 중앙의 탑은 미국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했을 때 희생된 Hagay Shefi를 추모하기 위한 탑이다.

는 하나님에 잇대어, 하나님의 존재방식에 잇대어, 영원에 잇대어, 언약에 잇대어, 이스라엘에 잇대어, 출애굽사건에 잇대어, 가나안땅 정복에 잇대어, 성전에 잇대어, 예언자들의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에 잇대어져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잇대어,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 살림의 일을 하시는 성령님에 잇대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잇대어, 예수님의 기도습관에 잇대어, 사도들의 가르침에 잇대어, 사도들의 기도습관에 잇대어, 사도들의 예배전통에 잇대어, 성도들의 신앙에 잇대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성경말씀에 잇대어져 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탄압을 잘 견뎌왔고, 끝내는 이기고 승리하였다. 바울은 14-16절에서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바울은 1장 6절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데살로니가인들을 칭찬하였다. 또 2장 14-1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데살로니가인들을 칭찬하였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나지금이나 동족으로부터 유대민족과

유대교의 배신자요 변절자란 취급과 함께 온갖 훼방과 박해를 견뎌야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전에 행하였던 이방문화와 거짓 신들을 섬기던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이다.

전도의 열매는 전도자의 영광과 기쁨

- BC – before Christ
- BCE – before the common era
- AD – Latin meaning “Anno Domini”
- Translated “In the year of the Lord”
- CE – Common Era

이스라엘에서는 주전(BC)이나 주후(AD)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기원전(BCE)이나 서기(CE)만을 사용한다.

K B S  
와 SBS  
에서 방  
송 작 가  
로 활동  
하였 던  
김 종 철  
감독 이  
2010년

에 개봉한 다큐 영화 <회복>과 동년에 발행한 책 <이스라엘에는 예수가 없다>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의 극우 정통파 유대교인들은 예수(예슈아)님을 메시아(모쉬아크)로 믿는 세대주의적 유대인 그리스도인(Messianic Jews)의 가정에 폭발물이 장치된 초콜릿 선물을 배달하여 끔찍한 부상을 입게 하고, 예배당에 불을 지르고, 예배당 벽에 험한 말로 페인트 낙서를 남기고, 집회소에 몰려가 고성방가로 예배를 방해하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든다. 가장 점잔은 훼방방법이 집회소 출입구에 의자를 갖다 놓고 두 세 사람이 진을 치고 앉거나 서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한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기독교박해가 일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당국은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알레르기 반응을 심하게 보인다. 모슬렘국

가들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긴급구호의 표시로써 앰블런스 차량 등에 적십자 마크를 사용한다. 이스라엘에서는 긴급구호 차량들에 적십자 표시 대신에 적색 다윗의 별을 사용한다. 적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또 덧셈에 사용하는 더하기(+)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를 사용한다. 또 이스라엘의 도로에는 십자교차로를 보기 힘들다고 한다. 대부분의 교차로가 로터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주전(BC: before Christ)이나 주후(AD: Anno Domini)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기원전(BCE: before the common era)나 서기(CE: common era)를 사용한다. 이처럼 심하게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십자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신앙을 본받아 천성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걸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한 말씀처럼, 믿음이 전파되고 그 믿음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걸려 그 지역과 사회와 민족의 문화로 안착되기까지는 동족의 극심한 반발과 적대적 핍박은 믿음이 치러야할 대가였다. 바울은 이 시련을 끝까지 잘 견딘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2:19-20)고 하였다.

## 11. 믿음의 역사(1)(살전 3:1-4)

### 바울의 마케도니아 선교 상황



방화로 소실된 갈릴리 호숫가의 외경이거기럼 교회당  
2015년 6월 17일 발생된 이 화재는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이며, 그들은 출입문 쪽에  
"가짜 신들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낙서를 남겼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못하여 우리만 아텐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테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씀은 본 서신이 데살로니가교회가 창립된 지 2-3개월 이내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준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

교회당을 출입하던 다수의 헬라인 하나님 경외자들과 귀부인들, 심지어 소수의 유대인들까지 바울에게 빼앗기자 분노한 유대인들이 시장(아고라, 광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바울일행을 잡으려고 집회소였던 야손(제이슨=‘예슈아’ 혹은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의 집에 쳐들어갔으나 잡지 못하자 소동을 일으켰다. 이때 야손과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시관리들 앞에 끌려갔는데, 끌려간 이들은 모

두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바울일행을 다시는 집안에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날 밤에 바울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80킬로미터 떨어진 베뢰아로 무사히 피난하였다.

바울일행은 베뢰아에서도 전도하여 소수의 유대인들, 다수의 헬라인 하나님 경외자들, 귀부인들 및 남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개종시켰다. 이 소문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와 바울을 잡으려고 또 소란을 피웠다. 다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아테네로 피난하였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할 때까지 기다렸다. 바울이 떠난 후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와 베뢰아에서 전개된 상황들을 취합하여 바울에게 가져왔다. 그 소식은 기쁨과 우려를 동반한 것이었다. 바울은 한달음에 달려 마케도니아로 돌아가 교회들이 정착하는 것을 돕고 싶었지만,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대신에 바울은 본 서신과 함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 바울은 실라도 마케도니아로 되돌려 보냈는데 장소는 아마 베뢰아였을 것이다(행 18:5). 빌립보는 드로아에 거주한 누가가 순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행 20:6). 바울이 이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파송한 목적은 성도를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여,”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2-3절).

#### 데살로니가교회에 실재했던 박해 상황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교회에 박해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 이 박해는 누가 누구에게 행한 것인가?

데살로니가교회의 창립멤버들은 다수의 헬라인 하나님의 경외자들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당대에 로마당국은 전 로마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성전세를 받고



율법으로 제재할 수도 있도록 예루살렘당국에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 특권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믿고 있다. 왕관과 사자는 메시아의 상징이다. 화살표는 조상 아브라함과 헤브리인들이 밟고 밟았던 땅의 크기로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야속의 땅이라고 믿고 있다. 문에 타종교에 개종한 유대인들을 이단자로 처형할 수가 있었다.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직전까지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웃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달려간 것은 바로 이런 권한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교인들이 교회건물의 벽에 페인트 낙서를 해놓거나 집회시간에 예배실로 난입하거나 밖에 운집하여 크게 소란을 피워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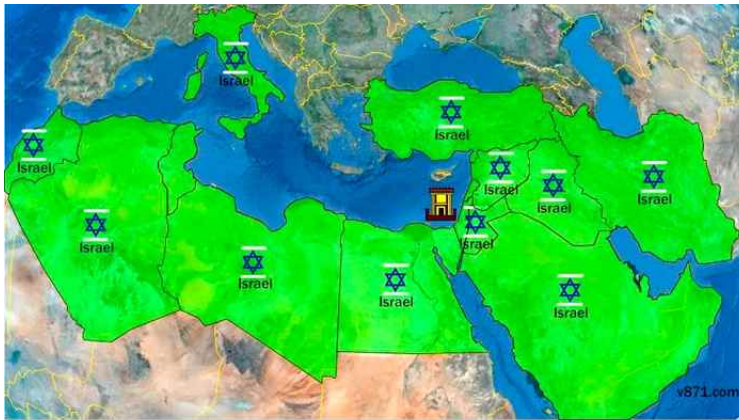
하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헬라인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의 땅에 얹혀사는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신약성서에 유대인들이 유대인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한 사례는 많지만, 헬라인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한 사례는 없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는, 비록 그들이 로마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분노에 찬 유대인들이 날을 세우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되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헬라인이었던 디모데에게는 문제될 것이 하등에 없었다. 바울이 몇 번이고 가기를 원했던 데살로니가에 친히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여기



에 있다.

그렇다고 헬라인들이 가족종교를 버리고 기독교에 개종한 식구들을 탄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늘날까지도 지중해연안의 나라들에서는 가족종교를 버리고 타 종교에 개종한 식구들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재림에 관한 신앙은 헬라인들에게도 있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에는 거부감이 없었을 것이다.

###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이유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만큼의 나라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의 메시아관(觀) 때문이다.

첫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죄를 사하는 구세주도 아니고, 죄가 없으신 삼위일체의 신(神)도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는 신성(神性)도 아니다. 하나님을 유대민족의 유일신으로 믿기 때문에 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람의 몸에서 난 자가 신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성육신사상을 믿지 못한다.

둘째, 유대인들에게 가나안땅은 한 맺힌 희망(Ha-Tikvah)이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날까지 4천년 역사 가운데 땅을 소유했던 기간은 1천년이 채 안 된다. 소유했던 때보다 빼앗겼던

때의 기간이 3배나 더 길다. 4천년 민족사 가운데 3천년이 떠돌이와 노예의 세월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은 문자적으로 안식과 자유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 빼앗긴 가나안땅을 되찾아 줄 제2모세 또는 제2다윗과 같은 정치군사적 영웅으로서 따름과 실천의 대상이지, 예배와 섬김과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또 땅은 유대인들에게 지상 가나안땅이지 하늘 가나안땅이 아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안식과 참 자유가 있는 땅은 하늘 가나안땅이지 지상 가나안땅이 아니다.

셋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오실 그이’이다. ‘오실 그이’는 유대인들의 희망(Ha-Tikvah)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유대인들에게 ‘오실 그이’는 아직 한 번도 오시지 않은 모쉬아크(Moshiach)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2천 년 전에 한번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다. ‘오실 그이’가 회복시킬 안식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 민족만을 위한 나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나라이다.

넷째, 기독교의 수난자 메시아사상,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사상은 대다수 유대교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몹시 싫은 것이고, 지혜를 구하던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생각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며,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믿어지는 무한한 가치라고 하였다.



12. 믿음의 역사(2)(살전 3:5-13)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사랑



가족제단(lararium)에 모시던 작은 동 신상들(주후 1-3세기)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주피터(주후 140-170), 미네르바, 머큐리,  
 비너스 그리고 신상 받침대

기쁨으로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바울은 6절에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인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간의 마음 조렸던 염려를 내려 놓고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은

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라고 하면서 감격해 하면서 그들로부터 받은 위로를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였다.

디모데가 전해준 기쁜 소식은 데살로니가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이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구원의 믿음, 하나님의 일꾼들을 신뢰하고 신의를 지키는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일꾼들이 전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리의 믿음을 말한다. 이 믿음은 하나님관계에서의 믿음, 인간관계에서의 믿음, 신앙관계에서의 믿음을 아우른다. 이 믿음의 특성은 한번 약속한 것을 환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과 신념과 신의를 굽히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는 절개(節概)에 있다.

사랑은 하나님관계에서의 사랑, 인간관계에서의 사랑, 신앙관계에서의 사랑을 아우른다. 이 사랑의 특성은 한번 약속한 것을 환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지키는 책임감과 자유와 권리까지 제한하는 헌신(獻身)에 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를 굳건히 세우고 있었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이런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사랑은 그들이 바울일행과 함께 있을 동안에도 분명히 나타났었고, 바울일행이 떠나온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었다.

####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결실한 시너지

디모데가 전해준 두 번째 기쁜 소식은 바울일행을 향한 데살로니가인들의 사랑이 변함없었다는 것이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6절)라는 구절은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일행을 잊지 않을 뿐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닥친 시련을 생각한다면, 정반대의 결과였어야 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당하고 있던 현실은 바울일행이 찾아와 자신들에게 고통만 안겨줬다고 원망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 점을 심히 염려



주전 16년에 주조된 은화 데나리온.  
 전면에 비너스 흉상과 주조자 C. ANTISTIVS VETVS의 이름을 새겼고,  
 뒷면에 제구들(시계 방향으로 사제의 지팡이, 제구고루, 삼각다리의자,  
 국자)과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원로의원 11회(IMP CAESAR  
 AVGVS, COS XI)라고 새겼다.

하고 있었다.  
 원망은 그간의  
 고생을 헛되게  
 만들 수 있었  
 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모데  
 가 가져온 소  
 식은 바울의  
 염려를 말끔히  
 해소시키는 기  
 썩 소식이었  
 다.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사랑은 몇 가지 시너지효과를 가져왔다.

첫째, 그들의 신실하고 끈은 절개의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기쁨”을 주었다(6,9절).

둘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사랑”을 확인시켜주었다(6절).

셋째, 온갖 궁핍과 환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위로”를 선물하였다(7절).

넷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헛수고로 인한 좌절감을 말끔히 해소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용기와 투지를 불태우게 하였다(8절).

다섯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더욱 충성할 마음을 갖게 하였다(9절).

여섯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데살로니가인들과 재회하여 그들의 믿음을 충전시켜줄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야로 심히 간구”할 마음을 갖게 하였다(10,11절).

일곱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축원할 마음을 갖게 하였다.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이 없게” 해달라고 축복을 빌었다(12,13절).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사랑은 판소리 춘향전의 여주인공 성춘향이 한양으로 떠난 이몽령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절개에 비견되는 훌륭한 것이었다.

###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절개(節概)



로마의 카타콤에서 발견된 금박 잔반침(4세기, 이스라엘 박물관 소장) 유다족을 상징하는 사자들 사이에 토라를 보관한 법궤가 있고, 좌측 메노라 사이에 암포라와 소파르(별나팔), 중앙에 클라브(종려나무가지), 아라바(시네버들가지), 하다쓰(화석류) 묶음, 우측 메노라 사이에 에트로그(레온류)와 암포라를 배치하였으며, 상단에 라틴어 축배문구, 'PIE ZESIS ELARES' (Drink, Live, Elares! 마시자, 살자, 엘라레스!)를 새겼다. 이 잔반침은 죽은 엘라레스(Elares)가 사용했던 유물이었을 것이고, 새겨진 상징물들은 모두 수곳(초막절)과 십삭 토라(티쉬리월 15-23일) 축제에 관련된 것들이다.

단을 받았던 것과 같고, 출애굽 후 가나안땅을 정복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던 것과 같다. 그것은 또 예수님께서 지상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부터 하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성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연단 기간으로 보았고, 조성된 긴장을 환난으로 보았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그것을 손에 넣기까지 후손들이 떠돌이와 노예로서 짧게는 430년간 길게는 645년간 고난의 시기를 보내며 연

고난주간에 십자가수난을 당하신 것과 같다. 이처럼 성도들은 ‘육체구원을 약속받았다’는 뜻을 지닌 영혼구원을 받고나서 육체구원이 성취되는 재림 때까지, 소위 교회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기간에 환난으로 연단을 받는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이 연단을 잘 견뎌내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바울일행에게 기쁨과 위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였다.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절개는 성춘향의 것에 비견된다.

첫째, 춘향은 이몽룡의 재림약속을 믿기는 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둘째, 춘향은 몽룡의 재림이 지연되고 소식조차 끊긴 상태에서 변 사또로부터 고초를 겪고 있었다. 춘향은 몽룡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지 않았다.

셋째, 춘향은 몽룡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 여겼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줄망정 몽룡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절개를 지켰다.

바울이 칭찬한 데살로니가인들의 “소망의 인내”가 어쩌면 성춘향이 불확실성 속에서조차 믿음과 사랑의 절개를 굳세게 지킨 것을 말한 것일는지 모른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이 장차 얻을 결과는 성춘향이 참고 견뎌 후에 암행어사로 나타난 이몽룡과 백년해로한 것보다 수천수만 배 더 클 것이다.

### 13. 믿음의 역사(3)(살전 4:1-12)

#### 하나님을 기쁘시게



폼페이에서 발굴된 '신비의 저택' 프레스코(1세기) 신약성서시대의 귀부인들과 하인들의 복식을 볼 수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데살로니가인들은 이를 실천하고 있었다.

다. 이에 바울은 1절에서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대신관계이든, 대인관계이든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만큼 큰 손해가 없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큰 이득이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3-8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3절).

둘째,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혹은 자기의 아내나 여성들을 음란과 색욕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다(4,5절).

셋째, 분수를 넘어섬으로써 형제를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6절).

넷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6-8절).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자기의 몸, 아내, 남편, 형제나 자매에게 함부로 행하거나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함부로 행하거나 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8절).

유대인들에게 거룩함의 의미는 부정(不淨)한 것을 멀리하고 정(淨)한 것을 가까이 하여 정한 것만 먹고 정한 것만 사용하고 율법과 규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생활도 정한 방법(kosher sex)으로 해야 한다. 유대인들에게 성생활은 부끄럽거나 악하거나 불결한 것이 아니며, 필요한 악도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욕구분출이 적절한 시간과 장소와 방법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적절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이 충족된 부부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 물론 이것은 부부에게 한정되며, 부부생활에는 만족감과 행복감뿐 아니라, 헌신과 책임감과 연대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제한’과 ‘동일시’로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을 가장 신령한 것이고, 타인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는 것이며, 자신의 자유와 권한까지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기술한바 있다. 이는 거룩한 부부행위란 사랑함이고, 사랑함은 착취나 강요나 폭력이 아닌 헌신과 책임감과 연대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 하나님을 본받아

로마시대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녀들은 노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식구들을 엄하게 지도할 권세와 성적 지배권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의 아버지의 근본은 제우스였는데, 제우스는 부도덕한 호색한이요 독재자였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아버지의 근본은 야훼이신데, 하나님은 좋으신(토브) 아버지, 인자(해





롬페이에서 발굴된 '신비의 저택' 프락세스코(1세기) 신약성서시대의 귀부인의 복식을 볼 수 있다.

세드)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빠 하나님' 개념이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존귀하게 사랑할 자로 대하는 것이 믿음농사, 사랑농사, 소망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다.

온갖 신들을 믿었던 큰 무리의 헬라인들과 다수의 귀부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보였다가 재차 그리스도의 교회에 개종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첫째, 헌신적인 공동체의식 때문이었다. 일체감이 강한 그리스도인공동체에 가입하게 되면 의식주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남녀노소빈부귀천민족색깔의 차별을 두지 않았던 평등사상,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동등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때문이었다.

둘째,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3만이 넘는 신들을 믿었던 헬라인들은 참신에 대한 갈망이 컸다. 헬라의 신들은 능력을 행하고 죽지 않는다는 것 빼고는 상당수가 인간들보다 훨씬 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었다. 이로 인해서 헬라인들의 상당수가 이 헛된 신들과 공허한 철학에 환멸을 느꼈고, 유대교의 윤리도덕적인 유일신에 큰 반응을 보였다. 큰 무리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조차 '하나님



경외자'의 신분으로 유대교회당에서 하루 세 번씩 갖는 기도회에 참석하였다. 게다가 바울이 전한 기독교 복음은 디오니소스 제전이 제공한 본능적 원시적 성적 에너지의 발산과 쾌락이 채워주지 못했던, 카비루스신앙과 황제숭배신앙이 채워주지 못했던, 심지어 유대교조차 채워주지 못했던 헬라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켰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폼페이에서 발굴된 '신비의 저택' 프레스코(1세기) 신약성서시대의 귀부인의 복식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헌신적인 공동체였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형제애가 강했고, 남녀노소빈부귀천민족색갈의 차별을 두지 않았던 박애와 평등사상이 강했다. 데살로니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9-10절에서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였고, 그들의 형제애가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온 마케도니아에까지 미쳤으니 더욱 분발하

라고 권면할 정도였다.

11-12절은 형제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권면이다.

첫째, 조용히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조용히”는 본래 휴식(헤쉬카제인, hesychazein)을 뜻하는 말로써 입을 쉬게 하라, 수다를 떨지 마라, 행동으로 보이라는 뜻이다.

둘째, 자기 일에 힘쓰라는 것이다. 자기 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다.

셋째,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이다. 바울은 친히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모범을 보였다.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넷째, 타인에게 단정히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단정히”는 ‘보기 좋은,’ ‘존경할 만한’(유스케모노스, euschemonos)이란 뜻으로써 남에게 덕을 끼치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곧 조용히 하고, 자기 일에 힘쓰며,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자신의 궁핍을 물리치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방인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함이고, 셋째는 남에게 덕을 끼치려함이다. 이로써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데살로니가에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개종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행 17:4)이 있었던 것이나 베뢰아에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개종한 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던”(행 17:12) 이유가 여기에 있다

14. 소망의 인쇄(1)(실전 4:13-18)

그리스도의 초림(初臨)



13절에서 “자는 자들”이란 말은 죽은 자들을 뜻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자들이란 뜻이 함축된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과 소망이 담긴 표 현이다.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은 자들이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만듦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은 자들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지 않도록 돕는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슬픔은 오열과 통곡을 뜻한다. 그리스도인들도 슬퍼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회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별을 아쉬워할망정, 오열하거나 통곡하지 않는다.

15절에서 “강림”이란 말은 도래, 임재, 도착, 왕림, 귀환, 개선 등을 뜻하는 헬라어 ‘파루시아’(parousia)를 번역한 말이다. 신약성서에 24번 쓰인 말인데 데살로니가전후서에서만 7번 쓰였다. 이 말은 본래 총독, 왕, 황제 등이 군대와 함께 도착하거나 개선하는

장엄한 의식에 쓰였다. 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행사에는 환영인파와 환영파티가 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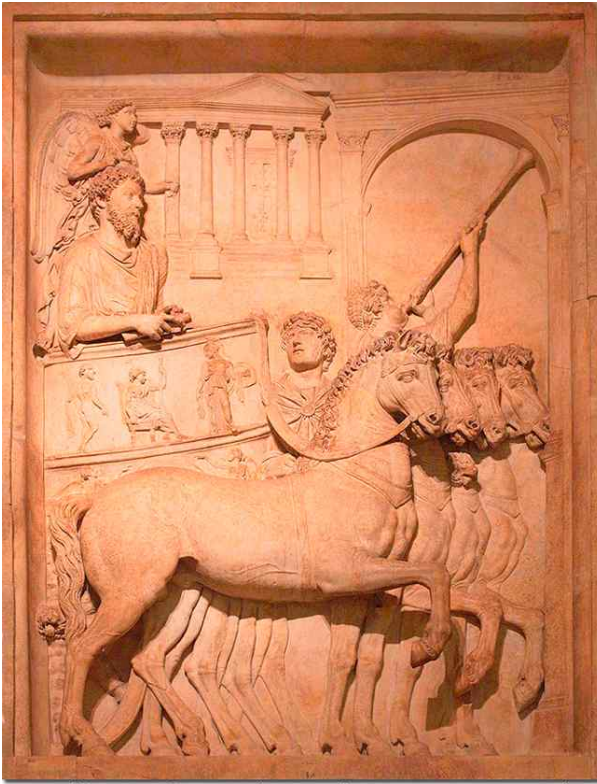
초림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종려주일사건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다. 종려주일사건의 예표는 홍해사건이다.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후 해변에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추며 목청껏 외친 함성이 종려주일사건의 모형이다. 홍해를 건넌 직후 시작된 40년 광야순례는 예루살렘 입성 직후 시작된 고난주간의 예표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홍해도하를 침례 받음으로, 광야생활을 신앙생활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주의 만찬으로, 구름기둥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예표로 설명하였다.

지상의 종려주일사건은 낙원의 사건으로 이어진다. 계시록 15장 2-3절을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나온다.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홍해를 연상시킨다.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구원의 해변에 서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 장면이다.

### 그리스도의 재림(再臨)

16-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이다.

나팔은 그 재질이 무엇이든지간에 신호나 의식용으로 또는 악기로 사용되었다. 본문에서의 호령과 소리와 나팔소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님의 개선을 알리는 신호이거나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배반을 일삼는 유다왕국을 징벌하기 위해 재림하여 군대에 총공격을 하달하는 호령과 그 명령을 전달받은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 공격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재림 주 그리스도님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주후 121-180년)의 개선문 북조  
 거른만 민족을 물리치고 개선하는 황제의 머리 위로 수호천사  
 게니우스(Genius)가 복조되었고, 네 필의 말이 끄는 전차 좌측에  
 개선을 알리는 로마군대의 나팔수(나팔)이 복조되었다. 시다.

을 뒤따르는 천군  
 천사는 하늘나라  
 의 군대요, 죽은  
 성도는 부활하여,  
 살아남은 성도는  
 영광의 몸으로 다  
 함께 지상으로 내  
 려오시는 그리스  
 도님을 공중으로  
 마중 나가는 환영  
 인파에 해당된다.  
 또 재림 주 그리  
 스도님은 적그리  
 스도로 지칭한 황  
 제들과 그들의 거  
 짓선지자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악  
 한 무리를 심판하

실 만왕의 왕이  
 요, 만주의 주이  
 시다.

재림사건의 예표는 지상 가나안땅 정복이다. 초림사건은 히브리  
 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재림사건은 히브리인들이 요단강을 건  
 넌 후 가나안땅을 차지한 사건에 예표를 두고 있다. 또 초림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구원에, 재림사건은 육체구원에 관련되어있다.  
 영혼구원에는 지상과 천상으로 나뉜다. 지상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물가에서의 기  
 쁨이고, 천상에서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 후 낙원의 해변(계  
 15:1-4, 붉은 유리바닷가)에서 맛보는 구원의 기쁨이다. 육체구원  
 은 그리스도님의 재림 때 육체부활이나 변형으로써 이뤄진다.

초림사건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잠들었거나 죽었던 자들이 예수



님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이다. 침례는 홍해, 요단강, 붉은 유리바다에서 모형을 취한다. 재림사건은 육체가 잠들었거나 죽었던 성도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15절) 살아남은 성도보다 먼저 부활하고(16절), 살아남은 성도도 영광의 몸의 형체로(빌 3:21)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17절)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판소리 흥양전**



17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님께서 “하늘로 올려 지셨고,” 제자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행 1:11) 하늘에서 오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마중을 나가 그리스도님을 모시고 돌아온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말한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개선행진을 펼치는 장면 환영하는 인파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마중을 나와 있다. 파루시아(임재, 도착)가 의미하는 바를 잘 묘사한 그림이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며” 환난을 견디라고 권면한다.

그리스도님이 임재(파루시아)하여 머무시는 땅(여호와삼마)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그리스도님이 임재(파루시아)하여 우리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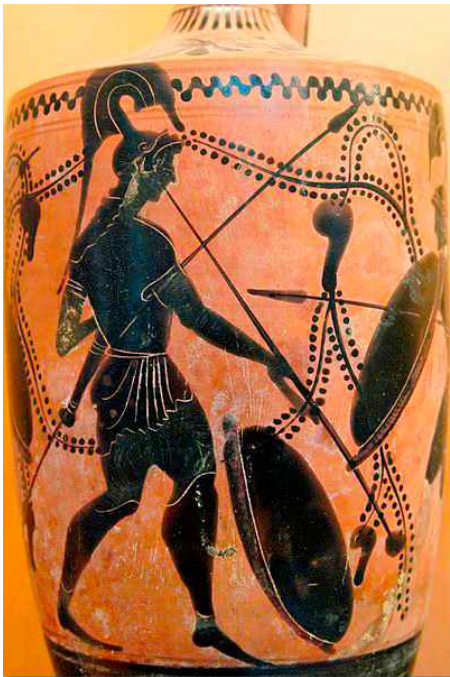
하시느(임마누엘) 시대가 새천년시대이다.

초림사건은 판소리 춘향전에서 성춘향과 이몽룡이 백년가약을 맺는 것에 비교될 수 있다. 그리고 재림사건은 몽룡이 더디 오는 기간에 춘향이 큰 환난을 겪지만, 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나 악행을 저지른 변사또 일행을 심판한 이야기에 비교될 수 있다. 본문 16-17절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마치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며 관청으로 진격하듯이, 그리스도의 출도를 외치며 지상으로 진격하시는 모습이다. 계시록 19장 7절의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마치 이몽룡이 정절을 지키다가 옥에 갇힌 춘향을 구출하여 결혼한 것처럼, 어린양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끝까지 정절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을 구출하여 혼인하기 위해서 지상세계로 출도할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계시록 19장 8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는 춘향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이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 내야 할 신앙의 정절을 표현한 것이다.

만일에 춘향이가 돈을 좇고, 권력을 좇고, 명예를 좇고, 일신의 안일을 좇고, 허영을 좇고, 거짓과 술수와 무법이 판치는 진흙탕 속에 제 몸을 던졌다면, 소식이 끊겼다는 핑계로 이몽룡을 배신했다면, 퇴기의 딸 춘향이가 과거에 급제한 멋진 젊은이의 부인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지금은 지고 있고, 밀리고 있고, 얻어맞고 있고, 발버둥치고 있을지라도, 마음의 눈을 열어 장차 전개될 역전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다.

## 15. 소망의 인쇄(2)(사할전 5:1-11)

### 재림의 때와 시기



나팔(salpinx)을 불고 있는 로마 군인  
(수전 6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의 암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의 “때와 시기”에서 ‘때’(크로노스)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말하고, ‘시기’(카이로스)는 재림이 실제로 있을 일시를 말한다. 따라서 ‘때’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지?”에 해당되고, ‘시기’는 “언제 오시지?”에 해당된다.

2절에서 “주의 날”은 본래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심판의 날로써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곧 최후심판의 날을 말한다.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랜 희망이 성취되는 구원의 날이고,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오랜 악행을 심판받는 날이다. 따라서

종말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되거나 성취되는 지복의 날이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대충 알 수 있다는 인식을 사도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밤이 깊고, 방비가 허술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에 도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 물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도둑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야한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는 말씀은, 만일 여성이 임신을 했다면, 반드시 출산할 날이 닥칠 것이고, 그 즈음에 산통이 시작될 것이므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산달이 다되어가는데도 ‘별일 없을 거야, 안전할거야’라며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해외 여행길에 나섰다가 또는 무심코 지내다가 갑자기 난감한 일을 겪는 임산부들이 종종 있다. 비록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대비해야할 일들이 많다는 것쯤은 대부분 알고 있다. 질병, 사망, 화재, 홍수, 폭설, 지진, 전쟁, 도둑, 강도, 교통사고 등의 재해는, 비록 발생될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을 거야, 안전할거야’라며 거짓 평화와 거짓 안전에 빠져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들 문제들이 실제로 들이닥칠 때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주의 재림을 맞게 될 것이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 낮과 빛의 자녀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추고 있음을 뜻한다. 방비상태를 낮이나 빛에 비유하였고, 무방비상태를 밤에 비유하였다. 도둑으로 비유된 사건사고가 무방비상태인 한밤중에 발생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는가? 반면에 방비상태가 철저하다면,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는 한밤중이 아니라 깨어서 활동하는 대낮과 같아서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트라키아인의 호신경과 투구(주전 4세기)  
(카잔루크 박물관, 불가리아 Kazanlak)

성서에서 현세와 내세는 ‘이 세대’와 ‘다가올 세대’(올람 하바)로 구별된다. 현세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깊은 밤과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대’와 ‘다가올 세대’ 사이에 ‘낀 세대’로서 ‘다가올 세대’가 성취되기까지 환난을 겪는다.

성서는 이들 낀 세대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이미’ 이 세대를 벗어났으나 ‘아직’ 다가올 세대에 도달하지 못한 채, 마치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땅에 도달하지 못한 채 40년간 광야 길을 순례하였듯이, 다가올 세대를 향해서 순례하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컬

어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어둠의 권세의 족쇄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다가올 세대를 맞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히브리서 6장 4-5절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맞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맞보았다”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

포하게 하려 하심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5-6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한다”고 권면하였다.

소망의 인쇄



바울은, 마치 밤에 잠을 자듯이, 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어둠의 세계에 갇힌 족쇄에 묶인 죄수들에서 보듯이,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을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7절)이라고 하였고, 족쇄를 풀고 다가올 세대 곧 빛의 세계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5절)라고 하면서 7-8

절에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권면하였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자세를 가나안땅 정복에 나선 군인들의 완전무장에 비유하였다. 8절에서 “믿음과 사랑”은 사

량으로써 역사하는 믿음(갈 5:6)을 의미하고, “호심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엡 6:11-18)를 대표한다. “구원의 소망”은 가나안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이 말씀은 또 이사야 59장 17-18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를 둔다. 그리고 이들 말씀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기대를 건 오랜 희망의 성취와 승리를 의미한다.

일부 데살로니가인들은 주의 재림이 자신들의 살아생전에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생업을 태만히 하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언제 오시지?”라며 조급해 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를 염려하기도 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먼저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공중으로 주님을 마중 나갈 것이라고 위로하였다. 비록 그 때와 기한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그 날이 머지않다는 것만큼은 다 알 수 있으니,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그 날을 대비하라고 권면하였다. 게다가 주의 재림은 성도들의 오랜 구원의 희망을 성취시키는 거사이다. 그러므로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면서 살리는 일, 세우는 일, 빛의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하였다(11절).

### 16. 소망의 인내(3)(실전 5:12-13)

####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1)



데살로니가의 수호성인 데메트리오스  
(주후 303년 순교, 데살로니가 데메트리오스 성당)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13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였다. 첫째,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권하는 자들을 인정하라. 둘째,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라. 셋째,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 가운데 “존경하라”와 “화목하게 지내라”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수고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권하는 자들은 긴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수고하는 자들’은 책임을 맡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말한다.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 수고하지만, 특별히 책임을 맡아 수고하는 오늘날의 집사, 장로, 목사 또는 사제를 염두에 둔 말씀이다. 그러나 주후 52년경에 교회에 집사(봉사자)라는 직책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반면에 장로(presbyter, elder)는 주후 30년 교회창립과 동시에 채용된 직책이다. 사제는 4세기이후 장로(presbyter)란 말 대신에 가톨릭교회, 정교회, 성공회 등에서 쓰이고 있고, 목사(pastor)는 종교개혁시대이후 사제(priest)란 말 대신에 개신교들에서 쓰이고

있다. 이처럼 사제와 목사는 장로란 말에서 유래되었다.

주후 30년에 출범한 예루살렘교회는 유대인 성도들로 구성되었고, 열두 사도뿐 아니라, 바울, 바나바, 스테반, 빌립 등도 모두 유대인들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장로는 이미 모세시대에 정착된 직책일 뿐 아니라, 바벨론유배이후 회당기도회가 정착되면서부터는 회당중심의 유대인 공동체를 책임진 회당장들이자 유대교법의 재판관들이었다. 장로는 유대교 공동체를 목양하고 감독하는 자들이었다. 이들 장로들 가운데 설교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렇다고 장로들이 모두 설교자들이었던 것은 아니다. 유대교회당 기도회에서 읽혀진 성경봉독은 주단위로 책정된 일정분량을 안식일, 월요일, 목요일 아침기도회 때 주3회 읽는 것이었다. 모세오경은 매년 한 차례씩 완독하고, 그 밖의 책들도 매년 일정분량씩 읽어나가는 방식이었다. 말씀에 대한 해설과 권면은 지명을 받은 자나 자원자가 선포하였다. 이 유대교전통이 기독교전통으로 그대로 잇대어졌다.

####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2)

주후 40-50년대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이었고(행 11:30), 장로 야고보가 그들의 수장이었다. 40년대 후반에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 지도자로 세웠고(행 14:23), 50년경에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의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며(딤후 4:14), 58년경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석별의 정을 나눴다(행 20:17). 이때 바울은 그들을 감독자와 목양자로 호칭하였다(행 20:28).

1세기말까지 두 부류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겼다. 한 부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및 교사들이었다. 그들은 베드로와 바울처럼 떠돌이 지도자들로서 교회의 기초를 놓고 세운 자들이었다. 그들이 가르친 복음과 실천이 교회의 기초였고, 1세기말까지 떠돌이 지도자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내용은 신약성서에 기록되어 남겨졌다. 따라서 2세기부터는 신약성서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데메트리오스(303년 순교)가 7세기 데살로니가 교회 총주교 요한과 지방장관 레온티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650년, 성 데메트리오스 성당)

및 교사들을 대신하여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다른 부류는 장로들로서 지역 교회를 섬긴 불박이 지도자들이었다. 바울이 12절에서 언급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들은 치리장로나 감독장로들을 말하고, 권하는 자들은 설교장로들을 말한다. 설교장로들은 치리장로나 감독장로들보다 권위가 더 높았다. 본래 장로와 감독은 동일 직책이었고, 둘 사이에 계급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1세기 말 또는 2세기 초부터 장로와 감독이 계급화 되기

시작했는데, 설교장로를 치리장로보다 더 높은 개념의 감독(주교)으로 호칭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더 후대에는 감독(주교)이 교구장을 의미하게 되었다.

장로는 교회를 관리감독하고 치리하는 자로서(행 20:28, 롬 12:7-8, 고전 12:28, 딤후 5:17) 집사보다는 높으나 사도, 선지자, 교사보다는 낮았다(고전 12:28, 딤후 5:17). 사도, 선지자, 교사의 업무는 가르치는 일과 권면하는 일이었다(갈 6:6, 딤후 4:13).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다음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고 하였다.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3)



데살로니가의 성인들을 기념하는 우표. 데메트리오스(Demetrios, 270-304년, 좌측)와 메소디오스(Methodios, 826-885년, 우측)

목사를 받았다. 그러다가 주후 392년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고, 성체 신학(Mass)의 발전으로 장로들을 사제(제사장)로 호칭하였고, 사제(장로) 밑에 부제(집사), 사제위에 주교(감독), 주교위에 대주교, 그 위에 가톨릭에서는 추기경(Cardinal)과 교황(Pope)의 직제가 생겼고, 정교회에서는 총대주교(總大主教, Patriarch)가 생겼다. 16세기에 이르러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가 사제를 다시 목사(pastor)로 호칭하였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녹스가 평신도 장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붙여진 이름이 장로교회이다. 이로써 사제(제사장)가 없는 개신교는 신약성서시대로 돌아가 목사는 설교장로의 위치로 평신도 장로는 치리장로의 위치로 본래 자리를 찾게 되었다.

하지만, 19세기부터 신학과 목회훈련을 받고 지역교회에 초빙되어 간,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본교회가 뽑은 장로도 아닌, 유급 전담 목회자가 장로인가 혹은 장로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 하는 전도자인가라는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목회자는 장로들의 부름을 받고 그들의 엄격한 감독아래서 교회를 섬기는 전담 전도자라는 주장과 목회자는 교회의 주도적인 장로요, 여러 장로들과 동등하지만 첫째(당회장)라는 주장이 맞섰다. 교단의 성격에 따

개신교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역할에 큰 혼란이 있다.

사도, 선지자, 교사와 같은 떠돌이 전도자시대가 완전히 끝난 2세기부터 지역 교회들은 전적으로 장로



---

라 장로를 목사보다 우위에, 반대로 목사를 장로보다 우위에, 또는 그 중간에 두기도 한다. 목회자 호칭은 장로가 우위인 경우 전도자 (evangelist), 목사가 우위인 경우 목사(pastor), 그 중간인 경우 목회자(minister), 설교자(preacher), 전도자, 혹은 드물게 목사로 불리는데, 이 경우는 목회자가 장로에 선출되었을 때이다. 미국 개신 교회들의 경우 상당부분 장로는 연임이 가능한 단기직이고 선출직이므로 설교자 또는 목회자도 성도들로부터 추천만 받으면 장로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장로로 선출된 목회자는 설교와 심방 및 전도이외에도 치리나 감독의 권한까지 갖는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든 장로든 사제계급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란 점이다. 겸허히 교회를 섬길 때 진실로 존경받을 수 있다.

### 17. 소망의 인내(4)(살전 5:14-28)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의 수호성인 데메트리오스 성당. 4세기에 처음 건축되었으며,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간주된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 시에 남긴 정교회 유적들 가운데 가장 빼어난 것들에 속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11절).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화목하게 지내라(13절), “게으른 자들을 권계(훈

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14-15절)고 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밝히는 일, 질서를 세우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권면이다. 권면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 존귀하게 여기는 일, 화목하게 지내는 일, 훈계하는 일, 격려하는 일, 돕는 일 등을 오래 참음과 선함으로 하라는 권면이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16-18절)고 하였다.

이것은 빛의 일, 질서의 일, 생명의 일, 살리는 일, 돕는 일 등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라는 말씀이다.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오래 참음과 선함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라는 권면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빛의 일, 질서의 일, 생명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이 일을 하나님은 오래 참음과 선함과 기쁨과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엡 5:1)고 하였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롬 15:5)고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롬 8:29)고 하였다. 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고 하였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살전 1:6)며 기뻐하였다.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사는 것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19-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권면은 ‘뇌 길들이기’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습관, 성경말씀과 설교를 마음에 새겨듣는 습관, 범사에 빛과 생명의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습관, 어둠의 일과 죽임의 일을 멀리하는 습관은 뇌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일에 둔감하게 하는 반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항상 기쁘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범사에 감사하도록 만들며, 만사가 형통하도록 만든다.



성 판테레이몬(Aghios Panteleimon, c.275-305년) 기념 성당  
(데살로니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판테레이몬은 비두니아지역 니코메디아(Nicomedia)의 선인으로서  
로마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기독교 대박해(305년) 때 순교하였다.

성령님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성령님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이미 성령님을 받았음을 전제하

였다. “성령의 기쁨”(1:6),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주심”(4:8),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권면(5:19),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살후 2:13) 등에서 그 같은 사실이 파악된다.

성령님에 관한 바울의 또 다른 가르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자와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된다는 약정서에 성령님이 인감과 선수금이 되시고, 하나님나라에서 장차 누릴 특권을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를 히브리서는 6장 4-5절에서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말로 표현하였다. 로마시대의 속주민들이 로마시민권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은 로마군단에 입대하여 짧게는 16년에서 길게는 25년까지 복무기간을 채우는 것이었다. 제대병들은 자신과 자녀들 몫의 로마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로마시민에게는 투표권, 참정권, 재산소유권, 자녀가 시민권을 승계 받을 권리, 면세와 각종 법적 권리, 고문당하거나 채찍질당하지 않을 권리, 반역죄가 아닌 한 사형선고를 받지 않을 권리, 사형선고를 받았더라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을 권리가 주어졌다. 추측컨대 로마군단보조군에 소속한 속주민들은 제대 후 누릴

이 같은 권리들에 참여한바가 되고, 그 능력을 맛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에 충성하였고, 시민권을 받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며 온갖 시련을 참고 견뎠을 것이다. 그리스도 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약속받고 종군하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다.

**온전히 거룩하게 되라**



데살로니가의 성인 메데트리오스(Hagios Demetrios) 성당  
(Veliko Tarnovo, Bulgaria)

23절은 전쟁의 승리로 얻는 일시적 평화, 폭력으로 얻는 잠정적 평화가 아닌 참 평화, 전쟁영웅들의 개선행렬이나 그리스 로마의 신들한테서

찾아볼 수 없는 살롬의 평화를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 없게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기원이다. 바울은 이 기원을 3장 13절에서 이미 행한바 있다.

바울이 언급한 “영과 혼과 몸”에서 혼(魂)은 성서적으로 볼 때 우리 몸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 동일한 단어나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거나 모두 열거하는 표현법은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강조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다”(창 26:13), “~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시편 136편에서 26회 사용),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 12:8),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사 6:3, 계 4:8), “진실로 진실로”(요한복음에서 25회 사용),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히 4:12)가 그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다.

구약성서에서 히브리인들이 ‘혼’(nepheshi)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영과 몸의 구분 없이 일원론적으로 생명체(생물), 사람, 생명, 호흡, 숨, 영혼 등을 의미하였다(창 1:20, 21, 24, 30; 2:7, 19; 9:4,5; 36:6). 그러나 신약성서에서는 헬라인들의 이원론적 사고가 반영되어 종종 영과 몸을 구분하는 때가 있다. 따라서 신약성서에서는 영과 몸의 구분 없이 ‘사람’을 ‘혼’이라고 부르기도 했고(행 2:41), ‘영’을 ‘혼’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 경우 혼과 영은 ‘부엌’을 ‘정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창 35:18; 왕상 17:21; 시 31:5; 눅 23:46; 행 5:5,10; 15:26; 히 12:23; 계 6:9; 20:4). 성서는 사람을 ‘혼과 몸’(마 6:25; 10:28), ‘영과 몸’(롬 8:10; 고전 7:34; 약 2:26), ‘영과 육체’(마 26:41; 고후 7:1), ‘외적 사람과 내적 사람’(고후 4:16; 엡 3:16; 벧전 3:3-4)으로만 구분한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므로 믿을만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에 찬 기원이다.

마지막으로 25-28절은 50년대 기독교예배가 반영된 말씀이다. 25절은 예배 때의 중보기도, 26절은 주의 만찬 때 나누는 평화의 인사, 27절은 성경읽기, 28절은 축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 가운데 주의 만찬과 성경읽기는 기독교예배의 핵심전통이자 개신교가 가장 도외시한 것들이다.



### 18. 인내와 믿음(1)(실후 1:1-4)

#### 은혜와 평강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써서 실라와 디모데에게 건네주는 장면  
 이 모자이크에는 라틴어로 다음과 같이 쓰였다.  
 Paulus tradit epistolas discipulis suis Timotheo et  
 Silee deferendas per universum orbem  
 바울은 편지들을 그의 제자들인 디모데와 실라에게 건네주었다.  
 그것들은 온 세상에 전달되어야 한다.

데살로니가 후  
 서 1장 1-2절의  
 인사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  
 데는 하나님 우  
 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  
 로니가인의 교회  
 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  
 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이다.”는 전서 1장 1절의 인사와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후  
 서의 인사말이 전서의 인사말보다 신학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다.  
 전서에서는 “우리”란 말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했는데,  
 후서에서는 “우리”란 말을 추가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  
 였다. 또 전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없  
 이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지이다.”라고만 하였는데,  
 후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  
 강이 너희에게 있을 지이다.”라고 하였다.

바울의 이 인사말에는 두 가지 교훈이 담겨 있다.

첫째, “은혜와 평강”은 헬라인들의 편지 인사말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은혜”(charis)는 헬라인들의 편지에서 발견되는 인사말이고, “평강”(eirene)는 유대인들의 인사말인 ‘샬롬’에 해당된다. 샬롬은 평화, 성장과 번영,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뜻하며,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축복을 기원하는 말이다. “은혜와 평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샬롬의 평강을 말한다.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이 두 단어를 관용어처럼 사용하였다.

둘째,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였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택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하나님을 유대민족의 신(神)으로 철두철미하게 믿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참 신(神)을 갖지 못한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사라졌고, 민족성별언어색깔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하나님은 만아들격인 유대인뿐 아니라, 탕자격인 이방인에게까지 아버지가 되신다고 확신하였다.

### 항상 감사의 당위성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에서 “형제(들)”란 단어는 데살로니가전 후서에서 28회나 사용되었다. 그만큼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피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란 사실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살전 1:4) 혹은 “주께서 사랑하시는”(살후 2:13, 16) 또는 “우리의 사랑하는”(살전 2:8, 3:12) 형제들이란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편지를 전달받는 그림

고, 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짐례를 받고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자와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독생자이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신약교회가 창립된 때로부터 하나님의 만이들이 되셨기 때문

에(롬 8:29, 히 1:6) 신약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만형과 오라버니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형제와 자매가 된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동생이 형님과 오빠의 사랑을 받으며,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우애를 쌓는 것만큼 당연하고 옳은 것이 없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도간의 사랑이 풍성한 것으로 인해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며 칭찬하였다.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바울의 권면이 단순한 입발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을 칭찬한 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모두가 초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성장해나가고 있었다.

둘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을 잘 따르고 있었다(히 10:24-25).

### 소망의 인내의 당위성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미션을 받는 그림

셋째,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았기” 때문이다(히 10:23). 따라서 바울은 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며 칭찬하였다.

소망의 인내의 당위성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잘못 아시고 약속하셨을 리가 없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방해를 받거나 지키지 못할 이유를 만드실 리가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거나 약속을 번복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전지전능하신 분이실 리가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어떤 시련과 환란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이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계시록 2-3장은 귀 있는 자가 들어야 권면과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처음행위를 가지라”(2:5). “죽도록 충성하라”(2:10). “회개하라”(2:16). “굳게 잡으라”(2:25).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3:3).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3:11). “네가 열심을 내라”(3:19).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서 먹게 하리라”(2:7).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2:1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2:17). “새벽별을 주리라”(2:28). “이기는 자는 ... 흰옷을 입을 것ियो,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3:5).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3:12).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3:21).

### 19. 인내와 믿음(2)(살후 1:5)

#### 데살로니가교회가 받은 박해와 환난의 성격



데살로니가에 소재한 성모 마리아 성당 돔 천정 벽화  
 예수님의 요안 좌우에 “예수 그리스도 집는자”라고 썼다.  
 Ekklesia Panagia Dexia (The Blessed Virgin Mary)

데살로니가교회는, 1장 4절에 의하면,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었고, 그들이 보인 인내와 믿음은 다른 교회들이 본 받아야 할 만큼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헬라인들은 각 가정마다 수호신을 모셨지만, 다양한 신들을 다함께 믿는 다신(多神)

사회였다. 도시마다 올림포스의 주신들을 모신 웅장한 신전들이 있었고, 여타의 신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바쳐진 사당까지 있었으며, 아고라(광장)에는 다양한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헬라인들이 데살로니가교회를 조직적으로 탄압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유대인들은 로마당국으로부터 동족에 한해서 거주지에 상관없이 유대교법으로 치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드러내놓고 헬라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처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남의 나라에 얹혀사는 처지여서 헬라인들의 탄압을 걱정해야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교회가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환난을 겪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선동했거나 불량배들을 동원했기 때문이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교인들이 바울과 교회에 위해를 가하려고 아고라(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큰 소동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고(행 17:1-9), 그로부터 5년쯤 후인 주후 57년경에도 에베소에서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행 19:24) 돈벌이를 하는 상공인들이 데메드리오의 주동으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이 동족인 알렉산더를 폭도들 앞에 내세워 헬라인들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켜 바울과 교회에 위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다(행 19:23-41). 바울은 이 사건이 터진 직후에 에베소에서의 2년 3개월의 선교를 정리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

###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겪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이다. 의롭다하심(칭의)과 거듭남(중생)은 영혼 구원이자 육체구원에 대한 약속이다. 따라서 육체는 여전히 자연법칙에, 세상은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다.

둘째, 신앙생활은 히브리인들의 광야생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내주동거하시고 약속의 확실성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며 선취하도록 도우시지만, 신앙생활은 모든 난관을 헤치며 하늘 가나안땅을 향해서 걷는 순례자의 길이다.

셋째, 육체구원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뤄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





예수 그리스도(13c 모자이크, Hagia Sophia, 터키 이스탄불) 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실패나 오류가 없으시므로 그분의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필연적이다.

셋째, 시련은 짧고 그 영광은 길기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18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고 하였고, 고린도후서 4장 17-18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였다. 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의 시련기를 짧은 3년 6개월로 언급한 반면에 영광기를 긴 일천년으로 언급하였다.

인내는 고난당하는 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체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웅처럼 시련을 견디는 것을 말한다. 믿음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는 신실함을 말한다. 이를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한다. 문자적인 뜻은 ‘충만한 믿음’(faith+fulness)

음과 인내이다.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므로 그분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실 것이므로 그분의 자녀들이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둘째, 하나님만이 유

이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고 한 말씀에서 “충성”은 ‘신실함’이다.

###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2-3세기경의 카타콤의 비석

이 비석에서 공작은 영생과 부활, 목자는 예수님, 양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함 이 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란 말에는 두 가지 역설이 담겨 있다.

첫째, 데살로니가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믿음과 인내로써 신앙의 본을 보였다. 신자들은 심하게 휘둘리고, 불신자들은 오히려 휘두르는 아이러니, 곧 신자보다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훨씬 잘 풀리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금권과 권력을 휘두르는 아이러니 속에서조차 믿음과 인내로써 신앙의 본을 보였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행될 것이라는 증표였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믿음과 인내로써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데살로  
니가후서  
1장 5절  
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요, 너희  
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  
당한 자로  
여김을 받  
게 하려

러므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야말로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도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이다.

둘째, 믿음과 인내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교회가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는 사실은 장차 있을 심판에서 그들이 받을 상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신원하시고 반드시 예비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는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하는 간접 전도가 된다. 성도들의 강한 믿음과 인내는 박해자들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만일 성도들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운 일이겠지만(벧전 2:20),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벧전 1:7).



## 20. 인내와 믿음(3)(실후 1:6-12)

## 하나님의 공의의 성격

공의에는 보복(사법)정의와 분배(복지)정의가 있다. 본문에서의 공의는 보복정의를 관한 내용이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공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징벌이 아니고 사랑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성서가 하나님의 언약백성에 관한 글이고, 구약에 기초한 유대인이든 신약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자식관계이거나 신랑신부관계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는 징계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멸망시키거나 천벌을 내리는데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그 어느 것도 희생됨 없이 절묘하게 교차(cross)하기 때문이다. 정의도 실현되고 사랑도 실현된 정의로운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상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분의 자녀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로마시대의 정의개념과 다르지 않다. 고대 그리스로마인들은 정의의 여신 ‘디케’(Dike)나 ‘유스티치아’(Justicia)를 오른손에 양날 검을, 왼손에 천칭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영어 ‘justice’는 라틴어 ‘유스티치아’(Justicia)에서 유래되었다. 반면에 응보의 여신 ‘네메시스’(Nemesis)의 손에는 저울대신에 검과 채찍이 들려있기도 하다. 이런 정황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나님의 공의는 회개하지 않는 적대자들에게 재앙으로 응징하신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가장 큰 목적은 적대자들의 손



주의 재림 때 있을 천사의 “마지막 나팔소리”  
(사도전 4:16, 고전 15:52, 19세기, 독일 란겐젠, Stadtkirche)

아귀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재앙은 내세는 물론이고 현세에서도 주어진다.

###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6-10절에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이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고 하였다.



나팔을 부는 천사  
(성삼위일체교회 스테인드글라스 영국 홀 이스트요크셔)

성서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서인 관계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백성에게 믿음과 인내를 권면하는 글일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10장 26-39절이 대표적이다. 내용은 이렇다.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 때에는 속죄 제사가 남아 있지 않다. 믿음과 인내를 보이지 못하고 배신했을 때,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과 그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이다. 하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의 빛을 받은 뒤에 그 듯한 고난의 싸움을 견디고 이긴 첫 사랑의 때를 회고해 보라. 그 시절에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고, 동일한 처지에 놓인 교우들의 동반자가 되며,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재산몰수를 당하고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쁨으로 당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믿음이 있는 행동은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용기 있게 전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약속하신 큰 상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수고를 마치고 인내의 결실을 맺을 때가 멀지 않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다. 그분은 결코 지체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라.”(10:35-37). 성도들이 붙들고 놓지 아니한 그 희망과 믿음의 끈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성도들을 인생의 미로에서 끄집어내 하나님의 나라에로 인도하여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할 것이다.

### 열망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



나팔을 부는 천사

(볼트 성모 성당 스테인드글라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성서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서인 관계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백성에게 믿음과 인내를 권면하는 글일 수밖에 없다. 계시록 13장 9-10절이 대표적이다. 내용은 이렇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하였다. 성도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적대자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11-1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대자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절단코 창조주가 될 수 없고, 그분을 이길 수 없다.

둘째, 적대자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거짓되고, 구원에 미치지 못한다. 세상권세는 권세자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위임권세로써 잠시 맡겨진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차면, 수명이 다한 기계처럼 그들의 권세는 고철신세가 되고 만다.

셋째, 적대자들의 운명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시기와 때가 질병과 사망 혹은 쇠퇴와 몰락으로 찾아온다. 게다가 사후와 주의 재림의 때에는 유흡과 불과 연기로 타는 불 못에서 영벌을 받게 되어 있다.

계시록의 특징은 죽으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 고난이 세세토록 이어진다는 데 있다. 그리스신화에 묘사된 타르타로스처럼, 지옥에서는 영원토록 안식을 얻지 못하고 고통스런 일들을 끝없이 반복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을 마음에 새긴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세우고 실천하는 모든 선한 목적과 행동에 성공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이었다.



## 2. 그리스도의 강림(1)(살후 2:1-5)

### 그리스도의 강림과 집회



티투스의 개선문 복조(주후 81년, 복사본, 미국 LA카운티 미술관)  
오른쪽에 톱가를 결친 티투스가 네 필의 말이 끄는 전차에 올라서있고,  
뒤에서 여신 니케(승리)가 티투스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우고 있다.  
전차 옆에 상체가 드러난 사람은 평민들, 톱가를 결친 사람은  
원로원의 의원을 대표한다.  
말고삐를 붙잡고 있는 여성은 여신 로마 또는 여신 통명을 상징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는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나 도시에 도착할 때를 일컬어 “강림”(parousia-헬, adventus-라)이라고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다. 그리스도는 로마제국의 황제를 뛰어넘는 개념이다. 계시록에 언급된 적그리스도는 황제를 지칭한 것으로 보면 틀림없다. 게다가 당대의 황제들은 제사와 분향을 받는 신성(Divine)으로 주장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강림”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의 도착, 왕의 임재, 왕의 개선을 뜻한다. 왕이 도시에 도착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시민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거나 도시를 방문하는 왕을 마중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 환영하며, 환영행사가 펼쳐지는 원형경기장(아레나)이나 광장(아고라)에 모인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인

들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마중을 나가게 될 것이고, 환영행사장에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모임”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쉬나고게’(episynagoge)는 집회를 뜻한다. 구약외경 마카비하 2장 7절에서 ‘에피쉬나고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와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살아 있는 못 성도들과 부활한 못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자비를 입기 위해서 그분 앞에 모이는 엄청난 집회, 문자적으로 온 지구를 덮는 큰 집회가 열릴 것이다. 광화문광장에 모이는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보다 수만 배 더 큰 집회가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집회, ‘에피쉬나고게’의 예행연습이 다름 아닌 주일예배이다. 매주일 예배당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는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집회이며,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그리스도의 교회들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행 2:46),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히 10:25)는 성경말씀을 상기해야한다.

### 가짜 뉴스(fake news)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하셨고, 이 땅에 머물고 계신다는 가짜 뉴스(fake news)를 데살로니가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지적한 말씀이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가짜 뉴스가 전달된 경로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거짓 “영으로” 인한 것이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휴거가 1844년 10월 22일에 있다고 주장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사건이나 그 휴거가 1992년 10월 28일에 있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의 주화(c. 215-164 BC)  
 전면에 안티오코스 4세의 얼굴상을 새겼고, 뒷면에 보좌에 앉은  
 제우스가 오른손에 여신 승리(Nike)를, 왼손에 삼지창을 쥐는 모습을  
 새겼으며, 헬라어로 오른쪽에 ΘΕΟΥ ΕΠΙΦΑΝΟΥΣ  
 ΝΙΚΗΦΟΡΟΥ(신의 현현, 승리를 지낸자), 왼쪽에  
 ΒΑΣΙΛΕΥΣ ΑΝΤΙΟΧΟΥ(왕 안티오코스)라고 새겼다.

고 주장한 이 장림의 다미션 교회 사건은 모두 “영으로” 혹은 ‘예언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데살로니가인들 사이에 이런 주장을 펼친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거짓 “말로” 인한 것이었다. 데살로니가인들 가운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테의 말을 빙자하여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는 거짓 “편지로” 인한 것이었다. 이 가짜 뉴스는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이 앞서 보낸 편지를 악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짜 뉴스를 접한 데살로니가인들이 불안에 떨었던 이유는 이미 재림하셨다는 그리스도를 정작 자신들은 만나지 못했으므로 구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도착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뜬소문은 카비루스 전설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카비루스가 이미 환생하여 저들과 함께 거한다거나 카이사르의 몸으로 환생하였다는 주장들을 익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긴박한 이유로 바울은 후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2-4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

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며, 그 같은 가짜 뉴스로 인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고 강권하였다.

적그리스도



로마황제 갈리굴라(Galigular, 주후 37-41년 재위)의 주화  
 전면에 열계관을 쓴 갈리굴라를 새겼고, 원둘레에 "C CAESAR  
 DIVI AVGV PRON AVGV P M TR P III P P"(가이우스 카이사르  
 신성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의 증손자, 대신관, 집정관 3회, 국부)  
 라고 썼으며, 뒷면에 의자가 놓인 연단에 선 갈리굴라가 출정을  
 앞둔 군단을 향해서 연설하는 장면과 군단의 선봉에 선 5명의  
 군인들이 투구와 칼과 방패로 무장한 채 4개의 금빛 독수리군기를 들고  
 선 장면을 새겼다. 상하단에 "ADLOCVT COH"(군단에게 연설)  
 이라고 새겼다. 갈리굴라는 주후 4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라고 명령하였으나 이듬해에 암살됨으로써 무산되었다.

3-4절에서 언급된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의미한다. 4절에서 언급된 “대적하는 자”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이다. 당시 황제는 신성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왕권에 맞서는 적그리스도였다.

일찍이 자신을 ‘신의 계시’라 주장하여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던 설루키드왕조의 안디옥코스 4세는 유대교의 대제사장직에 헬라문화에 동화된 제사장을 세우거나 돈을 받고 대제사장직을 팔아먹었고, 나중에는 유대교를 폐지시켰으며, 성전을 약탈하는 등 유대지역을 헬라화 시켰다.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에게 봉헌하였고, 유대인들이 부정한(treyf) 동물로 생각하는 돼지를 제단에 바치게 함

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 이 뿐 아니라, 안디옥코스는 모든 유대교 의식과 율법서의 소유를 사형으로 금지시켰다. 그 대신 안디옥코스는 유대인들에게 연극, 스포츠, 대중탕사용, 나체운동, 테두리 넓은 모자 착용과 같은 헬라문화와 관습을 강요하였고, 이에 젊은 사제들 가운데는 제단을 버리고, 원반던지기를 연습하며, 할례의 흔적을 지우는 수술까지 받았다.

주후 40년에 로마황제 칼리굴라(Caligula)는 자신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라고 명령하였으나 이듬해 1월에 암살됨으로써 무산되었다. 동상세우는 임무를 맡은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는 유대인들의 폭동을 우려하여 최대한 작업을 늦추었고, 칼리굴라와 가까웠던 아그립바1세는 로마로 건너가 황제가 이 일을 단념하도록 노력하였다.

신성을 찬탈한 네로 역시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였다. 박해이유는 주후 64년 7월 18일에 로마의 대경기장 일대에서 발화되어 9일간 로마시의 삼분의 일을 태운 대화재로 인해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네로 황제와 정부의 구호활동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안위를 흔들 수 있는 네로 방화설이 수그러들지 않자, 집권세력은 당시 "사악한 미신", "로마제국에 의해 처형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공격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민심수습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황제였고, 가장 큰 믿음의 시험대는 황제숭배였다.

22. 그리스도의 강림(2)(사후 2:6-12)

신(神)과 주(主)(Deo et Domino)



테트라드라크마(tetradrachm, 4데나리온)

전면에 월계관을 쓴 옥타비아누스의 얼굴과 그 둘레에 IMP CAESAR DIVI F COS VI LIBERTATIS P R VINDEX(황제 카이사르 신의 아들 집정관 6회, 자유와 로마시민의 보호자)라고 썼고, 뒷면에 평화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평화의 여신을 새겼으며, 그녀 왼쪽에 PAX(평화)를, 오른쪽에 상자에서 뱀이 올라오는 것을, 그리고 그 둘레에 월계관을 새겼다.

로마시대에 황제 카이사르는 신성(神性, Divus)이자, 주(主, Dominus)요, 평화(pax)를 가져오는 자였기 때문에 권세와 명예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

(萬主)의 주(主)이신 그리스도(Christus)의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만 일시적으로 맞수였다. 따라서 바울이 언급한 적대자 곧 불법의 사람은 로마황제였다. 로마황제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대적하는 모든 왕들의 대표요 상징이었다. 고대의 황제들 가운데 다수가 신성을 주장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로마황제들의 대부분이 주(主)와 신성(神性)을 주장하면서 신전을 세워 숭배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신은 야훼 하나님과 같은 유일신은 아니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로마황제들은 자신들을 제우스(유피테르), 아폴론, 태양신, 아몬, 디오니소스 등의 현현이라고 주장하였다. 로마의 초기 황제들은 신성(Divus)만 주장하고 신(Deus)과 주(Dominus)를 주장하지 않았으나 도미티아누스

(A.D 81-96년 재위)가 처음 주장한 이후 점차 확대되어 아우렐리아누스(주후 270-276년 재위)와 카루스(주후 282-283년 재위) 황제 때에는 통용되는 주화에 ‘신과 주’(Deo et Domino)란 단어를 새겨 넣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들 황제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안디옥 코스 4세처럼 제우스 신상이나 칼리굴라처럼 자신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려한 자들이 있었다. 또 느부갓네살이나 티투스처럼 예루살렘성전을 멸망시킨 자들도 있었다. 로마황제 하드리아누스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유피테르 신전을 세우기도 하였다.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를 정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나타날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고 계시다고 말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게다가 적그리스도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해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정한 맞수가 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주장들은 모두가 거짓되다. 그것은 마치 로마황제들이 자신들을 일컬어 ‘신과 주’(Deo et Domino)라 말하고, 평화(pax)와 행복(felicita)을 주는 자라고 말한 것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과 같다.

### 불법한 자들의 제한된 활동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에서 바울은 “불법의 비밀” 곧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 힘이 제한적인 것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는 자는 하나님이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는 말씀에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최후까지 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로 막고 계셨기



카루스(Marcus Aurelius carus, AD 282-283)  
 전면에 무적의 태양신(왼쪽)을 마주보고 선 카루스(오른쪽)를 새겼고,  
 DEO ET DOMINO CARO INVIC AVGV(신과 주, 카루스 무적의  
 아우구스투스)라고 썼으며, 뒷면 오른손에 평화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왼손에 홀을 들고 서있는 여신 행복을 새겼다. 그리고 그 둘레에  
 FELICITA S REI PVBLICAE ·X·II·(행복, 공화국 원로원, 은 함량  
 10퍼센트)라고 적었다.

때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  
 것은 마치 사  
 탄이 욕의 믿  
 음을 시험코자  
 할 때, 하나님  
 께서 사탄이  
 욕의 목숨은  
 끊지 못하게  
 제한하신 것과  
 같다(욥 1:12).  
 일찍이 왕이  
 나 황제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탄압해왔다. 이 경우 성서는 환난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뜻으로 3년 6개월을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엘리야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탄압이 3년 6개월에 그쳤고, 설루키드왕조의 안디옥코스 4세의 극심한 탄압도 3년 6개월에 그쳤다. 예수님도 공생애기간의 환난을 3년 6개월에 마쳤고, 네로의 기독교 박해도 3년 6개월 남짓 이어졌다. 로마제국에서 박해가 시작된 때와 그 기간은 네로(Nero 64-68년), 도미티아누스(Domitianus 95-96년), 트라야누스(Trajanus 112-117년), 하드리아누스(Hadrianus 117-138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177-180년), 셉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us Severus 202-211년), 막시미누스(Maximinus 235-238년)로 이어졌으나 전 로마제국에 걸쳐 자행된 대대적인 박해는 아니었다.

또 전 로마제국에 걸친 가장 강력한 기독교박해는 데키우스(Decius 250-251년), 발레리아누스(Valerianus 257-259년),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303-305년) 황제들에 의해서 시행되었으나 그것들도 역시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250년 1월초에 박해를 시작한 데키우스는 이듬해 6월에 공동 황제였던 아들과 함께 흑해연



안 도브루자의 늪지대에서 고트족에게 살해되어 시체도 찾지 못하였고, 257년에 박해를 시작한 발레리아누스는 259년 터키 남동부 에데사에서 페르시아의 샤푸르 1세에게 사로잡혀 노예가 되었으며 사후에 시신은 박제되어 신전에 전시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도 303년부터 강력하게 기독교를 탄압하였으나 305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직에서 퇴임하고 말았다. 이처럼 역사는 본문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불법한 자들의 활동을 가로막고 계심을 입증하고 있다.

### 불법한 자들의 심판



아우렐리아누스(주후 270-276년 재위)  
 전면에 황제의 얼굴을 둘러싸고 DEO ET DOMINO NATO  
 AVRELIANO AVG(타고난 신과 주, 아우렐리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겨졌고, 뒷면에 월계관을 수여받는 모습을 새겼다.

로마제국 차원의 황제 중심의 박해가 시작된 것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202년에 ‘무적의 태양신’에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사형에 처한다는 칙령

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불법한 자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 때는 250년부터 309년까지 반세기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시행된 대 환난 때였다. 데키우스 때 1년 6개월 정도, 발레리아누스 때 3년 남짓, 디오클레티아누스 아우구스투스황제(정제) 때 3년 남짓,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카이사르황제(부제)였던 갈레리우스(Galerius)가 305년에 퇴임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뒤를 이어 아우구스투스황제가 된 때로부터 309년까지 박해를 이어갔는데 그것이 기독교가 로마제국으로부터 겪었던 마지막 대 환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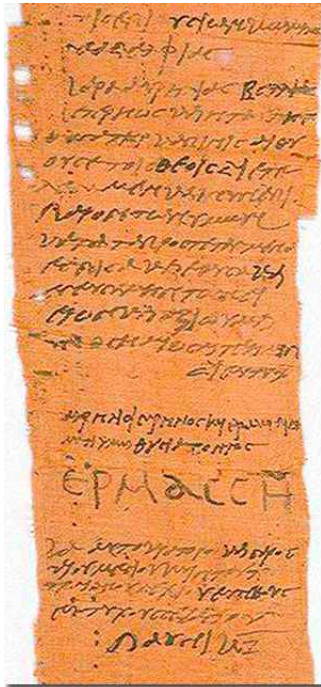


8절,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불법한 자들이 끊임 없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을 것이고, 최후에는 그를 사로잡아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실”(계 19:20) 것을 암시한다.

9-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에서 바울은 “악한 자”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임을 암시한다. 이런 점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맞수이지만, 그와 그의 적 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표절에 불과하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그들의 것들을 거두시게 되면 그들은 썩은 송장에 불과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는 말씀은 불법한 자 곧 적그리스도의 행동은 모든 것이 속임수에 불과하고, 그 속임수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통하지만, 진리를 사랑하고 구원함을 받을 자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는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갈 운명이란 것이 11-12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이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이다.

### 23. 그리스도의 강림(3)(산후 2:13-17)

#### 박해자 데키우스



데키우스(Decius)가 발행한 리벨루스(libellus, 250년) [내용]테아델피아 마을의 제사관장하는 자들에게, 페테레스의 딸 아우렐리아 벨리아스와 그녀의 딸 카피니스로부터: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들에게 제사를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절차를 따라 관제를 벗고 제사를 드렸으며, 신성한 예물을 맛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의를 위해서 이 증서에 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명]우리 아우렐리우스 세레누스와 아우렐리우스 헤르마스 그대들이 제사 바치는 것을 보았노라. 헤르마스 본인에 의해서 서명한다. 황제 카이사르 가이우스 메시우스 퀸투스 트라야누스 데키우스 피우스 펠릭스 아우구스투스 1년, 아우네 27.

역사적으로 볼 때, 불법한 자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 때는 250년부터 309년까지 반세기동안 세차례에 걸쳐서 시행된 대환난 때였다. 데키우스 때 1년 6개월 정도, 발레리아 누스 때 3여

년 남짓, 정제(아우구스투스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3여년 남짓, 그리고 부제(카이사르황제)였던 갈레리우스(Galerius)가 305년에 퇴임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뒤를 이어 정제가 된 때로부터 309년까지 4여년 남짓 박해를 이어갔는데 그것이 기독교가 로마제국으로부터 겪었던 마지막 대환난이었다.

데키우스가 249년에 황제에 오른 때는 로마건국(주전 753년) 일천주년에서 겨우 2년 경과한 즈음이었다. 이 시기에 로마는 정치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웠던 데다가 국경 너머에 사는 민족들이

수시로 제국을 위협하던 때였다. 카라칼라(186-217년) 황제는 212년에 선포한 안토니누스 칙령을 통해서 로마시민권을 모든 속주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자원 입대자를 얻기가 어려워졌고, 독립을 원하는 속주들의 반란과 폭동도 골칫거리였다. 데키우스는 로마가 약화된 원인이 로마가 전통적인 신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신들도 로마를 저버린다고 믿었다. 시민들이 신들을 극진하게 섬겼을 때에는 신들이 로마를 보호해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로마가 번영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시민들이 신들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게 되자 신들이 진노하여 로마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이로 인해서 유일신 야훼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무신론자로 단죄를 받게 되었고, 로마를 약화시킨 원흉으로 지목을 받게 되었다.

데키우스는 칙령을 선포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의 신들 앞에 나가서 그들 앞에 제물을 바치고 황제의 신상에게 분향을 한 후에 짐승의 표인 증서(libellus)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알렉산더 대왕이 생전에 아몬-제우스(Ammon, 산양)로 숭배된 것에서 보듯이 계시록에서 말한 짐승(아몬)과 뿔은 황제를, “짐승의 표”는 황제의 증서를 말한다.

#### 박해자 발레리아누스와 디오클레티아누스

257년에 황제에 오른 발레리아누스는 데키우스의 종교정책을 이어나갔다. 발레리아누스는 질병과 흉년이 든 책임이 기독교 때문이라고 믿었다. 기독교가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신들이 진노하여 생긴 일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은 자신들에게 충신했던 데키우스와 발레리아누스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았다. 데키우스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고트족과 펠친 늪지대 육박전에서 전사한 후 시체를 찾지 못하였고, 발레리아누스는 페르시아군대에 나포되어 노예취급을 당하였다.

동방지역의 정제(아우구스투스)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신의



도미티아누스의 데나리온(주후 81-84년)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DOMINUS ET DEUS)으로 부른게 하였고, 죽은 자신의 아들까지 신격화하였다. 전면에 월계관을 쓴 엄밀한 틀레에 IMP CAES DOMITIANVS AVG PM(황제 카이사르 도미티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대신관)이라고 썼고, 뒷면에 자신의 죽은 아들을 하늘(“그의 손에 일곱 별이 있고” 계시록 1:6 참고)라 땅(지구에 올라앉음)을 다스리는 자로 새겼다. 그리고 그 틀레에 DIVVS CAESAR IMP DOMITIANVS IF(신성 카이사르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들)이라고 새겼다.

위하에서 부제(카이사르)를 지냈던 갈레리우스의 간언을 받아드려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처음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 황후 프리스카(Prisca)와 공주 발레리아

(Valeria)가 그리스도인이었고, 신하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군대가 강할 수 있었던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양질의 보조병들을 속주민들 가운데서 뽑아 15-25년간 장기 복무시킨 후에 그 보상으로 시민권을 수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12년에 선포된 안토니누스 칙령이후 속주민들 가운데 보조병으로 자원입대하려는 자들이 줄어들게 되자 자구책으로 군인 자녀들에게 세습제를 적용하여 강제로 입대시켰다. 강제입대당한 군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해가 시작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입대를 기피하거나 입대한 후에도 탈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한명이 <순교자 행전>(Acta Martyrum)에 실린 막시밀리아누스였다. 그는 295년에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속주도시인 테베스테에 거주하는 세무공무원이었다. 병사였던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신장이 15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은 22세의 청년 막시밀리아누스는 입대를 했어야했지만, 두 분의 ‘신(神)과 주(主)’ 즉 그리스도와 카이사르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며 끝까지 입대를 거부했

고, 즉결처형을 당했다. 이미 입대한 그리스도인 병사들도 배교를 거부하거나 탈영을 시도함으로써 사태를 키웠다. 갈레리우스는 303년에 이르러 로마제국내의 모든 관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하게 해달라는 건의서를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올렸고,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를 재가하였다.

박해자 갈레리우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직에서 파면되었고, 예배당과 기독교 문서들은 모두 압수되거나 소각되었다.

하드리아누스의 유대 도착 주화(주후 134/5-138년)  
 전면에 월계관을 쓴 얼굴을 둘러싸 HADRIVS AVGVSTVS P P  
 (하드리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집정관 3회 국부)라고 썼고, 뒷면 왼쪽에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에 도착해서 환영인파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과 오른쪽에 유대가 왼손에 신주병(神酒瓶), 오른손에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고 있는 모습, 그들 앞에  
 제단과 희생제물이 놓인 모습, 그리고 그 둘러싸 ADVENTVI AVGVSTI  
 IVDAEAE, SC(황제의 유대 도착, 원로원의 법령)이라고 새겼다.  
 이 박해는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를 대신해서 정제에 오른 갈레리우스가 309년 급병으로 쓰러지기까지 지속되었다.

갈레리우스는 외음부에서 시작된 화농증이 창자로 퍼졌고, 상처에는 벌레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하게 되었는데, 한 측근이 말하기를 황제의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응보 때문이므로 하루속히 탄압을 멈춰야한다고 충언하였다. 결국 갈레리우스는 주후 311년 4월 30일 기독교탄압을 중지하라는 칙령을 선포하였고, 그로부터 5일 후에 유명을 달리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인 313년

에 콘스탄티누스가 선포한 밀라노칙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드디어 신앙과 결사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고, 몰수당한 재산들을 환수 받았으며, 피해보상도 받게 되었다.

13-1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단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고 하였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하셨다. 그러므로 바울도 15-17절에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축복하기를,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다.



24. 사도전통대로(1)(살후 3:1-5)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주화(주후 337년경)

앞면에 월계관을 쓴 두상 둘레에 콘스탄티누스대제(CONSTANTINVS MAX AVG)라고 썼고, 뒷면에 뱀을 짚어 누른 군기 사이에 대중의 희망 콘스탄티노폴리스(SPES PVBLICA CONS)라고 썼다. 군기 상단에는 그리스도(XPISTOS)의 첫 두 글자 키-로(XP=CHR)를 겹쳐서 썼다.

렵게 되고”와 2절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및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한 기도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바울의 기도대로 주의 말씀은 로마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살롬의 평화가 넘쳐나게 되었다. 기나긴 박해시대의 종결은 313년 2월 콘스탄티누스1세(272-337년)와 리키니우스(Licinius)가 밀라노에서 회담하고 6월에 발표한 칙령으로 이뤄졌다. 이 밀라노칙령으로 인해서 모든 종교인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허락되었고, 몰수당한 교회의 재산들이 반환되었으며, 기독교탄압을 위한 법안들도 모두 폐지되었다.

밀라노칙령이 발표되기 8개월 전인 312년 10월 28일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가 로마 근교의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를 치른 일이 있었다. 이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대승을 거둠으로써 사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의 바울의 기도는 4세기에 모두 성취되었다. 1절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 영광스러워하고”와 같이 퍼져



정치체제를 끝내고 단독 황제가 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밀비우스 다리 전투 직전에 콘스탄티누스는 환상을 보았고, 즉각 군기(labarum)와 군인들의 방패에 그리스도(XPISTOS)의 첫 두 글자 ‘키-로’(XP=CHR)를 겹쳐 새기게 하였더니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고 한다. 동시대의 인물로서 가이사랴의 주교이자 최초로 교회사를 저술한 유세비우스(Eusebius)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환상을 본 직후부터 ‘키-로’가 새겨진 투구를 즐겨 썼다고 기술하였다.

유세비우스의 진술을 입증할만한 은화가 315년에 이태리 북부 티키눔(Ticinum)에서 발행된바 있다. 이 은화는 증정용으로 만들어져 널리 통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은화의 가치가 큰 이유는 312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키-로’를 군기와 방패에 새기게 한지 불과 3년 이내에 주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은화에 새겨진 황제의 투구벼슬에서 ‘키-로’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상을 본지 25년 후인 337년에 발행된 주화 앞면에 월계관을 쓴 옆얼굴 둘레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아우구스투스”(CONSTANTINVS MAX AVG)라고 썼고, 뒷면에 뱀을 찍어 누른 군기사이에 “대중의 희망 콘스탄티노폴리스”(SPES PUBLICA CONS)라고 쓴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군기 상단에는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에서 본 그리스도(XPISTOS)의 첫 두 글자 ‘키-로’(XP)를 겹쳐서 썼다. 이후 ‘키-로’는 교회와 비잔틴제국의 황제들이 즐겨 사용한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었다.

###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테오도시우스 대제

박해시대를 종결지은 밀라노칙령이 발표된 지 80년 만에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국교로 승격되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인물은 테오도시우스1세였다. 테오도시우스는 원래 동로마제국의 황제였으나 4개월에 불과했지만 서로마제국까지 다스렸던 마지막 황제였다. 그 후 로마제국은 동서로 분리되어 다시는 통일되지 못하였다.

379년경 테오도시우스가 통치하던 동로마 제국 내에는 삼위일체



테오도시우스 대제의 금화(주후 393-395년경)

앞면: "우리의 주 테오도시우스, 경건하고 유복한 황제"(DN THEODOSIVS PF AVGV)라고 썼다. 뒷면: 테오도시우스가 오른손에 굳기, 왼손에 지구위에 선 여신 승리를 불러놓고 포로를 밟고 선 모습. "세 명의 황제들의 승리, 신성한 돈, 금관성에 의한 승금"(VICTORIA AVGVSTVS SM COMOB)이라고 썼다. 에 놓이게 되었다. 테오도시우스는 심한 병에서 회복된 뒤 380년에 침례를 받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주선으로 325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신앙고백서이자 삼위일체신앙을 강조한 니케아신조를 신봉하게 되었다. 테오도시우스는 그 누구의 자문을 구하지도 않고 380년 2월 28일에 모든 시민이 니케아신조를 고백하라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삼위일체론을 믿는 신자들만 보편적(catholic)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가톨릭'이라는 호칭이 문서에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뿐 아니라, <미사경본>의 성만찬 기도문 제1양식과 암브로시우스 예전과 같은 예배의식이 발전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였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불세출의 인물들인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와 히포 레기우스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가 교회를 빛내던 시기였다.

테오도시우스는 381년에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개최케 하여 주교 150명이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확정케 하였으며,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가 로마 교구와 버금가는 명예와 권위를 갖게 하였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385년부터 동물제사를 엄격히 금지시켰고, 391년에 로마와 이집트에서 이교숭배를 금지시켰으며, 392년에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형태의 이교숭배를 제국의 전역에서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로마제국에서는 비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 어떤 비기독교 신앙도 출현하지 못하였

론(니케아신조)을 옹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단일 신론을 주장하는 아리우스파 사이에 적대 관계가

고조되면서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

다. 이뿐 아니라, 테오도시우스는 올림픽경기를 금지시켰고, 주화에 십자가를 새겨 통용시킨 테오도시우스의 손자인 테오도시우스2세 때에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많은 신전들이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때 신화에 바탕을 두고 3만이 넘는 우상들을 섬겼던 이탈리아는 서방교회 또는 가톨릭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는 동방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다.

### 만왕의 왕,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아몬-제우스, 제우스(유피테르)의 현현, 아폴론 혹은 태양신 헬리오스, “신(神)과 주(主)”라고 주장하며 제물과 분향과 관제의 부음을 받던 황제들은 모두 죽었고, 기독교를 심하게 탄압했던 대다수 황제들의 끝은 매우 불행하였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문자 ‘키-로’(XP)를 군기와 방패에 그려 전투에 임한 콘스탄티누스는 승리를 거둔 후 황제의 반열에 올랐고, 그로써 기나긴 박해시대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며, 비로소 기독교는 313년에 합법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다. 그로부터 80여년이 지난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대제는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선포하였고, 이후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문자 ‘키-로’(XP)와 십자가 형상은 비잔틴 제국이 기독교국임을 나타내는 핵심 기호가 되었다. 복음서를 가슴에 얹고 계신 그리스도와 헬라어문자 ‘만왕의 왕,’ ‘승리자’가 주화에 새겨져 온 제국에 선포되었다.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성삼위 하나님은 결코 실패를 모르신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혼돈이 질서를 이길 수 없으며,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고”(2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5절) 되며, 끝내는 영광의 승리자가 된다.

비잔틴 시대의 주화들



테오도시우스 2세의 주화(408-450년 재위)  
 전면에 AEL EVDOCIA AVG(아일리아 에우도키아 아우구스타)라 새겼고, 뒷면에 화관, 십자가, CONS\*(콘스탄티노폴리스)를 새겼다.



유스티누스 주화(518-527년 재위)  
 전면에 황제의 옆얼굴 둘리에 DN IVSTINVS PP AVG(우리의 주 유스티누스 즉 아우구스투스)라 새겼고, 뒷면 화관 손에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첫 두 글자 'XP(키로)'와 두 개의 별로 장식하였다.



비잔틴제국시대의 주화(10-11세기 사이)  
 전면에 예수님의 흉안에 십자가 영광을 가슴에 북은서를 새겼고,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왕중의 왕"이라고 새겼다.

## 25. 사도전통대로(2)(사후 3:6-18)

“우리를 본받아야”



데살로니가의 랜드마크인 화이트타워(Leukos Pyrgos, 12세기)에서 바라본 테르마이코스(Thermaikos) 만의 건물들과 항구들

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여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짜임새 없는 생활을 말한다. 바울은 11절에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11절)는 소문을 언급하였다. 6절의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와 7절의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how you ought to follow our example)가 연관된 구절이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은 사도들이 말과 행실로써 성도들에게 보인 본과 연관된다. 따라서 사도전통이란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워서 실천하고 전파한 복음과 실천을 뜻한다.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의 실천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7절).
- 둘째,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8절).
- 셋째,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였다(8절).
- 넷째,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8절).

데살로가후서 3장 6-18절은 사도들이 친히 실천한 모범과 권면과 기원과 문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절의 “게으르게 행하고”

다섯째,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였다(9절).

여섯째, 친히 본을 보여 본받게 하려하였다(9절).

일곱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 힘썼다(10,12절).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바울이 가르치고 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10절).

둘째,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12절).

셋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13절).

넷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라(14절).

다섯째,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16절).

16-18절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기원과 문안이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다”고 하였고,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고 하였다. 여기서 교회의 어떤 가르침과 실천이 정통(옳음)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지어질 당시 수집된 책들의 정경여부를 결정지은 잣대는 사도들의 전통(가르침과 실천)이었다.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다”(엡 2:20)고 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지칭한 것이고, “모퉁잇돌”이란 건물 네 모퉁이에 놓는 주춧돌과 같은 것으로써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뤄진 사실들이 교회의 근간이란 뜻이다. 그리고 “사도들과





귀리장인들의 성모성당(Panagia Chalkeon church, 주후 1028년) 데살로니가서에 소재한 교회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선지자들의  
터”란 예수님  
께 배운자들  
이 전하고 실  
천한 내용들  
이 교회의 기  
초라는 뜻이  
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인들에게 “전  
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순종하라고

권하였고(롬 6:17), 고린도인들에게 “전하여 준대로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고전 11:2)하였으며,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according to the tradition which you received from us)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살후 3:6)고 충고하였으며, 갈라디아인들에게는 심지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9)고 하였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통에 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서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고소할 때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다”고 분노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 즉 모세오경에 실린 613개의 계명들과 전통들을 주어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고, 땅을 지키는 수단이었으며, 거룩함이었고 의로움이었기 때문이다. 유대교의 전통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수없이 많은 율타리 법들로써 계명들에 겹겹이 방어막을 칩으로써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이 지키게 할뿐 아니라, 외식하도록 만들어왔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전통교회들에 남아있다. 예



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신자들이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하게 한 것과 신자석보다 상당히 높고 먼 곳에 주의 만찬상인 제단을 배치하여 사제의 권위를 높인 것이다.

###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헤시키아(hesychia) 명상을 정립시킨 데살로니가의 영성신학자 그레고리 팔라마스(Gregory Palamas, 1296-1359년)의 기념성당

성막건축에 관한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거듭 강조된 구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이다. 출애굽기 39장에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이 구절이 무려 10번이나 쓰였다. 32-33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 왔다”고 했고, 42-4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고 하였다.

성막제작의 핵심사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just as the LORD had commanded) 행하고 이루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장점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신 6:5) 문자적으로 지키려하는데 있다. 토라의 613개의 계명들뿐 아니라, 계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랍비

들이 만든 수많은 울타리 법들까지 성심을 다해서 지키려한다. 그러나 단점은 하나님의 계명들의 근본취지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데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내적인 것, 영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 문자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치우쳤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신약성경 저자들이다. 그들이 새롭게 이해한 것은 지상 가나안땅이 하늘 가나안땅의 그림자라는 것, 지상 가나안땅은 옛 언약이요, 하늘 가나안땅은 새 언약이라는 것, 지상 성막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라는 것, 지상 성막은 일시적이요, 하늘 성전은 영원하다는 것, 또 구약성경성막은 신약성경교회의 예표요, 모형이며, 그림자란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실패한 길을 걷고 있다. 공리주의적 성공주의에 빠져서 신약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이해했던 방식대로 이해하지 않고,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했던 방식대로 해석하지 않고, 유대교의 랍비들이 유대교에 했던 것처럼 기독교에 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구약성경교회로 또는 유대교적기독교에 치우쳐 있다. 공리주의적 성공주의와 유대교적 권위주의에 빠져서 신약성경교회의 사도전통을 멋대로 왜곡시키고 있다. 기독교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민(특권)의식과 교조주의에 매어 자만과 자기우상숭배로 인해서 응보를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므로 사도전통인 신약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실천하여 기독교의 본래성과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할 것이다.

26. 바울의 빌립보 선교(1)(행 16:6-18)

마케도니아 빌립보



바울의 빌립보 입성(제2차 선교여행)

빌립보교회는 바울이 그리스에 세운 첫 번째 교회이다.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제2차 선교여행 때 바울 일행은 오늘날의 터키 북서항인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알렉산더가 동방원정 때 건넜던 다

르다넬스해협 남쪽 초입에 있는 해발 1,650M의 높은 산봉우리를 가진 사모드라게 섬으로 직행하여 이튿날 마케도니아의 남동항인 네아폴리(Neapolis)에 도착하였다. 복음으로 무장한 강력한 진군이였다.

터키 북서항인 트로아에서 사모드라게 섬까지 약 112KM 정도, 또 사모드라게 섬에서 마케도니아 남동항인 네아폴리까지 112KM 정도이다. '네아폴리'는 네오폴리스(Neapolis) 즉 신도시라는 뜻이다. 빌립보에서 16KM 정도 떨어진 항구로써 오늘날의 이름은 '카발라'(Kavala)이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까지는

주전 146-120년 사이에 건설된 ‘에그나티아 대로’(Via Egnatia)가 통과하고 있었다. 에그나티아 대로는 알바니아의 아드리아해변에서 터키의 비잔티움까지 연결되는 총길이가 최소 784KM에서 최고 1,120KM나 되는 긴 군사도로였다. 바울의 전도팀 일행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이용한 도로였다.

빌립보는 주전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이며, 금광이 있었다. 주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그로 인해서 카이사르의 조카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심복부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마르쿠스 브루투스와 브루투스의 매제이자 주동자였던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의 군대를 추격하여 주전 42년 빌립보 평원에서 무찔렸다.

이 빌립보전투 직후에 로마시민권을 받았을 안토니우스의 퇴역군인들이 빌립보에 정착하였고, 주전 31년 악티움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군의 군대를 무찌른 아우구스투스의 퇴역군인들도 이곳에 정착하였다. 주전 29년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 즉위한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에 ‘이우스 이탈리아쿰’(jus italicum) 곧 ‘이탈리아의 권리’(이탈리아에 적용되는 동등한 권리)라는 특권을 부여하였고, 자신의 딸을 기념하여 ‘아우구스타 율리아의 정착지 빌립보’(Colonia Augusta Julia Philippensis)라는 이름을 수여하였다.

### 빌립보의 루디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 유대인들이 회당기도회를 가지려면 가장의 숫자가 열 명이 넘어야 했다. 주후 49년에 로마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사실이 있었다. 크레스투스(Chrestus)라는 사람이 일으킨 소동 때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사회에서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소요가 있었던 것이다. 황제의 칙령은 ‘이탈리아의 권리’를 가진 빌립보에도 그대로 적용



브루투스가 그의 조상이자 로마공화정을 창립한 L. Junius Brutus를 기념하여 발행한 데나리온. 공화정파였던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자신의 매제인 카시우스와 마찬가지로 율리우스 시저의 독재를 막고자 하였다. 전면에 자유의 여신 리베르타스(Libertas)를 새겼고, 뒷면에 로마공화정을 사랑한 브루투스(BRVTVS) 가문을 새겼다.



브루투스가 주도한 자유쟁취를 묘사한 주화 전면에 맨 머리에 수염을 짧게 기른 브루투스를 새겼고 L. PLAET [orius] CEST[ianus] BRVT IMP(주화 발행자 브루투스 황제) 라고 새겼고 뒷면에 두 자루의 만도와 그 사이에 자유의 모자(Pileus)를 새겼으며 그 밑에 EID[ibus] MAR[tiis] 곧 3월 15일 (the ides of March)이라고 새겼다.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와 레티쿠스 스피네테르가 주전 42년에 공동으로 발행한 데나리온. 독재자 율리우스 시저 살해 후 얻은 자유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면에 관을 쓴 자유의 여신 리베르타스(Libertas)를 새겼고, 뒷면에 제사도구인 주전자와 사제의 지팡이를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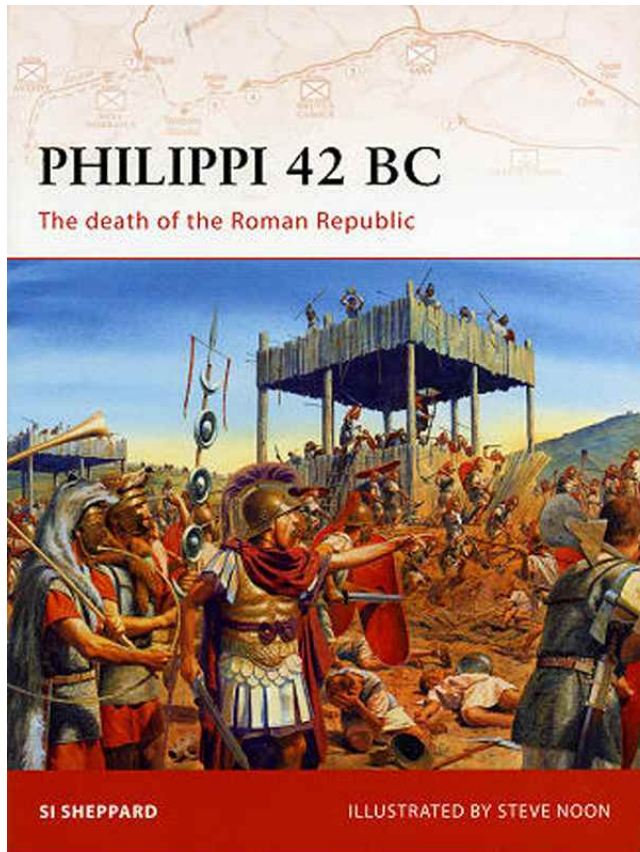
되어 바울 일행이 도착하기 1-2년 전에 이 도시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모두 추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하여 며칠 머무는 동안 성내를 둘러보며 유대인교들의 회당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들이 안식일에 유대교인들의 기도처가 혹시 성문 밖에 있을까하여 강가로 나간 것은 성내에는 회당 건물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바울 일행은 성문 밖 강가에서 유대교기도처를 발견하였고, 기도처



에는 하나님 경외자들인 헬라인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 바울 일행은 자리에 앉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가 있었다. 루디아는 터키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고관대작들이 착용했던 자색옷감을 무역하는 상인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의 개종자였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드리게 하셨다. 그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셨다.

### 빌립보의 노예 소녀



바울 일행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는 노예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

‘로마 공화정의 사망’이란 부제가 달린 <빌립보 주전 42년>

하고 있다”고 외쳤다. 이런 일이 여러 날 지속되자, 바울은 그 여자의 몸에 붙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내쫓아버렸다. 이 사건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노예 소녀는 신체적으로도 노예였지만, 영적으로도 노예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몸에 붙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낸 것은 3만여 명이 넘는 그리스로마의 신들과의 전투이자 승리였다.

둘째, 귀신이 소리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는 말은 전혀 틀린 것이 아니었으나 바울 일행의 신분을 노출시킴으로써 전도를 휘방하는 동시에 위해(危害)를 가하려는 것이었다.

셋째, 귀신의 집요한 공격이 주효하여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어 태형을 맞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다. 누가와 디모데는 헬라인이어서 태형과 투옥을 면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은 전투에서의 아군의 손실에 비유될 수 있다. 이긴 싸움이든 진 싸움이든, 싸움에는 항상 피해가 따르기 마련이다. 싸움을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피해도 피할 수 없다.

넷째, 바울 일행에게 위기를 몰고 온 귀신의 공격이 꺾이자 노예 소녀는 귀신에게서 놓임을 받았고, 빌립보교회의 창립멤버가 되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된 것이다.

다섯째,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예언의 영에 사로잡힌 노예 소녀를 만난 것은 우상과 신화의 나라 그리스에 입성했다는 뜻이고, 3만이 넘는 신들과의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 27. 바울의 빌립보 선교(2)(행 16:19-34)

### 왕뱀 뱀뿔과 사탄



왕뱀 뱀뿔에 점신한 델포이 신탁소의 제니(여사제)  
본래 예언의 영인 왕뱀 뱀뿔의 복인 뱀티아로서  
귀신 들러 점을 쳤던 빌립보의 노예 소녀도 뱀뿔 영에  
점신받았던 제니였다(행 16:16-18).

노예 소녀에 붙었던 영은 왕뱀 뱀뿔(Python)이었다. 그리스신화에는 예언과 치유와 관련된 왕뱀이야기가 있다. 이와 관련된 장소가 세계의 배꼽(움팔로스)이라고 믿었던 델포이었다. 델포이는 주후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파르나소스 산 남쪽 기슭에 있었다. 델포이의 직전 지명은 뱀뿔이었다. 신화에 따르면, 이곳에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의 신탁소가 있었고, 가이아는 정자 없는 처녀임신으로 아들 뱀뿔, 일명 왕뱀을 낳아 이 신탁소를 책임지게 하였다. 한편 여신 레토

는 제우스의 씨를 받아 이란성 쌍둥이인 궁수의 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았는데, 아폴론은 출생과 동시에 뱀뿔을 활로 쏘서 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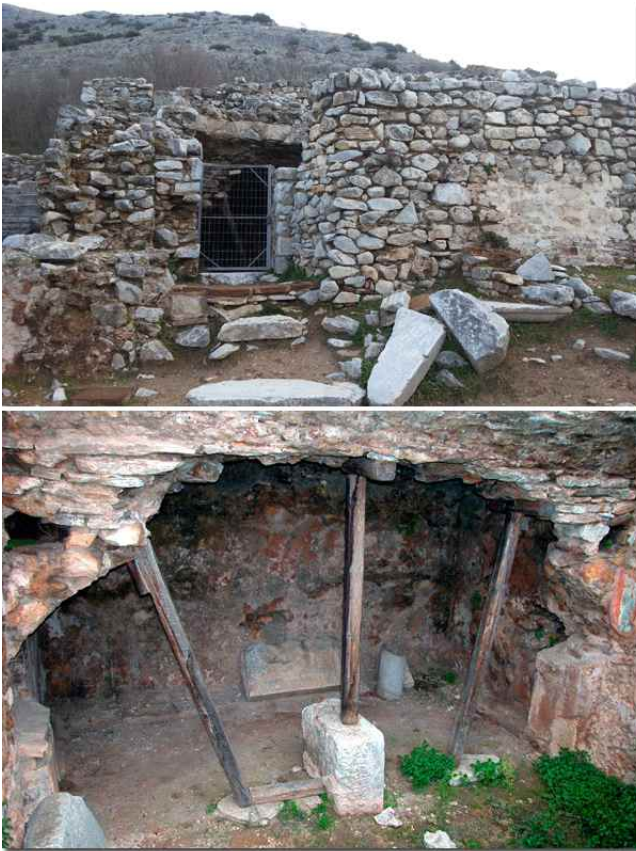
이고 신탁소를 장악하였다. 그리고 퀴톤의 아내인 퀴티아를 사람으로 만들어 신탁소의 제니(여사제)로 삼아 자신이 맡겨놓은 예언(신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델포이의 제니 퀴티아를 통해서 신의 뜻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뱀이 인간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었던 셈이다.

바울과 귀신의 대결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의 거짓 3만여 신들과의 대결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델포이 신전 입구 상인방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의미심장한 말이 새겨져 있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신들 앞에서 오만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왕뱀의 영을 몰아낸 바울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세운 것에 비교될 수 있다. 모세와 바울이 행한 일들은 모두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었다. 뱀은 약도 주고 병도 준다는 것이 당대의 생각이었다. 뱀한테서 예언의 능력을 받았던 고린도의 풀뤼이도스는 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다른 뱀이 물어다 준 약초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신화가 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들에게 물려서 죽어갔다. 그 때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세워서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뱀뱀을 보면 살게 하였다. 뱀이 병도 주고 약도 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기도와 산송의 능력

그리스신화에서 뱀이 예언과 치유의 상징인 것에 반해서, 성경에서 뱀은 하나님의 일, 살림의 일, 빛의 일, 질서의 일, 생명의 일에 반대되는 죽임의 일, 어둠의 일, 혼돈의 일, 죽음의 일을 하는 사탄과 마귀로 상징된다. 노예 소녀의 주인들은 왕뱀의 영이 패배함으로써 수입원이 사라진 것을 원통히 여기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무리와 함께 관가로 데려가 소란을 피우며 고소하였다. 이에 빌립보의 상관들이 태형을 집행하는 릭토르(licitor)에게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 후에 옥에 가두게 하였다. 바울은 제1차 선교지에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매를 맞았지만, 이방인에게 매를 맞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유대인들은 39대



51년경에 바울과 실라가 간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빌립보의 토굴 감옥

까지만 곤장을 치지만, 이방인들은 매질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로마인들은 죄인들의 두발을 찢어지도록 넓게 벌려 차꼬를 채워 토굴 같은 감옥에 가뒀다.

옥중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야 정신을 수습하였는지, 그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시작하였다. 죄도 없이

심한 매를 맞고 차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것이 적을 무찌르는 강력한 무기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비밀병기였다. 실제로 기도와 찬송은 지진을 일으켜 옥터를 움직였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차꼬가 저절로 풀리게 하였다. 또 기도와 찬송은 자결하려던 간수의 육체의 목숨을 살려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루디아와 노예 소녀가 침례를 받았던 간지테스(Gangites) 강에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였고, 빌립보교회의 창립멤버가 되게 하였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태형을 맞고 감옥에

간힌 위기를 통해서 주어졌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기도와 찬송에 있었다.

위기가 기회가 되다



루디아가 침례를 받았던 장소. 루디아기념교회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인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마음만 먹으면, 굳이 겪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쓰지 않았고, 그 결과 간수의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교회가 강가에 있는 루디아의 집에 세워졌다. 창립멤버들로는 루디아의 가족, 노예 소녀, 간수 가족으로 이뤄졌다. 그들은 극심한 환란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힘에 넘치도록 바울의 선교를 지원하였다(고후 8:1-5). 산고가 컸던 만큼 건강한 옥동자를 보았던 것이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태장을 맞고 초죽음이 되어 감옥에 갇혔고, 한밤중이 돼서야 정신을 수습하였다. 그들은 차꼬에 묶인 채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 기도와 찬송은 아픔과 두려움을 잊게 하고,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후일 바울이 형편에 지나도록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감옥에 갇힌 자기를 위해 마음을 써준 빌립보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기쁨이란 말이 들어간 단어가 16번이나 사용되고 있다. 빌립보에서 태장을 맞고 감옥

에 갇혔을 때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조차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은 또 다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쁨을, 그것도 16번이나, 입에 올린 것이다. 바울은 기쁨을 명예나 권세나 재물에서 찾지 않고, 주 안에서 찾았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서 찾았다. 그의 기쁨은 철저히 이타에서 비롯되었다. 이타가 그로 하여금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였고, 모든 위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였으며,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힌 원통함을 마음에 담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 희망을 찾는 데서 솟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였다.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마케도니아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잇대어졌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구제와 선교에 있어서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 그들의 믿음은 바울의 믿음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믿음이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믿음이었으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믿음이었고,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 후하게 베푸는 역설적인 믿음이었다.



## 28. 빌립보 교회(1)(빌 1:1)

감사, 그 역설적인 표현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바울이 트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에 첫발을 내딛는 모습 빌립보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건너가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운 곳이며, 바울 일행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부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최초의 장소이다. 마게도냐는 칼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은 복음으로 온 유럽을 정복할 비전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점치는 노예소녀와 감옥을 지키는 간수 가족으로 시작된 교회로써 몹시 가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충만했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했다. 이런 사실은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했고 풍성한 연보로 선교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기독교인의 감사가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이며, 바울이 옥중에서 부른 감사의 노래이다. 바울은 이 편지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뿐 아니라, 자신의 투옥이 결단코 복음의 퇴보가 아님을 알리고, 선교헌금을 가져다 준 에바브로디도를 되돌려 보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기쁨'에 관한 단어를 열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였다. 이 편지가 감옥에서 기록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역설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 감독들과 집사들(1)

바울은 3차 선교를 마치고 선교보고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치하여 고별설교를 행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은 첫째로 자신이 겸손과 눈물로 시련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었고, 둘째로 자신이 범사에 모본을 보인 것처럼 양떼의 감독과 목양에 최선을 다 할 것과 위험에 대비하여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온 양떼 가운데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말을 남겼는데, 장로의 기능이 감독과 목양이란 점을 밝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중앙)와 수행신하들(황제 우측, 좌측)이  
 황제가 양손으로 성체(주의 만찬을 위한 빵) 그릇을 받쳐 들고 있다.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근위병들과  
 그리스도의  
 약자  
 기호(XP)를  
 새긴  
 방패



오른 손에  
 십자가를  
 쥔  
 막시미아누스  
 감독과  
 복음서와  
 향그릇을  
 들고 있는  
 사제들

이탈리아 라벤나의 성 비탈레 성당(Basilica of San Vitale)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1세와  
 감독 막시미아누스(Maximianus)의 모자이크(547년경).  
 라벤나(Ravenna)는 402년부터 476년까지 서로마제국의 수도였다.

힌 것이  
 다. 감  
 독자와  
 목양자  
 는 목사  
 를 지칭  
 하는 말  
 이므로  
 밀레도  
 에 집결  
 한 에베  
 소 교회  
 의 장로

들은 불박이 목사들이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목사의 호칭은 장로(elder, presbyter)에서 사제(priest)로 바뀌었고, 종교개혁 때 개신교에서 목양자(pastor, feeder of the sheep)로 다시 바뀌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를 목사(엡 4:11)로 번역하였다. 또 가톨릭사제로서 칼뱅의 영향을 받고 개신교로 개종한 스코틀랜드인 존 녹스가 목사장로와는 별개의 평신도 장로 곧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뽑아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대 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목사와 장로의 기능과 역할에 혼선과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 성서적 역사적 측면에서 장로직의 변천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유대교 회당에서는 물론이고 신약성서에서조차 장로들은 회중이 선출한 목양권과 감독권을 갖는 불박이 목회자들이었다(20:28, 딤후 5:17, 약 5:14). 그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했다(딤후 3:2, 12, 딤후 1:6). 선교지에서 그들을 장립한 것은 바울, 바나바, 디도와 같은 떠돌이 전도자들이었다(14:23, 딤후 1:5).

둘째, 디모테의 경우에서 보듯이, 떠돌이 전도자들은 장로회로부터 안수를 받았다(딤후 4:14, 행 13:3 참고). 그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를 세웠으나, 대체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들

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기 때문에 바울처럼 결혼을 포기한 자들이 있었다(고전 7:8).

### 감독들과 집사들(2)



이탈리아 라벤나의 성 비탈레 성당(Basilica of San Vitale)의 감독 막시미아누스(Maximianus, 499-556년)가 사모한 상의자. 라벤나(Ravenna)는 402년부터 476년까지 서로마제국의 수도였다.

셋째, 역사적으로 가톨릭교회의 경우 장로는 부제(집사, 사제서품 1년 전에 서품), 사제(장로, 학석 사교육 7년 플러스 병역 또는 봉사 3년 후 서품), 주교(감독, 교구장), 대주교(대교구장), 추기경, 교황으로 계급화 되었다. 장로가 사제로 바뀐 것은 가톨릭미사가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제사예배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개신교에서 사제 개념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마르틴 루터의 만인사제설(벤허전 2:9)과 존 녹스가 평신도 장로대의제를 도입한 때부터였다.

다섯째, 개신교에서 목사(목회자)와 장로의 기능과 역할을 놓고 논쟁이 불붙은 것은 1840년대 미국의 변방교회들에서였다. 이때 신학과 목회훈련을 받고 회중에게 초빙되어 정착한 유급 전담 전도자(설교자, 목회자)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가톨릭과 같은 전통교회들은 신학과 사목훈련을 받은 자들을 사제(장로)로 서품하여 지역교회에 목회자로 파송할 뿐 아니라, 평

신도 장로들을 뽑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에서와 같은 논쟁이 없다. 집사는 성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치리자가 아니라 회중과 장로들을 돕는 봉사자들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

여섯째, 초빙되어 정착한 유급 전담 목회자가 장로인가 혹은 장로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하는 전도자인가라는 논의가 1890년대에 미국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목회자는 장로들의 부름을 받고 그들의 엄격한 감독아래서 교회를 섬기는 주재(駐在) 전도자라는 주장과 목회자는 교회의 주도적인 장로요, 여러 장로들과 동등하지만 첫째(당회장)라는 주장이 맞섰다. 미국의 경우, 교단에 따라서는 장로를 목사보다 우위에 혹은 목사를 장로보다 우위에 두기도 하며, 그 중간에 두기도 한다. 목회자 호칭은 장로가 우위인 경우 전도자(evangelist), 목회자가 우위인 경우 목사(pastor), 그 중간인 경우 목회자(minister), 설교자(preacher), 전도자 혹은 드물게 목사로 불린다.

성서에서 말하는 전도자는 한국에서의 전도사보다 상위개념이다. 초대교회 당시 전도자는 사도, 선지자, 교사와 같은 떠돌이 전도자를 말하였다.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을 주업으로 하는 떠돌이 전도자들은 지역교회에서 감독과 목양을 주업으로 하는 불박이 목회자인 장로들과 역할과 기능면에서 구별되었다. 오늘날의 감독제도는 교회성장에 따른 조직의 산물이다.

## 29. 빌립보 교회(2)(빌 1:2-11)

### 은혜와 평강



‘은혜(charis)와 평강(eirene)’을 디자인한 셔츠.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수 안쪽에 ‘그분의 임재’(His-P[re]sence)라고 썼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데살로니가서의 인사말과 대동소이하다. 차이점은 빌립보서에 데살로니가서에는 없는 “종”(노예)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이다. 이 차이는 데살로니가서와 빌립보서가 10년 이상의 간격차를 두고 기록된 데서 생긴 것이다. 주후 51년경에 데살로니가서가 기록되고 나서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님의 노예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었고, 교회마다 감독(장로)과 집사들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독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말이다. 하나님의 은혜

빌립보서 1장 1-2절의 인사말, “그리스도 예수와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는 평강을 누리는 근원이고,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고, 평강은 구원의 결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4:7)에서 비롯된다.

바울이 인사말에서 자주 사용한 “은혜와 평강”은 헬라인들이 잘 쓰지 않았던 표현이다. “은혜”(charis)는 헬라인들의 편지에서 발견되는 인사말이고, “평강”(eirene)는 유대인들의 인사말인 ‘shalom’에 해당된다. shalom은 평화, 성장과 번영,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뜻하며,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축복을 기원하는 말이다. “은혜와 평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shalom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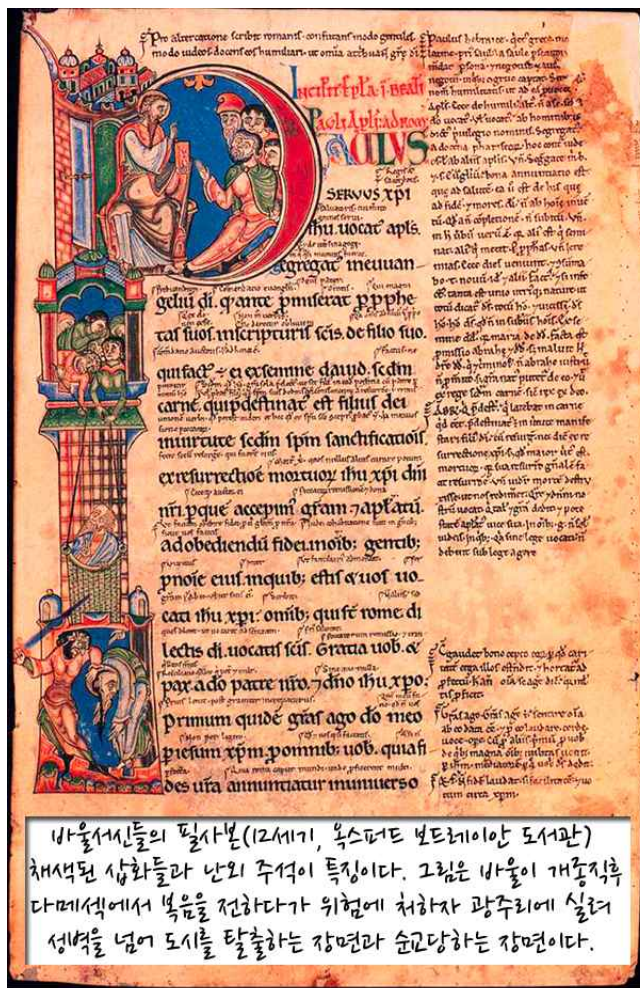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기민족의 신(神)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참 신(神)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진 유대인뿐 아니라, 탕자적인 이방인에게까지 아버지가 되신다고 확신하였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칭하였다.

### 감사와 기쁨

바울이 빌립보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3-4절)한 이유는 빌립보인들의 “착한 일”(6절) 때문이었다. 그 착한 일이란 빌립보 교회 창립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5절) 있는 것이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6절)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들의 착한 일을 지속시켜나가고 끝내는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6절).

바울이 빌립보인들을 7절에서 이런 식의 생각으로 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다고 말한 이유는 빌립보인들이 바울이 “간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할 때에” 바울 자신과 “함께 은총을 나누





바울서신들의 필사본(12세기, 옥스퍼드 보트리이안 도서관) 채색된 삽화들과 난외 주석이 특징이다. 그림은 바울이 개종직후 마케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처하자 광주리에 실려 성벽을 넘어 도시를 탈출하는 장면과 순교당하는 장면이다.

어 받으며 고생을 같이 해온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공동번역)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가졌을 동일한 심정과 애정으로 빌립보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8절)고 하였다.

빌립보인들은 비록 가난하였고, 환난

을 겪고 있었지만, 바울의 선교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몸으로, 헌금으로, 믿음으로 동참하였다. 바울의 사역이 빌립보인들의 사역이었고, 빌립보인들의 사역이 곧 바울의 사역이었다. 이처럼 바울과 빌립보인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에 매진하였다. 옥중에서의 바울의 넘치는 감사와 충만한 기쁨은 빌립보인들한테서 비롯된 것이었다. 빌립보인들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실천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바울이 빌립보인들을 극진히 사랑한 이유도 빌립보인들이 바울을 극진히 사랑

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처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은 피차 상대방을 이용수단으로 삼지 않고, 섬김의 목적으로 삼은 데서 비롯되었다.

### 기도와 간구



채색 삽화들을 담은 중세기 필사본  
그림의 인물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이다.

출만큼 만족한 것이었다. 빌립보인들은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에도 헌금을 넘치게”(고후 8:2) 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이 그들의 풍성한 사랑의 수고에 더해서 지식과 총명이 더욱 깊고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깊고 풍성한 지식과 총명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옳고 그름과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게 하고, 가치의 차이를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과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가치의 차이를 알며, 옳고 정의로운 일을 택하여 실천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을”(10절) 맞이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본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빌립보인들의 풍성한 사랑의 수고는 넘치는 감사와 충만한 기쁨이 되기에 충분히 만족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립보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와 간구는 9-11절에 잘 나타나 있다. 빌립보인들의 풍성한 사랑의 수고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넘치는 감사와 충만한 기쁨을



빌립보인들의 윤리적인 삶이 정의로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단계에 까지 발전되기를 바랐다. 빌립보인들의 풍성한 사랑이 옳고 정의로운 단계에까지 발전되기를 바랐다.

바울이 9절에서 언급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윤리적인 지식을 말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의 바다에서 살아간다. 지식을 전달하거나 퍼 나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속인본주의자, 무신론자, 진화론자, 도덕률폐기론자, 공리주의자, 실용주의자, 상황윤리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가 있고, 무조건적, 상충적, 차등적 절대주의자도 있으며, 국수주의자, 평화주의자,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가 있어서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판단하거나 사람들을 설득한다.

총명은 바로 이런 윤리적 가치가 충돌할 때,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위협에 처한 산모와 태아 가운데 누구를 살려야하는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집총을 해야 하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 사형 제도를 존치해야 하는가와 같은 윤리적 가치가 충돌할 때, 또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살의를 품은 자에게 그가 찾는 사람의 숨은 곳을 솔직히 말해야 하는가, 적군에게 아군의 위치를 정직히 말해야하는가, 강도에게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야하는가와 같은 윤리적 가치가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통찰력을 말한다.

30. 빌립보 교회(3)(빌 1:12-30)

위기는 곧 기회



비잔틴시대의 대표적인 그리스도그림: 예수 그리스도 승리와 유대당국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고, 게다가 로마 총독이 자신을 풀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네로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이송되어 재판이 열릴 때까지 또 다시 2년 가까운 기간을 미결수로서 셋집에 갇히게 된 상황을 빌립보인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어떤 이들은 바울이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한 예수님이 “주와 하나님”(Dominus et Deus)으로 선포한 카이사르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품었다. 이에 바울은 진정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인 자신이 “주와 하나님”으로 자칭하는 로마황제의 병사들에 의해 수감되어 있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위한 발판임을 빌립보인들에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친 후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해 거금을 가지고 고린도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한 주후 58년 오순절 무렵에 성전에 있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로마군에 체포되어 유대총독부에 2년간이나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었다. 로마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총독이 자신을 처형시켜달라는

게 알고하고자 하였다. 또 바울은 자신의 오랜 수감생활이 복음전파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자신의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에 진전이 있었음을 알고하고자 하였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가 바로 그런 뜻이다.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은 옥에 갇힌 것을 뜻하며, 그 일이 복음전파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성도들의 우려와는 달리 “도리어 복음전파에 진전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진전’은 공병대가 길을 개척함으로써 군대가 원활히 전진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로써 바울은 자신의 수감생활이 그 같은 결과를 가져왔음을 확신하였다. 로마제국은 바울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까지 그와 함께 가두지 못하였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인간에게 묶이지 않으시며 실패와 오류가 없으시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수감된 것이지, 그 어떤 범법 행위 때문에 수감된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13절에서 그 같은 사실, 곧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밝혔다. 게다가 14절,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의 수감생활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상이한 상황인식과 판단

바울은 주후 57년 말 58년 초 겨울에 ‘복음의 진수’를 담은 로마서를 작성하여 인편으로 보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 셋집에 수감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로마서 회람을 끝낸 상황이었다. 그들이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따라서 바울에 대한 태도가 달랐을 것이다.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로마교회를 시작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바울이 58년 초여름부터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산 로렌초 성당(San Lorenzo in Miranda)

포로 로마노(Forum Romanum)에 있으며, 본래 안토니누스 피우스(Antoninus Pius, 86-161)와 파우스티나(Faustina) 황제 부부를 위한 신전이었으나 주후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로 사용되었다. 그리스도가 카이사르를 굴복시켰음을 보여준 유적이다.

알고 있었고, 그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다. 만일 그들이 로마서를 읽고, 그 뜻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바울의 수감생활이 매우 억울하고 부당할 뿐 아니라, 그로인해서 별써 수년째 바울이 선교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

목했을 것이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에 공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15절)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16절)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공개재판을 통한 바울의 변증이 기독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이들은 바울의 편에 서서 복음을 힘써 전파하였다.

반면에 “투기와 분쟁으로”(15절) 복음을 전파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바울의 수감생활과 공개재판이 가져올지도 모를 부정적 영향에 촉각을 세운 사람들이었다. 당대에 유대교는

합법종교였지만, 기독교는 불법종교였다. 지난 30여 년간 기독교는 합법종교였던 유대교에 편승하여 세력을 펼쳐나가고 있었고, 실제로도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 안전장치가 자칫 사라질 판이었다. 만일 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기독교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바울의 반대편에 서서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17절).

### 상이한 상황인식과 판단에 대한 바울의 태도



네가모 교회(터키 소아시아) 유적  
 본래 세라피스를 위한 신전이었으나 주후 392년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오스만제국 직전까지 교회로 사용되었다.  
 참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방신들을 굴복시켰음을 보여준 유적이다.

이처럼 상이한 상황인식과 판단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착한 마음으로 하든지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사랑으로 하든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하든지, 겉치레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18절)고 하였다. 이어서 바울은 19절 이하에서 자신이 왜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 기뻐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나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한 자들 모두가 복음을 이롭게 하려는 자들이었고, 기독교를 변호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점에서 같았기 때문에 기

빠할 수 있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욕을 부당한 곤경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의로움을 입증하셨듯이, 바울은 자신을 곤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의 정당성과 복음의 타당성을 입증해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 바울은 욕기 13장 15-16절(바른),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 그 분 앞에 내 행위를 변호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에 근거하여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다. 따라서 바울은 19절에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말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하였다.

셋째, 바울은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요긴한 깨끗한 복음의 걸레, 이를 위해서 생사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굳건한 믿음의 버팀목, 이 일에 본을 보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 바울의 신념은 확고하였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이 거들 열매는 오로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20절)이고,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거리가 풍성하여 지는 것”(25-26절)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자신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27-30절)고 권면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치된 마음으로 복음의 내용을 사수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겁먹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은 자들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특권일 뿐 아니라, 그 나라를 목숨 바쳐 지켜야하는 특권이라고 하였다(29절).



### 3. 한 문처럼 행진하는 교회(1)(빌 2:1-4)

####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권면(paraklesis)

빌립보서 2장 1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에서 “권면”은 헬라어 ‘파라클레시스’(paraklesis)를 번역한 말이다. 이 말은 신약 성서에 총 29회 사용되었는데, ‘위로’(consolation)의 뜻으로 14회, ‘권고’(exhortation)의 뜻으로 8회, ‘위안’(comfort)의 뜻으로 6회, ‘간청’(entreaty)의 뜻으로 1회 번역되었다.



그리스 우표(1937년경 발행)

사도 바울이 주후 52년경에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모습

사도 요한은 ‘파라클레시스’와 어원이 같은 ‘파라클레토스’(parakletos)란 단어를 총 다섯 번(요 14:16, 26, 15:26, 16:7, 요일 2:1) 썼는데, 한글성경에서는 ‘보혜사’(개역개정,

표준새번역), ‘협조자’(공동번역), ‘보호자’(가톨릭성경), ‘대언자’(개역개정), ‘변호자’(바른)로, 영어성경에서는 ‘위로자’(KJV), ‘상담자’(NIV), ‘돕는 자’(NKJV, NASB), ‘옹호자’(TNIV, NRSV) 등으로 번역되었다. ‘권면’으로 번역된 ‘파라클레시스’와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parakletos)는 모두 동사 ‘권면하다’와 ‘위로하다’로 번역되는 ‘파라칼레오’(parakaleo)에서 나온 명사들이다. ‘파

라칼레오’는 문자적으로 ‘곁으로(para) 부르다(kaleo)’는 뜻이다. 누군가를 곁으로 부르는 사람은 부름 받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인물이고,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인물이다.

권면의 목적은 협조자,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옹호자 등이 도움을 받는 이에게 “알아듣도록 권(exhort)하고 격려(encourage)하여 힘쓰게(exert oneself for) 하고,” 충고가 섞인 위로의 말로 권위(勸慰)하여 안정을 찾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권면의 목표는 권면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있다. 권면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과 설교가 가장 대표적이다. 성경은 이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글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와 회복을 선포하고, 신실한 믿음과 인내를 촉구한다. 권면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한다. 올바른 권면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보여준 본을 따라 자기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 낮춤과 동일시에서 행하는 권면,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권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권면, 어둠이 빛 되고 혼돈이 안정 되며 죽음이 생명 되게 하는 권면이다.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권면은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려내 결과적으로 구원에 도달하게 한다.

###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푸는 위로(paramythion)

“사랑의 무슨 위로나”에서 “위로”는 헬라어 ‘파라뮈디온’(paramythion)을 번역한 말이다. ‘파라뮈디온’은 헬라어 동사 ‘위로하다,’ ‘권고하다,’ ‘편안하게 하다’로 번역되는 ‘파라뮈테오마이’(paramytheomai)에서 나온 명사이다. ‘파라뮈테오마이’는 문자적으로 ‘곁에서(para) 말하다(mytheomai)’ 또는 ‘누군가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말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파생된 의미가 ‘권고하다’(admonish)와 ‘위로하다’(console)이다. 여기서 ‘권고하다’는 촉구하다, 격려하다,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등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 또 ‘위로하다’는 응원하다, 기운 나게 하다, 누그러뜨리다, 해결하



사도 바울을 그린 그리스 우표(1951년)

다, 진정시키  
다, 만족시키  
다, 보상하다  
등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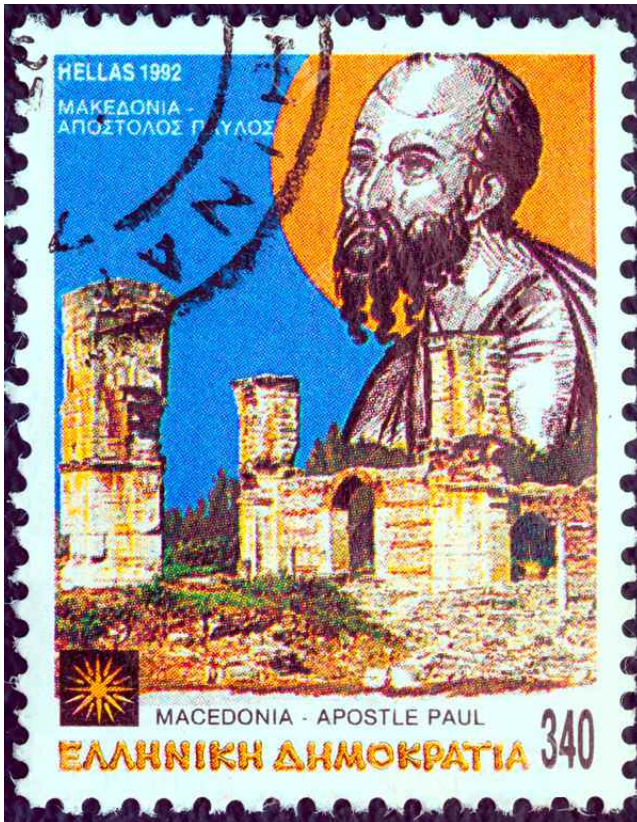
‘권면’으로  
번역된 ‘파라클레시스’와 “위  
로”로 번역된  
‘파라뮈디온’이  
모두 권고와 위  
로의 뜻을 함축  
하고 있기 때문  
에 차이점을 찾  
기가 쉽지 않  
다. 하지만, 본  
문에서 ‘권면’  
이 ‘위로’보다  
먼저 언급된 것  
에서 보듯이,  
동사 자체로만  
보면, ‘권고하

다’와 ‘위로하다’로 번역되는 ‘파라뮈테오마이’가 ‘권면하다’와 ‘위로하다’로 번역되는 ‘파라칼레오’의 보조적인 동사이다. 게다가 ‘권면하다’와 ‘위로하다’로 번역되는 ‘파라칼레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나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에서 오는 위로에 쓰인 반면에 ‘권고하다’와 ‘위로하다’로 번역되는 ‘파라뮈테오마이’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이뤄지는 사랑의 위로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나누는 위로에 쓰였다. 이런 몇 가지 차이점들을 감안해볼 때, 개정개역성경에서 ‘권면’으로 번역된 ‘파라클레시스’(paraklesis)가 ‘위로’로 번역된 ‘파라뮈디온’보다는 훨씬 더 중요

한 명사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본문에서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말한 것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위로, 곧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나누는 위로(comfort from his love, NIV)를 뜻한 것이다.

**성령의 교제(koinonia)와 공출(sphlangchnon)과 자비(oiktirimos)**

“성령의 무슨 교제”에서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koinonia)는 ‘~를 공유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교제가 소유격으



그리스 우표(1992년 발행)  
사도 바울과 빌립보의 바실리카식 교회당 유적지 사진을 담았다.

로 성령님에게 묶일 때는 성령님이 주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교제를 뜻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뜻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예표는 구름기둥에 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넌 후 광야생활에 접어들었을 때부

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구름기둥을 성령님의 모

형과 그림자로 보았다. 히브리인들은 구름기둥이 움직이거나 정지하는 행동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였고, 구름기둥이 정지하는 곳에서 행진을 멈추고 텐트를 쳤으며,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정리한 후 행진에 나섰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후 교회생활에 들어선 때로부터 그들을 하늘 가나안땅에 인도하여 드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신”(고전 12:13) 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각각의 역할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하면서 하늘 가나안땅에 행진하는 행위를 일컬어 성령님의 교제라고 말하였다.

“공홀과 자비”에서 ‘공홀’로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크논’(sphlangchnon)은 ‘심장’, ‘마음’, ‘사랑’을 뜻하고, ‘자비’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크틸모스’(oiktirmos)는 ‘연민’, ‘동정’, ‘불쌍히 여김’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공홀과 자비는 모두 보혜사이신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하고, 그 열매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2-4절) 하늘 가나안땅에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 32. 한 몸처럼 행진하는 교회(2)(빌 2:5-11)

신실한 믿음과 인내로써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



시돈의 왕 압달로니모스(Abdalonymos)의 석관(330BC, 이스탄불) 부케팔로스(뿔)를 탄 알렉산드로스가 이누스(333BC)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공격하는 장면이 부조되어 있다. 알렉산드로스의 머리에 헤라클레스를 상징하는 사자머리 가죽이 부조되었고, 깃바퀴에는 아몬-제우스(Amon-Zeus)를 상징하는 산양뿔이 부조되어 있다. 알렉산드로스와 군마 부케팔로스는 인간과 동물이 신성을 참칭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신”(고전 12:13) 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각자의 역할을 일사분란하게 수행하면서 하늘 가나안땅을 향

해서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행진하는 용사들로 보았다. 이 천로 역정에서 용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신실한 믿음과 인내이다. 이 믿음과 인내를 독려하는 섬김(목회)이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이다. 바울은 이 같은 섬김을 보혜사이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본받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빌 2:2-4절)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믿음과 인내로써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하늘 가나안땅을 향해서 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11절에서 그 유명한 ‘그리스도찬가’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인들보다 앞서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님의 섬김을 본받아 따를 것을 권하였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는 그리스도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었다.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 성삼위 하나님의 섬김(종회): 자기 제한

바울은 6-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사람의 모양”을 대조시켰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람은 죄와 허물이 큰 부족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morphe theou)와 “종의 형체”(morphe doulou)를 대조시켰다. 여기서 “본체”와 “형체”란 말은 내적, 외적, 본질적, 피상적 모습을 모두 아우른 형상을 말하고, “종”은 노예를 뜻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여탈권을 손



마케도니아 트라키아의 수도 루시마케아에서 주조된 4드라크마 은화 (297-282BC). 전면에 관을 쓴 알렉산드르의 머리에 아몬-제우스를 참칭하는 뱀이 새겨져있고 뒷면에 보좌에 앉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오른 손에 날개를 펼친 여신 승리를 물려주고 있으며, 아테나 앞뒤에 "Basileos Lysimachou" (왕 루시마쿠스의)라고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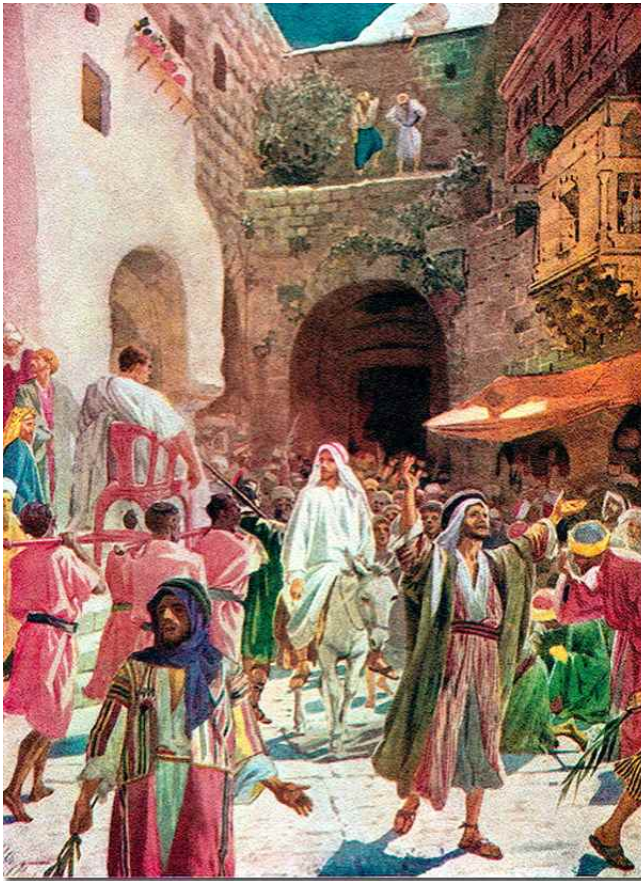
에 권 주인이 시고, 인간은 자기 운명과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같다. 노예에게는 인권도 없고, 그 어떤 결정권도 주어 지지 않는다.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선재(先在)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과 영광을 공유하시고 선험(先驗)하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꼭 붙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여기셨다. 그리스도는 주인으로서 자기 권리와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시고, 자기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처럼 섬기는 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어 굴욕을 당하셨다. 그러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됨과 주인 됨의 권리를 포기하시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란 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가운데서도 최하위계급인 노예와 동등하게 되시려고 하나님 됨과 주인 됨의 권리와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품과 본질 면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내적 본질을 갖고 계셨지만, 그 같은 권리와 자유를 부여잡거나 주장할 것으로 여기시지 않고 내려놓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신 이유는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대속제물(화목제물)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8절).

바울은 그리스도찬가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시어 일사분란하게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지를

설명코자 하였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전 12:13)는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코자 하였다.

**사도 바울의 섬김(목회): 자기 제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장면  
 성육신 곧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을 상징하여 나귀새끼를 타신 예수님과  
 노예들이 어깨에 맨 가마를 탄 로마총독의 모습이 매우 대조적이다.

빌립보서 2장 1-11절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인의 권리와 자유의 제한에 연결되어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고 하였고, 18-19절에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

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자 함이다”고 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님과 사도인 자신을 본 받으라고 권하였고,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일행과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음을 칭찬하였다(살전 1:6). 또 바울은 자신이 매사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빌 3:10)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는 목적을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다”(살후 3:9, 빌 3:17)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님과 사도들을 본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신”(고전 12:13) 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써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빌 2:2-4절) 신실한 믿음과 인내로써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하늘 가나안땅을 향해서 행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님과 사도들처럼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참아내야 하는 까닭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고전 9:12)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님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신 흔적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8절)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9절)고 하였다.

### 33. 한 몸처럼 행진하는 교회(3)(빌 2:12-18)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장 항아리(Amphora)에 그려진 달리기 시합과 술잔(kylix)에 그려진 여신 승리(Nike)와 우승자. 시합에서 이긴 우승자가 월계관을 받아쓰고 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핵심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이다. 여기서 “구원”이란 말에 쓰인 헬라어는 ‘소테리아’(soteria)이다. 이 ‘소테리아’는 영적 구원을 말한 것일 수도 있고, 1-11절에서 강조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권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푸는 위로, 성령의 교제, 공훈과

자비, 신실한 믿음과 인내, 자기 제한과 동일시를 통한 섬김(목회)의 방식으로 한 몸처럼 행진하는 교회가 되라는 뜻일 수도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전인구원, 곧 현재구원과 미래구원,

영혼구원과 육체구원 모두를 의미한다. 현재구원은 영혼구원으로써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영적으로 ‘이미’(already)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과 육체구원을 미래구원으로 약속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미래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믿음과 인내로써 성취해야 할 ‘아직’(not yet) 이루지 못한 육체구원을 말한다. 그것은 마치 히브리인들이 죄의 노예상태를 상징하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침례를 의미하는 홍해를 건넌으로써 현재구원을 ‘이미’ 성취했지만, 미래구원을 뜻하는 가나안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성령님의 상징인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신실한 믿음과 인내로써 행진해야 할 교회생활의 모형과 그림자인 광야생활이 ‘아직’ 40년이나 남아 있었던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바울은 12-1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당부하였다.

####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은 죄의 노예상태를 상징하는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교회생활의 모형과 그림자인 40년 광야생활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구원과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12절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제물을 준비하기 위한 행렬  
사제와 황소와 도살자들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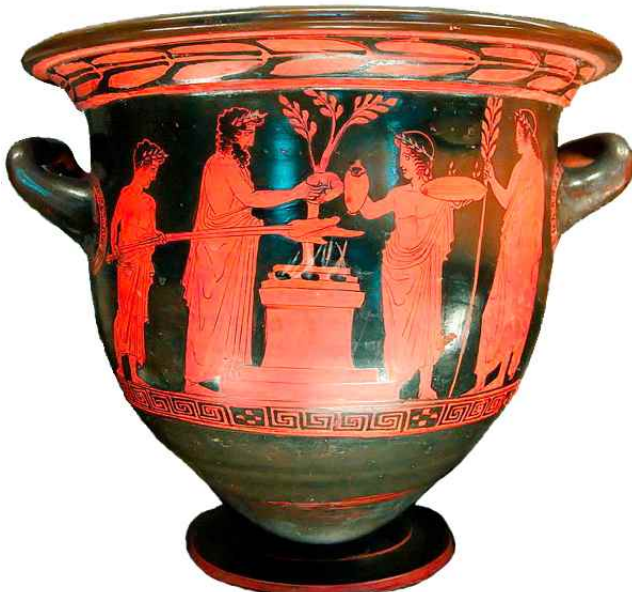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히브리서 3장 8-13절의 권면에 잇대어져 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은 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는 히브리서 3장 15-19절과 4장 1절의 권면에 잇대어져 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과 떠돌이와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에게 가나안땅을 “소원”(희망, Ha-Tikvah)하게 하신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또 14-16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는 “우

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히브리서 3장 14절의 권면에 잇대어져 있다. 그러므로 12-16절은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과 인내’를 강조한 말씀이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포도주에 물을 희석하던 큰 대접(krater)에 그려진 전제. 전제(drink offering)는 제물을 제단에 올려 놓은 후 번제나 화목제를 바치기 전에 제물 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었다(출 29:40-41, 30:9, 레 23:13, 민 15:5).

12-16절에서 강조된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과 인내’는 16-18절에서 “달음질,” “수고,” “믿음의 제물과 섬김,” “전제”라는 단어들로 보충되고 있다. 16-18절,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Drink offering)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예루살렘 성전제사들에 잇대어져 있다.

구약시대에는 다섯 종류의 제사가 있었다.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和睦祭)와 소제(素祭)가 있었고, 의무로 드리는 속죄제(贖罪祭)와 속건제(贖愆祭, 愆=허물)가 있었다. 그리고 번제(燔祭)가 있었

는데, 번제는 단독으로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네 가지와 함께 세트(set)로 자원해서 바치는 제사였다. 모세오경에 따르면, 전제(奠祭)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었다(출 29:40-41, 30:9, 레 23:13, 민 15:5-10). 번제물이 일 년 된 어린 양일 때는 포도주 한 사분의 일(0.9리터)을, 숫양일 때는 삼분의 일(1.2리터), 수송아지일 때는 반 힌(1.8리터)을 부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새해풍년기 원제사 때는 제물에 실로암 연못의 물을 붓기도 하였다.

로마황제 테키우스는 주후 250년에 전 로마제국의 시민들에게 라틴어로 ‘증명서’를 뜻하는 ‘리벨루스’를 발급받으라는 칙령을 발표하였는데, 시민들은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신전에 불려나가 신상들에게 절차를 따라 제물위에 전제를 붓고 향불에 분향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게 한바가 있었다. 이로 볼 때, 전제는 바울시대에 일반적인 제사방법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6-18절에서 언급된 “달음질,” “수고,” “믿음의 제물과 섬김,” “전제”는 모두 희생제사로 상징된 빌립보인들의 희생적 봉사에 전제(奠祭)로 상징된 바울의 순교까지 더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온전한 제사로 상징된 자기 제한과 동일시를 통한 섬김(목회)이 될 것을 의미하였다.

### 34. 한 몸처럼 행진하는 교회(4)(빌 2:19-30)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신령한 신들을 위해 에바브로디도, 황제의 해방노예”라고 쓴 비문 (에피그라피코 박물관, Museo Epigrafico of Rome)  
 D(is) M(anibus) EPAPHRODITUS AVG(usti) LIB(ertis) 바울시대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해방노예로서 네로의 비서관이었으나 네로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미티아누스로부터 처형당하였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빌립보에 보내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본문의 내용을 추정컨대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고, 디모데를

뒤따라 보낸 후에 무죄석방이 이뤄지는 대로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24절)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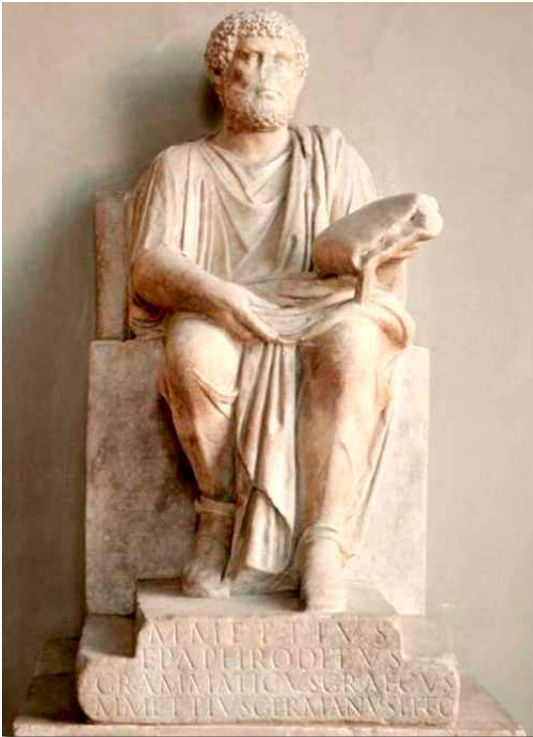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로 보내고자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빌립보교회의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고자”(19절)함이였다. 둘째는 빌립보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바울에게는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이었다(20절). 만일 믿고 신뢰할만한 디모데

가 빌립보교회를 다녀온다면, 바울로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디모데가 돌아와서 빌립보교회의 사정을 보고한다면, 믿고 들을 수 있는 것이어서 큰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빌립보교회로서도 설립자의 한 사람인 디모데로부터 직접 로마에서의 사정을 듣게 된다면, 에바브로디도가 진술한 내용의 확실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됨으로 큰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바울주변에 동역자들이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디모데만큼 믿고 보낼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21-22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야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 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보건대, 디모데를 빼 다른 동역자들은 개인적인 사정과 그들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수 있다. 반면에 디모데는 잘 연단된 사역자였을 뿐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요, 빌립보교회를 세운 공동설립자였으며, 바울의 속마음을 가장 잘 읽는 비서실장과 같은 인물이었다. 이런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은 그를 파송하는 교회들에게 천거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살전 3:2),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고전 4:17),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고전 16:10)라고 하였다.

####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천거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바울이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묘사한 설명은 다섯 가지나 된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일컬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하였다.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형제를, 그리고 동역자를, 그리고 나와 함께 군사 된 자를, 그리고 너희의 사도를, 그리고 나의 필요의 사역자들”이란 뜻이 된다.



바울시대의 인물 ‘마르쿠스 메티우스 에바브로디도’의 동상  
 헬라의 도시국가 카이르네이아(chaeroneia)의 문법학자

여기서 “사도”(apostolos)란 보냄을 받은 사신 혹은 대리자란 뜻이고, “사역자”(leitourgos)는 공무원이란 뜻으로써 종종 재정을 담당하는 자에 쓰였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 된 자”로 언급한 것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위험과 함께 수고와 함께 고난당한 것을 말한다. 게다가 빌립보교회의 사도와 자신의 필요를 돕는 사역자로 언급

급한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교회를 대신하여 빌립보교회에 보낸 선물을 가지고 와서 필요에 따라 바울에게 공급하였음을 의미한다. 에바브로디도는 말은 바 사명대로 바울을 충성스럽게 수발하였고, 바울의 선교업무에 힘을 보탤다. 그리고 그는 과중한 업무(자신과 바울에게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한 노동)를 견디지 못하여 병에 걸렸고, 거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27절).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 하였고, 빌립보교회가 바울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고 “부족함을 채우려 하였다”(30절). 따라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존귀히 여김”(29절)을 받아야한다고 천거하였다.

빌립보교회는 주후 63년경 로마(또는 에베소)에 수감된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Epaphroditus, 2:25, 4:18)를 사절로 파송하여 그들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케 하였고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였다. ‘에바브로디도’란 이름은 ‘아름다운(lovely)’ 혹은 ‘매력적인’(charming)이란 뜻을 가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서 나왔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언급된 ‘에바브라’(Epaphras, 골 1:7, 4.12, 몬1:23)는 ‘에바브로디도’의 애칭(愛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던 이들 ‘에바브라’와 ‘에바브로디도’가 동일 인물이었는지는 명확치 않다.

### 바울시대의 에바브로디도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시대에 흔한 이름이었다. 바울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이름을 남긴 ‘에바브로디도’가 다수 있다. 빌립보교회의 초대 감독, 트라키아의 안드리아카(Andriaca) 교회의 초대 감독, 로마와 나폴리 사이에 소재한 테라치나(Terracina)교회의 초대 감독이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동일 인물이었는지는 명확치 않다. <사도전승>이란 책을 남겼고,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주후 235

바울시대의 인물 ‘마르쿠스 메티우스 에바브로디도’의 초상화 헬라의 도시국가 카이로네이아(chaeroneia)의 문법학자

년에 순교한 히폴리투스(Hippolytus)는 안드리아카(Andriaca)교회의 초대 감독 에바브로

디도를 그가 작성한 70문도의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로마의 에피그라피코 박물관(Museo Epigrafico)에 소장된 비문들 가운데 에바브로디도의 것이 있다. 이 비문의 주인공은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에파프로디투스’로서 주후 20-25년 사이에 출생하여 95년경에 처형당하였다. 이 비문의 주인공은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해방노예(Augusti libertus)로서 황제 네로의 비서관이었으나 네로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황제 도미티아누스로부터 처형당하였다.

바울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또 다른 사람은 문법학자 에바브로디도였다. 그는 출생연도나 사망시기로 볼 때 네로의 비서관과 동일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람은 로마로부터 지원을 받아 유대인 <고대사>와 <유대전쟁사>를 저술한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Flavius Josephus)와 해방노예출신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도스(Epictetos)의 후견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빌립보서 2장 19-30절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교회들 사이에서 이뤄진 시너지를 보여준다. 바울은 영어(囿圍)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곁에 남아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역자들, 곧 자신이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교회에 보낸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로서 빌립보교회를 세운 공동설립자였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교회가 거금과 중대책임을 맡길 만큼 믿음직한 사역자로서 실로 그는 목숨 걸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사역자였다. 게다가 빌립보교회는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적극 후원한 교회였다. 이 시너지가 한 몸처럼 행하는 교회의 특징이다. 이 특징은 (1)하나님의 공활하심이 따른다. (2)뜻을 같이하여 서로를 진실히 생각한다. (3)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 (4)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함같이 서로를 진실히 섬긴다. (5)서로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6)서로의 사정을 간절히 알고자 한다. (7)서로를 높이고 칭찬하며 존귀히 여긴다. (8)병들어 죽을 지경에까지 헌신한다. (9)서로의 근심을 덜어 주려고 힘쓴다. (10)서로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준다.

### 35.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1)(빌 3:1-9)

주 안에서 기뻐하라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달리는 필리피데스(Philippides, 주전 490년)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른 직후 아테네 군사였던 필리피데스가 무장한 채로 아테네까지 40km를 달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전보를 전하였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정복자요!” “ΧΑΙΡΕΤΕ ΝΙΚΩΜΕΝ”(카이레테 니코멘).

‘복음’이란 뜻의 ‘유앙게리온’(euangelion)은 이 승전보(‘카이레테 니코멘’) 또는 이 승전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정복자요!” ‘복음’이란 뜻의 헬라어 ‘유앙게리온’(euangelion)은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정복자요!”(카이레테 니코멘)를 외친 이 승전보 또는 이 승전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

“기뻐하라”는 헬라어 ‘카이레테’(chairete)를 번역한 말이다. 주전 490년 침략군 페르시아를 마라톤 평원에서 무찌른 직후 아테네 군사였던 필리피데스(Philippides, 530-490BC)가 무장한 채로 아테네까지 40km를 달려가 시민들에게 전한 승전보에 잇대어진 말이

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함으로써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정복자들 그 이상입니다!”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 선언은 바울이 승전보 ‘카이레테 니코멘’에서 ‘니코멘’(우리가 정복자요) 앞에 접두사 ‘휘페르’(hyper)를 붙여 ‘휘페르니코멘’(chairete hypernikomen)이란 신조어를 만들으로써 생긴 것이고, 번역하면 “우리가 정복자들 그 이상입니다!”(“We are surpassing conquerors!” 또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가 된다.

바울은 로마서를 쓴지 수년이 지난 지금 다시 빌립보인들을 향해서 동일한 선언을 1절에서 하고 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넉넉히 이겼기 때문이고, 정복자들 그 이상이 되었기 때문이며, 또 앞으로도 넉넉히 이겨낼 것이고, 종말론적으로는 최후승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 자신은 30여년의 선교활동 중에 겪었던 숱한 역경과 환난을 “주 안에서” 넉넉히 이겨냈고, 승리자 그 이상이 되었으며, 비록 영어의 몸이지만, 이 또한 “주 안에서” 최후승자가 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다.

### 할레파를 삼가라

바울이 2-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한 또 다른 이유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로 불린 “할레파”의 박해를 넉넉히 이겨낼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울이 할레파를 일컬어 “개들,” “행악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 부르며 “삼가라” 또는 “조심하라”고 한 것은 할레로 대표되는 율법주의 혹은 유대교적 기독교인 ‘에비온파’를 조심하라고 당부한 것이었다.



사내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날에 받는 할례(brit milah)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선민 계약의 외적  
신체적 표시이며, 가족들은 이 할례의식 때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유대인 남성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계약이 있다는 흔적을 몸에 표시하는 할례이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할례의 계약' (Brit Milah)

을 통해서 유대인 남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언약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된다.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 열 명 이상이 모여서 이 의식을 진행하는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연대책임을 갖기 위한 것이다.

할례의식은 자격자 곧 '모헬'(Mohel)이라 불리는 사람이 집안에서 시행한다. 할례 때 아이를 붙잡는 사람을 '산덱'(sandek)이라 부르는데, '대부'란 뜻이다. '산덱'은 보통 할아버지나 가족의 랍비가 맡는다. 전통적으로 엘리야를 위한 의자가 옆에 놓이는데, 엘리야가 모든 할례의식을 주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의식 중에 베라코트들이 낭송되고, 축복을 받은 포도주 방울을 아기의 입에 넣어준다. 그리고 아기는 이때 히브리 이름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할례(Milah)는 문자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유대교의 율법과 규례, 곧 613개의 계명(Torah)과 수많은 율타리법들(Oral Torah, Gezairoth)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예슈아'(Yeshua)를 '장차 오실 자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쥬'(Messianic Jews)들의 율법과 규례에 대한 견해는 '나사렛당'(Notzrim)과 '에비온파'(Ebionites)로 나뉘었다. 나사렛당은 유대



교의 계명들을 준수했지만, 그것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랍비들이 만든 율타리 법들의 구속력을 부정하였다. 반면에 에비온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2-3절에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로 불린 “할례파”는 에비온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가장 고상한 지식(1)



멜리야 의자(할례계 의식용 의자)  
아슈케나짐(독일 및 동유럽계 유대인들)의 회당

에비온파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이단이였다. 그들은 율법을 중시하여 바울의 글들을 무시하였고,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만 받아들였다. 에비온파는 오늘날의 여호와 증인들처럼 단

일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정하였다.

바울은 일찍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메시아란 가르침에 상반되는 가르침을 이단으로 못 박은바가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터” 외에 곧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헬라인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는 자를 이단자 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천명하였다. 이들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언급된 예루살렘교회로부터 안디옥교회에 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가르친 “어떤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사도총회 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또 이들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언급된 “먹으로 쓴” 추천서를 거론하고, “돌판에 쓴” “율법조문”을 자긍하는 옛 언약의 일군임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언급된 “히브리인”들로서 “지극히 큰 사도들”을 빙자한 “거짓 사도”들로서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바울의 적대자가 갈라디아지역 교회들에게도 나타나 “다른 복음”(갈 1:6,7,9)을 전하고 있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갈 1:8,9)고 강한 어조로 경고한바가 있었다. 또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고후 11:13)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역설적인 말로 권면하였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7-9절)고 천명하였다.

36.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2)(빌 3:10-16)

가장 고상한 지식(2)



바울은 빌립 보서 3장 3-9 절에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늘 가나안땅에 들어갈 합당한 의는 ‘율법의 행위로써’ 얻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하나님의 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 곧 육체의 것들을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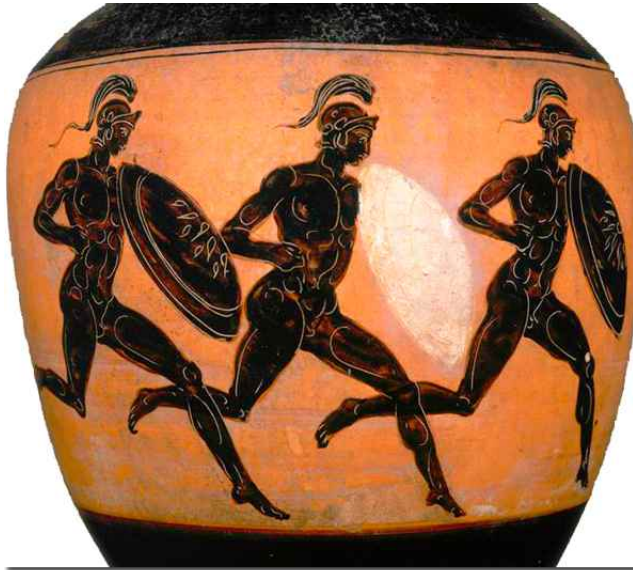
전력 질주하는 달리기 선수가 그려진 저장용기(주전 6세기) Fikellura 스타일로써 밀레토에서 만들어졌다(브리티시 박물관). 뉘 함으로써는 하늘 가나안땅으로 인도해줄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8절에서 언급된 “가장 고상한”이란 말은 헬라어 ‘히페레콘’(hyperecon)을 번역한 말로써 ‘탁월함’ 혹은 ‘능가함’이란 뜻으로써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을 아는 것의 위대

함을 말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위대함을 말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의 위대함을 말한다. 예수님이 하늘 가나안땅으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의 위대함을 말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의 위대함을 말한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위대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이 신뢰했던 것들, 또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 곧 율법의 행위들과 육체의 것들을 해(害)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 “배설물”이란 말은 헬라어 ‘스퀴발라’(skybala)를 번역한 말로써 ‘똥,’ ‘음식찌꺼기,’ ‘쓰레기’ 등을 의미한다. 바울이 이렇게 이전에 자신이 신뢰했던 것들, 또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버린 것은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그분 안에,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주님 안에서 승리자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더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10-1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고 피력하였다.

### ‘이미’와 ‘아직’사이의 긴장

12-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한 말씀은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강조한 말씀을 보충한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미’와 ‘아직’사이의 긴



장 곧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하늘 가나안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다. “꽃대를 향하여”는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하여’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취를 향해서’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영적으로 ‘이미’(already)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그것은 마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취를 향해서 죄의 노예상태를 상징하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침례를 의미하는 홍해를 건넌 것에 불과하다. 마치 히브리인들이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가나안땅을 향해서 고난의 행군을 하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통해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약속으로 받은 하늘 가나안땅을 향해서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2장 12-1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

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당부하였다. 게다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나안땅을 향해서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취를 향해서 터벅터벅 걷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상을 받기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육상선수처럼 달려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그리스도인의 자기부정



결승선을 통과한 달리기 선수들이 그려진 저장함기

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헬라어 ‘텔레이오이’(teleioi)를 번역한 말로써 더 이상 율법의 행위나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성숙함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바울의 인생관이 제대로 밴 말씀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27절에서 이미 이렇게 강조한바가 있다.

[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15-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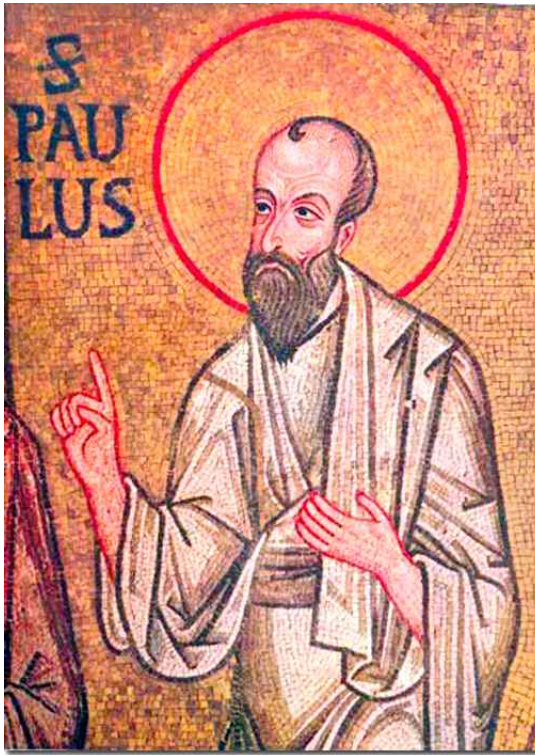
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자기를 부정할 줄 모르고, 자기가 이룬 쪼그만 것에 만족하고, 자기도취에 빠지게 되면, 창조성의 가장 큰 적인 자기우상에 빠져서 결국은 쇠퇴와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자기부정은 자기긍정을 만들고, 자기긍정은 자기부정을 만든다. 자기긍정은 ‘이미 이루었다’는 자긍심을 주고, 자기부정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좌절감을 주지만, 결국 자긍의 힘은 자기부정의 좌절에서 나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기긍정과 자기부정의 사이, 곧 ‘이미’와 ‘아직’사이의 긴장과 갈등에서 나온다. ‘예’(yes)만 있고, ‘아니오’(no)가 없다면 토인비가 지적한 것처럼 자기우상에 빠지기 쉽고, ‘아니오’(no)만 있고, ‘예’(yes)가 없다면 좌절에 빠지기 쉽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코자 하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 부활에 이르고자” 힘썼다. 또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였고,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다.



### 37.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3)(빌 3:17-19)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12세기, 팔라티나 채플, 시칠리아 팔레르모)  
(cappella palatina chapel, palermo Sicily)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믿음과 실천의 구체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였다.

바울은 서신들에서 “본받았다”와 “본받으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완료형 “본받았다”는 데살로니가인들과 자신에게만 사용했고, 명령형 “본받으라”는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로마 등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였다. 주후 52년경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살전 1:6) 되었고,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살전 2:14)되었으며,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살후 3:7)고 칭찬하였다. 수년 후인 주후 57년경에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 4:16)고 권하였다. 그리고 주후 57-58년 사이 겨울에 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롬 15:5)라고 간구하였다. 그리고 수년 후에 다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엡 5:1)고 권하였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고 하였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빌 3:10-11, 17절)고 권하였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신 하나님의 섬김(목회)을 본받고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며, 바울을 본받는 것은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 사도의 섬김(목회)과 전통 곧 믿음과 실천을 본받는다는 뜻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롬 8:29)고 하였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는 목적을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다”(살후 3:9, 빌 3:17)고 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본문 17절,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는 뜻임을 알게 된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섬김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되, 그분의 섬김을 본받고 교훈을 실천했던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임을 알게 된다. 또 그리스도를 본받고 교훈을 실천했던 사도들의 믿음과 실천을 본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1)

18-19절에서 바울이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경고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였는가? 19절에 그 답이 나와 있다. 그들은 “배”(물욕)를 신(神)으로 삼고, “부끄러움”(정욕)을 영광으로 삼으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뜻은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일, 곧 세상을 살리고 생명



빌립보의 바실리카식 예배당의 십자가 유물들

을 살리며 사  
람을 살리는  
일을 생각하기  
보다는 세상의  
일, 육신의 일,  
곧 명예와 권  
세와 재물을  
얻는 일만 생  
각한다는 뜻이  
다. 게다가 땅  
의 일만 생각

하는 자들은 물욕과 정욕을 채우는 탐욕에 빠진 자들로서 물욕 채우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욕 채우는 일을 영광으로 삼는 자들이었다.

바울시대에 이런 자들은 누구였는가? 사도행전 17-18절에 보면,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가 언급되어 있다. 이들은 주전 4세기 초반에 제논과 에피쿠로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스토아학파가 이성을 중시하여 자기부정의 금욕주의를 통한 ‘초연한 마음의 경지’ 곧 ‘아파테이아’(apatheia)를 추구한 반면, 에피쿠로스학파는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쾌락, 곧 ‘아타락시아’(ataraxia)를 선(善)으로 추구하였다. ‘에피큐어’(epicure)란 말은 ‘식도락가’란 뜻이다. 이런 점에서 스토아학파는 금욕주의 영지주의자들의 원조가 되었고, 에피쿠로스학파는 향락주의 영지주의자들의 원조가 되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긴 유대인 에비온파들과 “미련한 것”으로 여긴 영지주의자들을 언급한바가 있다. 유대인 에비온파들은 이미 2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무시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에비온파에서 ‘에비온’(ebion)은 ‘가난’을 뜻하기 때문에 배(물욕)를 신(神)으로 삼거나 부끄러움(정욕)을 영광으로 삼거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로 보기가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금

욕주의를 실천하는 영지주의자들과 스토아철학자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보기가 어렵다. 스토아학파의 창시자 제논의 제자였던 클레안테스(Cleanthes)가 제우스에게 바친 송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아 우둔한 자들이여! ... 비천한 물욕을 채워 줄 소득에만 눈이 어두워 버린 채, 마침내 명성과 감미로운 욕정의 씨앗만을 탐내는가 하면, 또한 하찮은 욕망만을 충족시키려고 애태울 뿐이라네.” 이로부터는 물욕과 정욕을 멀리하는 영지주의자들과 스토아철학자들은 “배”(물욕)를 신(神)으로 삼고, “부끄러움”(정욕)을 영광으로 삼으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로 볼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2)



빌립보의 8각형 예배당의 침례탕 유적

그렇다면 빌립보서 3장 18-19절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였는가? 그들은 초기 영지주의에 편향된 헬라인들, 곧

자유지상주의 또는 쾌락주의를 지향한 영지주의자들이었거나 정원(Garden)공동체였던 에피쿠로스학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에피쿠로스학파가 강조한 쾌락 곧 ‘아타락시아’는 물욕과 정욕을 극복한 평정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어서 빌립보서 3장 18-19절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배”(물욕)를 신(神)으로 삼고, “부끄러움”(정욕)을 영광으로 삼으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로 추정되는 그룹은 자유지상주의 또는 쾌락주의에 경도된 영지주의자들이다.

자유지상주의 또는 쾌락주의에 경도된 영지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전 6:12)며 육체를 남용한 자들이었다. 오늘날에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내 몸의 결정권은 내게 있다며, 자살을 하든, 안락사를 하든, 낙태를 하든, 마약을 하든, 매춘을 하든, 동성애를 하든, 장기를 떼어 팔든, 대리모를 사든 무슨 상관이나는 식이다. 게다가 영지주의자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죄악에 몰든 유한한 현상으로 여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한하고 신령한 본질로 여겼다. 이로 인해서 세상과 육체를 죄악시하였고, 그것들이 영적이고 참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성육신사상을 부정하였다. 그들은 각 지역교회들에 침투한 떠돌이 거짓 교사들 또는 떠돌이 거짓 선지자들로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심대하게 훼손하였고, 교회를 바울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빌립보서 3장 17-21절은 고린도전서 6장 12-20절의 말씀에 잇대어져 있다.

[12]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3]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4]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38.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4)(빌 3:20-21)

####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1)



빌립보서 3장 20-21절에서 언급된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18-19절에서 문제를 삼았던 “배”(물욕)를 신(神)으로 삼고,

빌립보의 바실리카식 교회당 유적(주후 550년경)  
 “부끄러움”(정욕)을 영광으로 삼으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과 상반된 대구(對句)이다.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지상주의 또는 쾌락주의에 경도된 영지주의자들처럼 “모든 것이 가하다”(고전 6:12)며 육체를 남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죄악에 물든 유한한 현상에 불과하다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최후는 “배”(물욕)를 신(神)으로 삼고, “부끄러움”(정욕)을 영광으로 삼으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최후처럼 “멸망”으로 끝나버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가나안땅 지성소의 우편보좌에 앉아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재림하시면,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런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



실 것이기”(20-21절)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빌립보서 3장 17-21절은 로마서 8장 1-25절의 말씀에 잇대어져 있다.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2)

20-2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 가나안땅에 있고, 그들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가 되면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런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는 구절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함축되어 있다.

이 세상은 선수선발전이 열리는 운동장과 같다. 이 세상은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싸움터에 불과하다. 이 세상이 다가올 세상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는 운동장이라면, 운동장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다. 이 싸움은 창조론과 진화론, 무신론과 유신론, 유물론과 관념론과 같은 서로 다른 세계관의 싸움이다. 창조론을 믿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신의 존



로마 황제 티투스가 주후 80년에 발행한 로마군인의 제대증 및 시민국(오스트리아 카른툼 카르눔트움 carnuntum 로마유적 박물관) 사진은 동판 제표면이며, 첫 두 줄에 발행자인 황제의 이름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황제 티투스 카이사르, 신성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대신관”(IMP TITVS CAESAR DIVI VESPASIANI F(ilius), VESPASIANVS AVGVSTVS PONTIFEX MAXIMVS)

재를 믿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신의 개입을 믿는 것이며, 신의 개입을 믿는 것은 이 우주와 내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사명, 방향, 미래를 믿는 것이지만, 진화론을 믿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신의 개입

을 부정하는 것이며, 신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이 우주와 내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사명, 방향,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다.

무신론과 진화론이 태동된 19세기에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1821-1881)는 <죄와 벌>(1866)과 <카라마조프가(家)의 형제들>(1880)을 통해서,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마치 신(神)이나 된 듯이 살인을 비롯한 모든 일을 하려고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위험한 발상은 결국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의 반증이 아닌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런 관점에서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를 죽인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했고, <카라마조프가(家)의 형제들>에서 스메르자코프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반의 말에 속아 증오의 대상이었던 아버지 표도르를 살해하였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 같은 행동들을 죄라고 불렀다(겔 28장, 사 14장).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3)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주후 90년에 발행한 로마군인의 제대증 및 시민권(이스라엘 박물관). 동판의 손상으로 소지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동판의 첫 두 줄에 발행자인 황제의 이름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황제 카이사르 신성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도미티아누스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대신관”

(IMP CAESAR DIVI VESPASIANI F(ilius) DOMITIANVS  
AVGVSTVS GERMANICVS PONTIFEX MAXIMVS)

속주민으로서 로마시민권을 얻는 방법들 가운데 한 가지가 로마군단에 입대하여 장기간 복무하는 것이었다. 제대증서는 소지자가 로마군대를 영예롭게 제대하였고, 황제로부터 로마시민권을 포상 받았다는

내용을 새긴 동판이었다. 제대증은 황제가 영예롭게 제대한 베테랑들의 이름을 발표한 칙령을 공증한 복사본이었다. 제대증은 두 개의 동판을 경첩으로 붙여 접을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4면에 글을 새겼다. 제1표면에 발행자인 황제의 이름과 전문(全文)을, 제2표면에는 일곱 증인들의 이름을 새겼다. 증인들의 인장은 금속리본으로 보호되었다. 제1,2이면(裏面)에는 제1표면에 새긴 전문(全文)을 정확히 다시 새겼다. 그리고 동판을 접어서 인봉하였는데, 인봉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도 제1표면만으로 전문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면에 새긴 전문은 로마에서 발행된 칙령을 복사하고 공증한 것으로

써 위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제대자가 살고자 하는 지역관청에 인봉된 제대증서를 제출하면 수장고의 책임자는 인봉을 뜯고 안팎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소지자의 성명을 로마시민으로 등재시켜 주었다.

바울과 실라 및 빌립보인들은 로마시민권을 보유한 자들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큰 특권으로 인식되었을지는 당대의 로마시민권이 갖는 특권이 얼마나 컸는지, 특히 시민권을 갖지 못한 수많은 노예들과 점령지 주민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의 상징이였는지를 알면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로마제국의 전체인구가 6천만 명이었는데, 그중 15퍼센트를 차지한 노예 9백만 명보다 시민권자의 수가 더 적었다. 그만큼 희소가치가 높고 특권도 많았다. 권위의 상징인 긴 토가를 걸칠 수 있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었으며, 상업에 제약이 없었다. 시민권자와 결혼할 수 있었고, 고문과 구금을 함부로 당하지 않았으며, 재판의 권리가 있었다. 또 노역과 세금을 면제받았고, 오락행사의 무료관람과 무료배급도 받곤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준수나 혈통이나 돈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고 선포하였다. 오랜 기간 복무하거나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시민권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받는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선포하였다. 이것이 복음이다.

### 39.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5)(빌 4:1-3)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빌 4:1) 금관(4-3BC, 라이스 핑거홀른 박물관, 독일 만하임)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에서 “그러므로”는 앞서 언급된 3장 18-21절을 말한 것이다. 거기서 바울은 하늘가나안땅의 시민권자이고 복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처럼 “모든 것이 가하다”(고전 6:12)며 “배”(물욕)를 신(神)으로 삼고, “부끄러움”(정욕)을 영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최후는 “멸망”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최후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고 하늘의 월계관을 받아쓸 “정복자 그 이상인 자들”(hypernikomen, 롬 8:37)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후가 이처럼 밝고 희망찬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지성소의 우편보좌에 앉아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분께서 다시 강림하시면,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런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하였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에서 “이와 같이”는 헬라어 ‘후토스’(hutos)를 번역한 것으로서 “그리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란 뜻이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3장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주 안에 서라”고 말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례파”를 삼가라. 율법의 행위나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지 말고 “배설물”로 여기라.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성숙함을 향해서 달려가라. “뜻대를 향하여,” 하늘 가나안땅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취를 향하여, 월계관을 받아쓰기 위하여 전력 질주하라. “나를 본받으라.” 배(물욕)를 신(神)으로 삼고, 부끄러움(정욕)을 영광으로 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멀리하라. 이 같은 방식으로 “주 안에 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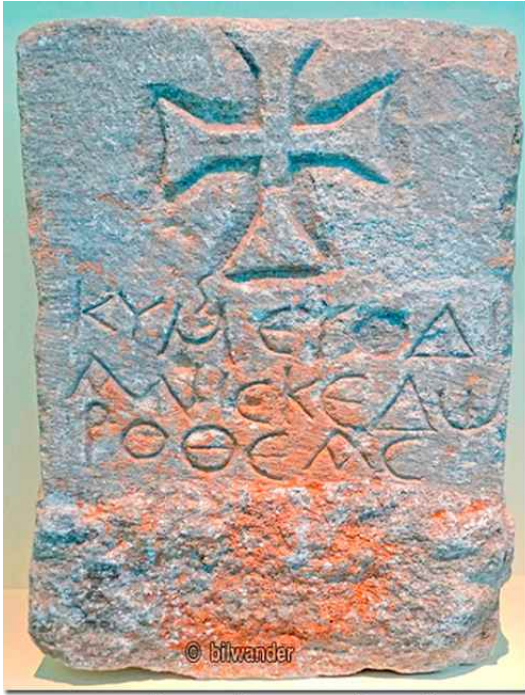
“서라”는 헬라어 ‘스테케테’(stekete)를 번역한 말로써 ‘굳게 서다’(stand firm)라는 뜻이다. 이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 곧 적의 공격, 화산폭발, 지진발생과 같은 상황에서도 동요하거나 초소를 떠나지 않고 굳건히 서있는 훈련된 군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에게는 여성 협력자들이 많았다. 이들 가운데는 빌립보교회의 창립멤버인 자주옷감장사 루디아, 바울을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천막제조자 브리스길라(롬 16:3-4),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쓴 유오디아와 순두게,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겐그레아교회의 일군 뵈뵈(롬 16:1-2) 등이 있었다. 외경 <바울과 테클라 행전>에 따르면, 아름답고 눈물겨운 전설과 미모를 지닌 테클라(Thecla)도 있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





두 명의 빌립보 여성들의 비명(빌립보 박물관)

Κυρήνηριον] Euodians κε Δωροθεα  
(쿠레네리온 유오디안스 및 도로테아)

은 마음을 품으라”에서 “유오디아”(Euodia)는 헬라이어 ‘Eu’(좋은)와 ‘hodos’(길, 여행)가 합성된 여성이름으로써 ‘순조로운 여행’을 뜻한다. 요한삼서 2절에서 “잘됨 같이... 잘되고”로 번역된 헬라이어 동사는 ‘유오도오’(euodow)로써 ‘순조롭고 신속한 여행을 이루게 하다,’ ‘방향과 쉬운 길로 인도하다,’ ‘성공적인 결과를 주다,’ ‘변창시키다,’ ‘변성하다,’ ‘성공하다’라는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

“순두게”(Syntyche)는 헬라이어 ‘Syn’(함께)과

‘Tyche’(행운, 운명, 행운과 운명의 여신)가 합성된 여성이름으로써 ‘행운이 함께하다’는 뜻을 갖는다.

이 두 여성들 가운데 한 명은 ‘루디아’의 본명(full name)의 일부분일 가능성이 있다. ‘루디아’(Lydia)란 그녀의 고향 ‘두아디라’(Thyatira)가 속한 지방명칭이기 때문이다. 이 두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리 이름이 좋고 뜻이 좋아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뜻대를 향하여,” 하늘 가나안땅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취를 향하여, 월계관을 쓰기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그 길이 즐거울 수 없고 행운이 함께할 리 없다. 그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였다. 만일 그들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드렸다면, 그들의 길이 “유

오디아” 곧 즐거웠을 것이고, 그들의 길에 “신티케” 곧 행운이 따랐을 것이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빌립보 성벽을 이고 있는 여신 행운  
(주후 117-138년, 빌립보 박물관)

3절, “또 참으로 나와 명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에서 “명에를 같이한” 자는 ‘함께’(syn)와 ‘명에’(zygos)가 합성된 헬라이어 ‘쉬쥐게’(syzyge)를 번역한 말이다. 그리고 ‘글레멘드’는 헬라이어 ‘클레멘토스’(Clementos)를 번역한 말이다.

빌립보교회에 “꽃대를 향하여” 바울과 “명에를 같이”했거나 “함께 힘쓰던” 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함께 힘쓰던”은 헬라이어 ‘쉬네들레산’(synethlesan)을 번역한 말로써 ‘함께’(syn)와 ‘겨루다’(ethlesan)가 합성된 말로써 같은 팀의 운동선수들이 “꽃대를 향하여” 함께 투쟁하는 것을 뜻한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하늘가나안땅으로 달려가는 반천련(伴天連)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며, 달음질 후 월계관을 받아쓸 팀 승리자들(nikomen)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이들이 경쟁

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하고 후원하라고 당부한 것이었다.

“도우라”는 말은 헬라어 ‘실람바누’(syllambanou)를 번역한 것으로써 ‘함께’(syn)와 ‘붙잡다’ 혹은 ‘붙잡았거나 이해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결합하다’가 합성된 말로써 “뜻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동무들과 결합하고 연합하라는 뜻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명예를 같이하다”와 “함께 힘쓰다”와 동일한 뜻이다.

‘반천련’이란 16세기에 일본인들이 기독교인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부들을 호칭한 말로써 ‘천국까지 동행하는 동무’란 뜻이다. 바울이 말한 ‘명예를 같이한 자’란 뜻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뜻대를 향하여,” 하늘 가나안땅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취를 향하여, 월계관을 받아쓰기 위하여 전력 질주해야 하는 ‘명예를 같이한 자’요, ‘반천련’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무들이다. 바울에게는 이런 동무들이 많았다. 그들 중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으며, 친척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다.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다.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였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40.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6)(빌 4:4-9)

#### 승리의 근원



주전 490년 마라톤 평원에서 침략자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른 직후 아테네까지 40km를 달려온 필리피데스(Philippides)가 기쁜 소식,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정복자요!”(카이레테 네코멘)라고 전한 후 쓰러지는 모습(Jerome-Martin Langlois, France, 1779 - 1838)

바울은 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근거를 “주 안에” 두었고, 5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관용의 근거를 주님의 재림에 두었다. 6-7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평강에 두었다. 그리고 8-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하였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주요 어휘들, 곧 “시민권,” “면류

관,” “뜻대,” “달음질,” “기쁨,” “주 안에서”가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승리에 관련 있고, 로마서 8장 37절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We are more than conquerors!)”와 골로새서 2장 15절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말씀에 잇대어져 있다. 이는 또 주전 490년에 마라톤 평원에서 침략자 페르시아군대를 무찌른 직후 아테네까지 40km를 달려온 아테네군대의 전령, 필리피데스(Philippides)가 시민들에 선포한 복음,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정복자요!”(Rejoice. We are conquerors!)에 잇대어져 있다. 예수님과 필리피데스의 공통점은 이 기쁜 소식, 곧 우리가 승리자들이란 사실을 전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지혜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다 이루었다”(요 19:30)고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다. 또 필리피데스는 혼신을 다해 40km를 달려와 “카이레테 니코멘”을 외친 후에 숨졌다. 바울이 매사에 “주 안에서”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 면류관, 기쁨의 근거가 바로 “주 안에서” 이미 성취한 승리에 있고, “뜻대를 향하여” “달음질”해 가야 할 이유가 장차 “주 안에서” 거둘 최후승리에 있다.

### 기쁨의 근원

바울은, 비록 자신이 영어의 몸이지만,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기쁨”과 “기뻐하라”를 16회나 사용하였다. 빌립보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태장을 맞고 온몸이 상한 후에 깊은 옥중에서 힘차게 부른 기쁨의 노래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이다. 그리고 빌립보 서신은 수감된 바울이 선교헌금을 보내준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이자, 옥중에서 부른 기쁨의 노래이다.

바울의 권면의 큰 특징은 “주 안에서”(in the Lord)에 있다. 바울과 빌립보인들이 누려왔고 앞으로도 누릴 기쁨의 근원은 “주 안에” 있었다. 16번 사용한 ‘기쁨’과 ‘기뻐하라’에서 5회를 “주 안에



석관에 복조된 전차 경주 장면  
사망자가 많을 또는 전차 경주자였거나 후원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서” 기뻐하고  
있다거나 또는  
기뻐하라고 하  
였다(2:29,  
3:1, 4:4,10).  
바울 자신도  
“주 안에서 크  
게 기  
뻐”(4:10)한다  
고 했고, “종  
말로 나의 형  
제들아 주 안  
에서 기뻐하  
라”(3: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4:4)고 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로마서 8장 37절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자들 그 이상이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또 필리피테스가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정복자들이요!”(카이레테 니코멘)라고 전한 소식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근원은 “주 안에서” 이미 성취한 승리와 승리자라는데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그리스도인들을 승리자로 만들어주셨다. 이 기쁨의 소식이 곧 복음이다.

‘복음’이란 뜻의 헬라어 ‘유앙게리온’(euangelion)은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정복자들이요!”(카이레테 니코멘)를 외친 메신저의 이 승전보 또는 이 승전보에 대한 보상을 의미했다고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함으로써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정복자들 그 이상이요!”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 선언은 바울이 승전보인 ‘카이레테 니코멘’에서 ‘니코멘’(우리가



정복자들이요) 앞에 접두사 ‘휘페르’(hyper)를 붙여 ‘휘페르니코멘’(chairete hypernikomen)이란 신조어를 만듦으로써 생긴 것이고, 번역하면 “우리가 정복자들 그 이상이요!”가 된다.

### 최후승리의 근원



주전 113-112년의 로마 은화 데나리온  
 전면에 헬멧을 쓴 여신 로마를 새겼으며, 뒷면에 검투사들의 대결  
 장면을 새겼다. 그 밑에 쓴 T[it]US DEIDI[US]는 주화 발행자의  
 이름을 새긴 것이다(티투스 데이디우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승리의 근원을 “주 안에서” 찾았다. 그리스도인들이 최후 승리의 근원을 “주 안에서” 찾아야 하

는 이유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이며,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피조물로서는 그 누구도 인간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푯대를 향하여” “달음질”해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아직’ 최후승리를 성취하지 못했고, ‘아직’ 최후승리자가 되지 못했지만, ‘이미’ 승리를 약속 받은 정복자들이다. 바울이 3절에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푯대를 향하여” 달리는 “달음질”은 결코 헛되거나 허무하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의 달음질에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끝내 이기고 빛나는 월계관을 받아쓸 최후정복자들이기 때문이다.

빌립보는 이미 승리를 경험한 전쟁터였다.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그로 인해서 카이사르의 조카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심복부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마르쿠스 브루투스과 브루투스의 매제이자

주동자였던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의 군대를 추격하여 주전 42년에 빌립보 평원에서 무찔렸다. 이로써 빌립보는 ‘이우스 이탈리아쿰’(jus italicum) 곧 이탈리아에 적용되는 동등한 권리라는 특권을 부여받았던 시민권자들의 도시였다.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승리의 근원을 주님의 재림에 두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6-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거둔 승리와 ‘아직’ 완성시키지 못한 최후승리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명예를 같이” 하며, “함께 힘쓰며”(3절) 환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한 이유도 주의 재림과 최후승리에 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에 최후승리를 확약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8-9절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하였다.

#### 4.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7)(빌 4:10-23)

#####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력



고대 빌립보 시 유적지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의 배경에 정복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계신다. 그분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엡

2:8),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권과 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되며, 최후승리자가 되고, 월계관을 받아쓰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멈출 수 없다. 믿음의 끈, 사랑의 끈, 소망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믿음위에 굳세서며’(steketē),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명을 함께 메며(syzyge), 함께 힘쓰며(synethlesan), 꺾대를 향하여, 하늘 가나안땅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취를 향하여, 월계관을 받아쓰기 위하여 전력 질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또 장차 받을 영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이는 유한한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수고와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롬 8:15-18, 고후 4:17-18). 따라서 그리

스도인들은 관용을 베풀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바울이 10-13절에서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고 쓴 배경에도 정복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계신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주시는 자(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 선교참여

15-16절에 따르면, 빌립보인들의 선교참여는 매우 자발적인 행위였다. 빌립보인들은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뿐 아니라, 빌립보를 떠난 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번 이상 선교헌금을 보냈다. 여기서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는 정확한 횟수를 지칭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이상이라는 뜻이다.

17절에 따르면,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선교헌금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았다. 바울은 데살로니아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살전 2:9, 살후 3:7-8).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유익”은 헬라어 ‘로곤’(logon)을 번



발립본에서 1975년에 발견된 팔각형 교회당 바닥 모자이크(주후 340년대). 바닥에 새겨진 모자이크의 내용은 이렇다: “주교 포르피리오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교회당의 모자이크 바닥을 만들었다.”(Po[rphy]rios episkopos te[n k]entesin tes basilikes Paulo[u ep]oiesen en chr[ist]o).

주는 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후 9:7-10).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참여는 풍성한 열매로 보상될 영적 투자인 셈이다.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는 헬라어 ‘아페코 데 판타’(apecho de panta)를 번역한 것으로써 ‘아페코’는 당대의 파피루스문서에서 흔히 쓰인 영수증 관련 단어였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미 받았다,’ ‘이것은 나의 영수증이다,’ ‘빛진 모든 것을 갚았다’의 뜻이다. 또 “풍부한지라”는 바울이 받는 후원이 필요를 채우고도 남았다는 뜻이다. 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는 제단에서 불타는 제물의 향기, 곧 고기냄새를 의미하기도 하고,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거룩한 기름의 향기를 말한다. 성막시절에는 제사장의 뜰에 설치된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와 성소에 설치된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지성소의 제단 곧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로운 헌신이 하늘가나 안팎의 지성소 보좌에 상달되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다.

역한 것으로써 신용장부에 붙고 있는 이익금이란 뜻이다.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복되고,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헌신자에게, 예수님께서 헌신하시고 영광스런 보좌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보상하신다는 뜻이다.

###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



빌립보의 8각형 예배당의 바닥 모자이크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난 10여 년간 자발적으로 복음의 일에 참여한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기원하였다.

다.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구제와 선교에 있어서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 그들의 믿음은 바울의 믿음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믿음이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믿음이었으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믿음이었고,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 후하게 베푸는 역설적인 믿음이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점치는 노예소녀와 감옥을 지키는 간수 가족으로 시작된 교회로써 몹시 가난하였고 시련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로마제국의 시민권자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갖는 자부심이 대단하였고, 바울과 멩에를 같이 하여 뜻대를 향하여, 하늘가나



안 땅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빛나는 월계관을 받아쓰기 위하여 함께 힘쓰려는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열정이 대단하였다. 이런 사실은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 밝혀졌다.

[1]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끝으로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도하면서 끝내 이기고 승리할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빛나는 월계관을 씌워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바울은 21-22절에서 복음이 카이사르의 집안에까지 전파된 사실을 전하며 문안하였고, 2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축복기도 함으로써 빌립보서를 끝냈다.